



2017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017. 제13회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2017. 제13회 경남독서한마당



- 사 업 명: 경남독서한마당
- 운영 기간: 1월 ~ 12월
- 운영 대상: 경남도민
- 운영 내용: 독서공모전 및 독서진흥행사
(작가와의 만남, 수상작품 순회전시)
-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 주 관: 창원도서관
- 협 력: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23개 공공도서관



■ 심 사 평	04
■ 수상작품	07
▶ 독서감상문	
- 초 등 부	08
- 청소년부	61
- 일 반 부	97
■ 수상작품	105
▶ 독서감상화	
- 초 등 부	106
- 청소년부	112
▶ 독 서 신 문	
- 초 등 부	113
▶ 독 서 만 화	
- 초 등 부	116
- 청소년부	121
▶ 북트레일러	
- 청소년부	122
■ 2017.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123
■ 2017.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	125
■ 역대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126

심사평

독서감상문

결심에 오른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고른 수준을 보여주었다. 지역마다 독서감상문의 접근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 글의 속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일반적인 전개 방법은 작품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형식이었다.

저마다 처음, 중간, 끝을 개성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간혹 응모작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잘 짜여졌으나 읽기가 어렵고 갑갑한 느낌을 주는 글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글이든 결국 독자와 소통하는 글이 좋은 글이 아닐까? 심사위원들은 ‘공감’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 공감은 지은이 스스로에게서 출발하여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리라. 이런 관점에서 입상작들을 선정하였다. 공감과 울림이 있는 글들이 앞으로도 많이 응모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서감상화

전년도에 비해 비슷한 작품수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저학년들의 자유롭고 흥미 있는 동심의 세계를 다양한 생각과 스킬로 평면 종이 위에 특색 있게 표현하였다.

고학년의 경우 자유로운 상상력과 디테일한 표현, 오브제를 사용한 표정과 내용에 충실한 표현력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청소년 작품에서도 다채로운 생각과 다양한 발상이 돋보였다.

특히 저학년 대상작은 주인공 늑대를 크게 부각시키고 화면 위쪽에 멀리 있는 산과 강을 그려 넣어서 원근감을 잘 표현했다. 또한 투명감을 잘 살린 명암 표현과 묘사력이 뛰어났으며

고학년 대상작은 얼굴색과 지퍼를 활용한 오브제로 부끄러움과 과묵함을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독서신문

독서신문 심사를 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신문 구성요소와 독창성, 레이아웃의 짜임새, 무엇보다 자신만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였다. 전문가가 봐도 놀랄 정도로 우수한 지면도 많았지만 지역과 학교별 수준 차이가 느껴져 안타까웠다.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신문활용교육 등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될 것 같다.

저학년 대상작의 경우 전체 내용이 짜임새 있을 뿐 아니라 책소개와 관련한 할머니의 인터뷰, 다양한 사진, 그림을 활용한 음식 소개가 돋보였다.



고학년 대상작의 경우 독서신문의 형식을 잘 갖추었고, 여러 권의 책을 읽고, 구성과 형식에 맞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독서만화

해마다 독서만화 부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량이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초등 저학년 작품의 경우 자신만의 느낌을 창의적인 생각과 순수한 표현으로 만들어 낸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초등 고학년 작품은 각 칸마다 만화적 표현이 섬세하고, 창의적인 컷과 칸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표현된 점이 돋보였다. 또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면서 처음과 끝의 완성도가 높았다. 청소년의 작품은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잘 표현하였고 독서만화의 장점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북트레일러

북트레일러라는 부문을 생소해하는 학생들이 많아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독서 후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호기심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 같다. 북트레일러는 쉽게 말해 책을 소개하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도 작품들을 보면서 ‘이 책 꼭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작품을 중점으로 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창의적인 표현기법과 영상편집 기술을 정성껏 뽐낸 준 친구들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상작은 청소년들에게 힙합이라는 소재로 꿈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고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준전문가 수준의 영상편집 기술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힙합 프로그램을 함께 엮어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였다.

최우수작의 경우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모여 ‘형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의 원관념인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완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그란 종이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직접 그려 넣고 그런 점들이 이어진다는 설정으로 형상화한 아이디어는 아주 신선하고 독특하였다. 게다가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색감과 모션들이 인상적이었다.



2017. 제13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감상문 부문



독서감상문 | 초등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장상 우수

- 010 추억은 소중하다 - “하룻밤”을 읽고
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강서윤
- 012 전통음식을 많이 먹자 - “바람의 맛”을 읽고
용산초등학교 5학년 배경호
- 014 아빠나무를 읽고 - “아빠나무”를 읽고
회화초등학교 3학년 이지호
- 015 행복한 늑대 - “행복한 늑대”를 읽고
사화초등학교 2학년 김연재
- 017 선물 같은 하룻밤 - “하룻밤”을 읽고
성산초등학교 3학년 서규연
- 019 감기에 걸린 물고기 - “감기 걸린 물고기”를 읽고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학년 김연서
- 020 기적을 통한 행복 -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거제고현초등학교 6학년 윤혜리
- 021 까레이스키의 노래 - “503호 열차”를 읽고
덕계초등학교 6학년 박가온
- 023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삼계초등학교 4학년 차도빈
- 025 잊히면 더 아프다 - “503호 열차”를 읽고
반송초등학교 6학년 정승모
- 026 아기 늑대의 진짜 행복 - “행복한 늑대”를 읽고
진영중앙초등학교 1학년 김다은
- 027 아빠나무(나의 든든한 버팀목) - “아빠나무”를 읽고
법수초등학교 1학년 조아인
- 028 20년 후 지구에게... 꼭! 꼭! 약속해 - “비닐봉지 하나가”를 읽고
대운초등학교 2학년 서연수
- 029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는 내가 지킨다 - “비닐봉지 하나가”를 읽고
전안초등학교 2학년 김민재
- 030 모두가 행복해지는 책 - “행복한 늑대”를 읽고
서진초등학교 3학년 우진형
- 031 거짓말 - “거짓말”을 읽고
안골포초등학교 3학년 강보송
- 033 아빠 보고 싶어요 - “아빠나무”를 읽고
미조초등학교 2학년 문진수
- 034 이 세상에 한 마리뿐인 대단한 늑대에게 - “커림포의 왕 로보”를 읽고
대성초등학교 3학년 김서울
- 035 행복한 늑대 - “행복한 늑대”를 읽고
생초초등학교 3학년 권지현
- 036 아빠나무를 읽고 - “아빠나무”를 읽고
창동초등학교 2학년 정채윤

- 037 **아빠나무를 읽고** - “아빠나무”를 읽고
수양초등학교 1학년 정지윤
- 038 **아빠나무를 읽고** - “아빠나무”를 읽고
제산초등학교 1학년 하재현
- 039 **행복함을 꿈꾸는 지민이 늑대** - “행복한 늑대”를 읽고
거제상동초등학교 3학년 이지민
- 040 **산딸기 크림봉봉** - “산딸기 크림봉봉”을 읽고
신안초등학교 1학년 정은우
- 041 **비닐봉지의 변신** - “비닐봉지 하나가”를 읽고
안민초등학교 2학년 조연우
- 042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을 읽고** -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을 읽고
의령초등학교 5학년 김정민
- 04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 “503호 열차”를 읽고
도동초등학교 6학년 이윤석
- 045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을 읽고
초전초등학교 5학년 정채언
- 047 **엘 데포를 읽고** - “엘 데포”를 읽고
사남초등학교 5학년 박혜리
- 048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을 읽고
진남초등학교 4학년 김현정
- 050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호암초등학교 6학년 박은결
- 051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어** - “대단한 단추들”을 읽고
삼계초등학교 6학년 조솔지
- 052 **힘을 내요! 슈퍼파워~** - “엘 데포”를 읽고
가고파초등학교 6학년 김도윤
- 053 **바람의 맛을 읽고** - “바람의 맛”을 읽고
김해부곡초등학교 5학년 이예림
- 054 **죽음의 기적** -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충무초등학교 6학년 강난영
- 055 **분홍 문이 알려 준 행복** -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초전초등학교 6학년 김서연
- 056 **분홍 문의 기적이 내 친구에게도 찾아왔으면...** -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거제중앙초등학교 5학년 공석진
- 057 **돈 한 장이 매길 수 없는 가치** -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석동초등학교 5학년 기건
- 058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야!** -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를 읽고
신양초등학교 6학년 전해인
- 060 **엘 데포** - “엘 데포”를 읽고
중리초등학교 6학년 신유비



추억은 소중한다

-하룻밤을 읽고-

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강 서 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손자가 용궁에서 가져온 초록 하트 보석 기념품에 마음이 가서 내가 좋아하는 기념품에 대해 쓰고 싶었다.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나는 마음이 달라졌다. 처음 읽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다. 그건 추억, 기억, 시간의 중요성이었다. 이 책에선 준서와 유나의 아빠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해준다. 아빠의 집에서는 10살이 되면 할아버지와 함께 밤낚시를 가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8살이었던 아빠를 밤낚시에 데려간다. 가족들은 모두 슬프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배웅한다. 나는 왜 가족들이 다른 아이들이 하던 것처럼 밤낚시를 가는데 모두 시무룩할까 의아했다. 궁금증에 휘리릭 다음 장을 넘겼다. 다음 장에서 어린 시절의 아빠는 할아버지와 낚시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정답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러고 싶어 부러웠다. 할아버지는 지금 손자와 밤낚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하셨다.

나는 '다른 행복한 때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지금이 행복하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었다. 그 아이도 나와 생각이 같은지 할아버지한테 물었다. 할아버지는 "시간이 또 온다고 해도 지금과 같을 수는 없지. 시간은 저 강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어. 또 한순간도 멈추지 않지." 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왜 가족들이 배웅할 때 모두 시무룩했는지 눈치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죽음에 대해 내 나이쯤 되면 죽음이 삶을 다한 뒤 오는 선물 같다고 하셨다. 죽음이 선물 같다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난 내가 세상에서 사라질까 두렵기만 한데...

할아버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싫증이 나기 시작했을 때 커다란 잉어가 잡혔다. 하지만 한밤중 불쌍한 마음에 손자는 잉어를 풀어주고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면 손자는 소원으로 할아버지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안타까웠다. 또한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미안할 손자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가족 중 한명을 잃는다는 건 상실감이 크다. 나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 그러나 용궁에서 할아버지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슬플 것이다. 할아버지는 죽음은 삶을 다한 뒤 오는 선물이라 했다. 그런데 삶을 다했어도 쉬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나는 할아버지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손자가 너무 부럽다. 나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다.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내가 7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할아버지와 텃밭 가꾸기, 강원도 여행 가기, 내가



제일 잘하는 특급 안마해 드리기 등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준서, 유나의 아빠처럼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보석 같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엄마 아빠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꿈을 꾸신다. 그런 날이면 엄마는 항상 우셨다. 한 번은 엄마가 주무시다가 큰 소리로 평평 우셔서 그 소리에 놀라 내가 잠이 깬 적도 있다. 나에겐 씩씩하고 높게만 보이던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나처럼 어린 자식이었구나.’ 싶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 효도를 해서 엄마 아빠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일은 스스로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성실히 해 추억 보석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전통음식을 많이 먹자

-바람의 맛을 읽고-

용산초등학교 5학년 배 경 호

옛날 조상들이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은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많다. 요즘엔 아이들, 어른들 상관없이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부모님께서 회사에 다니는 집이 많아지면서 일이 바빠서 시간도 없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외식을 하는 집이 늘어나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도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외식을 자주 해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 다른 식당으로 갈 때도 있고 오래 기다렸다가 먹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엄마는 나한테 많이 미안해하시면서 다음에는 집에 반찬이 없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신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간장, 된장, 김장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표하는 음식들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재료들은 그 지역의 바람, 햇빛,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자란 것이다. 항아리에 담아 둔 간장과 된장, 못나고 썩은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잘 빻아 만든 감자떡, 여름에 나는 채소들을 겨울까지 먹을 수 있도록 유리병에 저장해 놓기도 하고 갖은 양념에 무쳐먹는 장아찌, 여러 가지 재료에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고 버무린 김장김치 등 책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귀중하고 사람들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이라고 느꼈다.

이 책에 나오는 음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맛이 재밌는 삭힌 홍어이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먹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알싸하고 매캐한 맛 때문에 코가 뻥 뚫리고 눈이 번쩍 뜨인다는 말에 코가 잘 막히는 나의 코를 위해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고 한번 먹어보면 절대로 잊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맛이 정말 궁금하고 군침이 핑 돌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를 넣고 만든 고등어조림이다. 엄마가 자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김치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책에 나오는 음식들은 만드는 일이 많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았고 오랜 기다림이 주는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즐겁고 보람된 일이며,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축복받은 일이라고 느꼈다. 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라서 '바람의 맛'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분 좋은 맛이라고 생각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재료로 수확하여 만든 음식을 다함께 모여 오순도순 정답게 나누어 먹는 화목한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다. 농사를 지어 얻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나를 먹게



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책에 나오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바람의 힘은 음식의 맛을 더욱 더 감칠맛 나게 해 주면서 음식에 담긴 특징의 맛을 살려주는 자연의 힘이고 건강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위대한 것이라고 느꼈다. 앞으로는 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 때 내가 일을 많이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된장찌개를 싫어하는 나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된장찌개를 편식하지 않고 잘 먹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바람의 맛'이 담긴 일곱 가지 음식을 잘 알게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전통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몸에 나쁘고 건강을 해치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아빠나무를 읽고

-아빠나무를 읽고-

회화초등학교 3학년 이 지 호

나는 2017년 경남독서한마당 독서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추천도서 목록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아빠나무’ 라는 책이 내 눈에 딱 들어왔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아빠나무가 두 그루가 있기 때문이다. 책 속의 이야기는 소녀가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작은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 아빠와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소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아빠나무를 찾아갔다. 그때 아빠나무가 소녀에게 마치 아빠처럼 말했다. “너는 아빠의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걸 꼭 기억 해주렴.” 소녀는 ‘아빠는 언제까지나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라고 생각했다. 소녀는 더 이상 아빠가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았다.

나의 아빠나무는 내가 어릴 땐 한 그루였다. 아빠는 언제나 내 나무 놀이터였다. 아빠 어깨에 올라가고, 아빠 머리를 두드리고, 아빠 두 팔에 매달리기도 했다. 아빠는 내게 거인 같고 큰 나무였다. 아빠는 내 놀이터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런 아빠가 제일 좋다. 또 다른 아빠 나무는 여섯 살 때 생겼다. 아빠가 고성으로 귀농하셨고, 우리 비닐하우스 옆에 삼백 살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었다. 엄마, 아빠가 일하실 때 나는 항상 그 나무에서 놀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우리 가족은 그 나무 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때 나는 엄마 아빠께 “이제부터 이 나무는 아빠나무예요. 옛날엔 아빠가 내 나무 놀이터였는데 이젠 진짜 아빠나무 놀이터가 생겼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그 나무를 ‘아빠나무’ 라고 불렀다. 나는 아빠나무에서 타잔, 펭귄, 파브르가 되었다. 타잔처럼 나무에 올라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다른 나뭇가지로 이동도 했다. 넝쿨이 있다면 더 멋있을 것이다. 가끔은 아빠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잤다. 그럴 때면 나는 남극의 신사 펭귄이 된다. 남극처럼 너무 추워서 벌벌 떨며 잠을 잤다. 그리고 어떤 때는 파브르가 된다. 줄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개미도 따라가 보고 장수풍뎅이를 잡기도 했다. 나의 아빠나무는 내 어린 시절의 놀이터고, 추억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이다.





행복한 늑대

-행복한 늑대를 읽고-

사화초등학교 2학년 김 연 재

이번 여름방학에는 독서감상문 한편 써 보기로 했다. 내 친구 예술이가 경남독서한마당 공모전이 있다고 말해주었거든요. 많은 책들 중에 ‘행복한 늑대’ 라는 책을 골랐답니다. 저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제목을 보고 ‘행복한 늑대’ 를 읽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늑대가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책이 왔는데 너무나 재미있어 보여 얼른 포장을 뜯어서 읽어 보았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엄마 늑대는 아기 늑대를 많이 걱정해요. 왜냐하면 원래 늑대의 모습은 사납고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아기 늑대는 마음씨가 너무나도 착했어요. 그래서 삼촌 늑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삼촌 늑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기 늑대를 자기 집으로 보내면 원래 늑대처럼 사납고 잔인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기 늑대가 도착했는데 아기 늑대가 “여기 뽀뽀해주세요.” 라고 해서 삼촌 늑대는 너무나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삼촌 늑대는 ‘늑대의 기본은 갖추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기 늑대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아아, 우우.” 라고 울면 사람들 마음이 쪼그라드는 법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기 늑대도 “아아아, 우우우.” 따라 울었어요. 삼촌 늑대는 이 정도면 좋다고 하여 산을 내려오는데 무당벌레를 만났어요. 삼촌 늑대가 무당벌레를 밟아 죽이려고 하자 아기 늑대가 “안 돼요! 무당벌레를 밟으면 안 돼요.” 하고 말했어요. 아기 늑대의 말에 삼촌 늑대도 무당벌레를 밟으려고 한 게 후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앞에 무당벌레가 있으면 안 밟고 피해 갑니다. 밟으면 무당벌레가 죽으니까요.

삼촌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아기 염소 이야기를 해 주었죠. 삼촌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잡아먹으려면 목소리가 고와야 하고 피부가 하얗고 깨끗해야 한다면 날달걀을 먹고 밀가루로 분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기 늑대는 실수로 흘렸어요. 삼촌 늑대는 화를 냈는데요. 아기 늑대는 오히려 삼촌 늑대의 화를 풀어 주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예요.” 하면서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삼촌 늑대는 당근 케이크를 먹어봤어요. 삼촌 늑대는 당근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기 염소를 잡아먹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당근 케이크를 먹을 수 있구나.’ 하고 속으로 놀랐어요. 아기 늑대는 당근 케이크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줄을 서서 당근 케이크를 사갔어요. 아기 늑대는 부자 늑대가 되고 행복한 늑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아기 늑대처럼 마음씨가 고우면 행복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만약 아기 늑대였다면 무서워서 덜덜 떨었겠지만요. 아기 늑대는 겁내지 않았어요. 용감한 모습이 의젓하고 멋있



어 보였어요. 남자 아기 늑대가 여자 늑대로 힘들게 분장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또 아기 늑대가 작은 식물이나 곤충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고운 마음씨에 감동 받았어요. 삼촌 늑대와 엄마 늑대는 아기 늑대가 힘들어 하는데 억지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고 고운 마음을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다행이고 잘된 일이에요. 저는요, 이 책을 읽고서 저도 이다음에 어른이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 늑대는 정말 착하게 살아서 행복해졌어요. 저도 아기 늑대처럼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기 늑대처럼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기 늑대처럼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기 늑대야, 당근 케이크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줘. 나도 너처럼 착하게 살게. 약속!”



선물 같은 하룻밤

-하룻밤을 읽고-

성산초등학교 3학년 서 규 연

‘하룻밤’이란 책은 아빠께서 여름방학 선물로 사다주셨던 열 권 정도의 책 중 하나였다. 내가 좋아하는 판타지 이야기책을 먼저 읽고 가장 마지막으로 읽게 된, 나에게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내게 생각할 거리를 준 책이 되었다. 책표지에 하룻밤이란 글자에 걸린 램프에서 노란 불빛이 쏟아지고, 아이와 할아버지가 다정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천천히 읽어 보았다.

이 책은 집안의 아이들이 전통처럼 10살이 되면 할아버지와 낚시를 다녀오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할아버지와 밤낚시는 이제 더 이상 꼬마가 아님을 인정해 주는 중요한 전통이 되고, 아직 10살이 안 된 주인공 손자가 갑자기 떠나게 되는 밤낚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가져오게 된다. 할아버지가 잡은 잉어를 풀어주면서 용궁으로 가게 되는 주인공을 보면서 어딘가에 분명히 시간을 거슬러 존재하는 진짜 용궁과 공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내 상상을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었다. 더군다나 인어공주를 살려준 대가로 세 가지 소원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라면 어떤 소원을 빌까?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상상해 보았다. 마치 내가 책 속 주인공이 된 듯이 열심히 소원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세 가지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하지만 이런 신비롭고 즐거운 이야기보다 나의 마음을 더 끄는 내용이 있었다. 손자가 할아버지와 밤낚시 가는 그 기쁜 날 가족들 모두 슬픈 표정을 하고 있던 장면이다. ‘왜 다들 슬퍼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도 슬퍼졌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손자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낚시를 서둘러 가신 걸 보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은 강물과도 같아서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책 속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여행이 떠오르기도 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지 나와 늘 사진 찍기 바쁘시다.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도 늘 나를 무릎에 앉히거나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열심히 사진을 찍으실 때 사실 좀 귀찮기도 해서 피해 다니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우리 할아버지도 책 속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 속 주인공처럼 늦게 마음을 알고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 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신비한 바다 속 용궁도, 용왕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세 가지 소원도, 주인공이 들고 온 초록색 하트보석도 정말 기억에 남게 재미있었지



만, 책을 읽고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시간과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였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서도, 늘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빨리 시간이 지나서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하룻밤’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는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고민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좋은 추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룻밤’은 내게 이번 여름방학의 선물 같은 책이었다. 주인공이 할아버지와의 하룻밤을 평생 기억할 추억으로 남겼듯이 나도 나에게 남아 있는 수많은 하룻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하게 잘 써야겠다.



감기에 걸린 물고기

-감기 걸린 물고기를 읽고-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학년 김 연 서

빨강, 노랑, 파랑, 까맣, 회색의 색깔을 띤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물려다닌다. 한 마리의 큰 물고기처럼 흠
어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색깔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고민하는 아귀가 있다. 이 아귀는 피를 내어 무
리지어 다니는 색깔 물고기들을 흠어 놓는다. 물고기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이다. 빨간 물고기
는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서 빨간 것이고, 노란 물고기는 노란 콧물이 나서 노란 것이라고 소문을 낸다. 색
깔 물고기들 사이에서 소문은 확산되고, 빨간 물고기와 노란 물고기는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그 무리에
서 쫓겨나서 아귀에게 잡아먹힌다.

소문은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입을 통해 퍼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소문 때문에 따돌리고, 수군거리
고, 무시함으로 상처를 주게 된다. 색깔 물고기들이 아귀의 먹잇감이 된 후 까만 물고기가 이상히 여겨 물고기가
감기에 걸릴 수 있을까? 의문을 품지만 이미 늦어 버린다. 그러나 아귀의 재채기로 인해 잡아먹힌 물고기들은 빠
져 나오게 되고 물고기들은 다시 무리를 지어 아귀와 맞서서 싸우게 된다. 아귀는 도망을 가게 된다.

감기에 걸린 물고기를 읽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마지막 장면은 다 살아서 서로 힘을 합쳐 이기게 되지
만 그 과정이 안타깝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깨닫게 된다. 왜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친구들과의 관계
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소문은 소문이고 사실을 먼저 확인한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친구와 다르면 안 되고, 옳지 못한 것과 싸우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나보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너무 나서지도 말고, 튀지도 말고, 그냥 내 할 일만 조용
히 하라고 하신다. 나는 그게 참 싫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어도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하라고 하신다. 선생
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 어른들은 왜 그럴까? 우리 엄마만 그러시는 걸까? 나는 평범하기 보다는
용기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나쁜 소문을 내는 친구가 있으면 자신 있게 못하게 하고, 좋은 소문을 내는 친구에게
는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친구들의 장점을 소문내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는 내가 되고 싶다.



기적을 통한 행복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거제고현초등학교 6학년 윤 혜 리

《분홍 문의 기적》이라는 책을 처음 봤을 때 분홍색 표지가 눈에 띄어 밝고 상큼 발랄한 내용의 책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반대로 책은 슬픈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 책의 주인공 박향기의 엄마는 휴일 아침에 두부를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향기네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어 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감씨로 인한 기적이 찾아오게 된다. 아빠 박진정씨와 향기에게 엄지공주만 한 엄마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들에게는 3일간의 행복이 주어진다. 이 기적은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 아빠는 자신의 꿈을 실천하게 되고, 향기는 문제아에서 벗어나 바른 학생이 되어 간다.

책을 읽는 동안 이 글을 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처음 읽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지막 장면을 다 읽고 나니 바로 느껴졌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소중함이었다.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감씨로 인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향기가 집 문 앞의 팻말을 고치는 장면이었다. 감씨가 목에 걸리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향기가 문 앞의 팻말을 ‘안 행복한 우리 집’에서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으로 바꾸는 장면을 보면서 향기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느껴졌다. 향기를 보면서 엄마의 자리가 정말 크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나는 이때까지 엄마라는 존재가 늘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앞으로는 엄마가 건강하게 내 곁에 계신다는 걸 감사하게 느끼고 나를 위해 해주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아내를 잃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아빠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 향기도 물론 엄마를 잃은 슬픔이 컸겠지만 아빠도 혼자서 아들과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아빠에게 주어진 72시간 동안의 엄마의 모습은 그들의 삶에 행복을 찾아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만약 엄마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가족의 불행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가족이란 필연이 아닌 운명적 만남으로 만들어진 삶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든다. 향기의 가족도 엄마를 잃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다시 엄마를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족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행복하진 않은 것 같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 채 갈등을 겪는 가족도 있고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는 가족들도 있다.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향기네 가족처럼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책은 나에게 부모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행복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가래이스키의 노래

-503호 열차를 읽고-

덕계초등학교 6학년 박 가 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설지 않은 슬픈 노랫가락을 실은 503호 열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평소 나는 역사를 주제로 한 이야기나 영화를 보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곤 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다 읽은 뒤 내가 평소에 역사적 관심이 많았더라면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503호 열차>”라는 억울한 역사를 빨리 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게 된다.

503호 열차는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였다. 주인공 사샤는 아빠와 헤어져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의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열차에 탑승하는데,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 중 이런 말이 있었다. “불안한 얼굴로 좁은 객차 안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디론가 실려가는 소나 돼지 같아요.” 자신들의 삶을 한순간에 잃고, 서로에게 의지한 채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하지만 열차 안에서는 결혼, 생명이라는 꽃 같은 희망도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행복을 축하해준다. ‘아파도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씬 없이 달리던 열차는 그들을 내려주었다. 그 503호 열차의 종착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사실 난 이 이야기를 읽고 약간 부끄럽기도 했다. 왜냐하면 사샤는 ‘강제이주’라는 아주 힘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부딪쳐보기는커녕 포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샤의 503호 열차에 대해 궁금해진 나는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고려인 강제이주’란 1937년 소련의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2,000명이 당시 러시아 지도자 스탈린의 명령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된 사건이다. 그럼 왜 고려인은 강제이주 된 걸까?

첫째, 극동지역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첩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논리이다. 둘째, 극동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을 규모가 커져 영토적 자치요구를 차단하려는 목적.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구를 공급하기 위해..

그럼 강제이주의 행로는 어땠을까? 소요시간은 대략 30일 ~ 40일이 소요, 열차환경은 객차 50량, 위생 객차 1량, 식당차 1량 등으로 구성되었고 대체적으로 화물열차가 이용되었던 것처럼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



더론가 끌려가는 소나 돼지 같아요.’ 라는 사샤의 표현이 이동 과정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렇게 달려온 새로운 이주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실제로 고려인들은 처음에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땅을 파서 토굴을 이용한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했을 노력들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고려인 강제이주’는 벌써 80년이나 지났다고 한다. 8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나라 잃은 백성이 어떤 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까레이스키(강제이주 한인 후손)들이 보여 준 고려인의 지혜와 강인한 의지는 널리 알려져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오히려 내가 더 위로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다. 비록 방학숙제를 위한 독서로 시작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해 본다.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삼계초등학교 4학년 차도빈

일주일 용돈이 600원! 너무 적다고 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제빈이랑 엄마에게 말해봤지만 소용없다. 고아원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얼마를 받는지 아느냐? 고아원에 가볼래? 하면서 절대로 용돈을 올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잘 사주신다. 또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서점으로 데려다 주신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점에 갔는데 오늘은 만화책을 사지 말고 독후감 쓸 책을 사라고 하셨다. 그래서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샀다.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바로 읽기 시작했다.

돈이 가치를 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마트 갈 때마다 레고를 사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는 원하는 것을 다 살 수는 없다며 '뭘 플라스틱 조각이 이렇게 비싸?'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레고가 좋아서 비싸다고 생각 못했는데 엄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깐 비싸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엄마랑 다투는 것 같다.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믿고 있어서 예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신용카드도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환율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나라마다 사용하는 돈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책의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 금을 갖고 있는데 금으로 직접 주지 않고 금을 가지고 있다는 종이를 써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요즘 은행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도 통장에 계속 저금을 하고 있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돈의 가치를 믿는 숫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 물가라는 말이 나왔다. 요즘 이 말을 많이 듣는다. 계란을 살 때도 오징어를 살 때도. 오늘은 할머니가 미나리와 상추를 사오시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셨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 반대로 물건이 많고 돈이 적으면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오징어와 상추가 많아져서 물가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먹게. 새로운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읽어봤다. 쿠폰, 상품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가만히 읽어보니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를 도와주고 도장 10개를 다 찍으면 요술봉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엄마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났다. 바로 이거구나! 돈 대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도서상품권으로 책을 사본적도 있다. 나는 상품권도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맞았나 보다. 요즘은 장난감을 사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고 있다. 돈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못 얻는다니 억울하다.



돈이 없었을 때는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해서 힘들었다고 한다. 돈 덕분에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구하러 다니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NC다이노스 박민우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돈을 너무 믿어서 환경이 오염된 점도 있다는 것이다. 나무를 베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산에 나무를 베어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돈돈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돈은 너무 어렵다. 엄마는 우리가 경제관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지금처럼 정해진 대로 용돈 받고 저금하는 날은 저금하고 장난감 살 수 있는 날은 장난감 사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크면 경제 이야기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테니까.



있히면 더 아프다

-503호 열차를 읽고-

반송초등학교 6학년 정 승 모

올 여름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아래에 있었을 때,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다룬 이야기이다. 구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열차를 상징하는 ‘503호 열차’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잔혹한 아픔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지금의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던 1937년, 연해 지역에 살고 있던 약 17만 명의 모든 한민족을 중앙 아시아의 척박한 땅으로 강제 이주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나였지만 이러한 고려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올해가 3분의 2나 지나가 버린 지금, 2017년이 소련의 고려인 강제이주정책 80주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193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점령 하에 있던 때였다. 이때 가난한 농민들은 일본의 핍박을 피해 국경을 건너 지금의 연해주 지역에 모여 살게 된다. 1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소련은 한민족을 일본의 첩자라는 구실로 수많은 사람을 총살하고 급기야 모든 한민족을 짐승이나 죄수를 이송하는 수단인 열악한 열차에 태워, 강제로 이송시키는 정책을 실행한다. 이 열차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하냐면 열차가 달리면서 철로가 보이는 정도이다. 그러한 503호 열차에서 한국인들은 이 강제 수송 열차를 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 약 한 달간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버텼다.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이 죽어 나가고 열차 밖으로 버려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슬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사의 할머니, 어린 안톤과 같이 죽어나간 사람이 2만 5천명이라고 한다. 책을 다 읽은 후 나도 모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왜 이렇게 아픈 역사가 많을까?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국적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교과서에 이 이야기가 꼭 실렸으면 좋겠다. 나는 사회시간에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기에 대해 배웠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듣거나 배운 적이 없다. 우리가 우리민족의 아픔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책의 맨 뒤 해설 부분에 한 구절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고려인들이 앉은 자리에서는 바위에서도 싹이 난다’ 이렇게 강제이주 당한 우리 민족은 수많은 죽음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 척박한 땅에서 성공적으로 벼농사를 하고 살아간다. 우리 민족은 강하고 성실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더욱 강한 국가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 아픈 역사 속의 이 사람들을 잊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 국적 없이 고통 받는 한민족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와서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기 늑대의 진짜 행복

-행복한 늑대를 읽고-

진영중앙초등학교 1학년 김 다 은

외삼촌 늑대 페로스가 여동생에게 안부전화를 했는데 여동생이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해서 늑대답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는 고민을 털어 놓았어요. 그러자 페로스는 자신이 난폭한 늑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큰소리치며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기 늑대가 페로스 집으로 왔는데 듣던 대로 너무 순진했어요. 그래서 페로스는 아기 늑대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는 법, 여러 동물을 사냥하는 훈련, 변장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러나 아기 늑대의 착한 마음 때문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끝내 아기 늑대는 난폭한 늑대가 될 수 없었어요. 실망한 페로스에게 아기 늑대는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삼촌은 너무나 맛있어서 감탄했어요. 결국, 요리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기 늑대는 무시무시한 늑대가 되는 대신 무시무시하게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차리게 되었지요. 여러 동물들이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먹기 위해 줄 서는 것을 보고 아기 늑대는 행복했어요.

나는 <행복한 늑대>를 읽으며 처음에는 아기 늑대가 착한 마음을 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기 늑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아기 늑대는 나중에 이웃을 도와주는 어른 늑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른 늑대들은 무시무시한 늑대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 느끼지만, 아기 늑대는 여러 동물들에게 자신이 요리해 만든 것을 주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뭘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아빠나무(나의 든든한 버팀목)

-아빠나무를 읽고-

법수초등학교 1학년 조 아 인

“아빠.” 아빠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따뜻하고 포근해지며,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아빠가 내 곁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보고 싶을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슬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빠, 엄마, 오빠, 나, 우리 가족 다 울었어요. 아이(주인공)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아이는 아빠 생각이 나면 아빠나무를 찾아 가요. 아이가 나무처럼 튼튼하게 쭉쭉 자라기를 바라며 정성껏 아빠가 심은 나무예요.

아이에게 아빠와의 추억이 듬뿍 담긴 아빠나무가 있어 참 다행이에요. 아빠나무를 가만히 안고 있으면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올라서 가슴이 따뜻해져요.

물고기 잡던 날 눈부시게 반짝이던 강물, 산길을 오르며 숲을 가로지르던 바람소리, 아빠와 함께 바라본 밤하늘, 넓고 따뜻했던 아빠의 등에서 잠들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다가 아빠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나를 두고 먼저 갔나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빠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네 볼을 스치는 것처럼, 흙냄새가 코를 간질이는 것처럼, 새 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것처럼 아빠도 그렇게 늘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던 부분입니다.

아빠나무에서 주인공이 아빠와의 행복한 추억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씩씩하고 용기 있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빠,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아빠가 금연에 성공하여 우리 가족 모두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정말 사랑해요.



20년 후 지구에게... 꼭! 꼭! 약속해

-비닐봉지 하나가를 읽고-

대운초등학교 2학년 서연수

무더운 여름 어느 날 뉴스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제주 바다에 귀여운 돌고래가 놀고 있어요. 앗! 저건 뭐지? 돌고래 지느러미에 무언가를 걸고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건 바로 폐비닐을 장난감으로 착각한 돌고래의 귀엽고 아찔한 모습이였다. 원래 돌고래는 미역이나 모자반 같은 해조류를 지느러미에 걸고 노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 비닐봉지를 해조류로 착각한 것 같다. 이것을 삼키고 죽어가는 돌고래도 종종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꾸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과 오염 때문에 동물들과 작은 어패류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한다면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어패류를 통해서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리 주위에서 물건을 사고 담을 때 아주 흔히 사용되고 편한 물건이지만 버려지는 비닐봉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양이 버려지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처음 “비닐봉지 하나가” 라는 책 주인공 아이사투를 만났을 땐 책표지에 아프리카 소년 손에 비닐봉지 하나가 들린 모습을 보며 비닐봉지에 무얼 담으려는 거지? 라는 궁금한 정도에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4번째 책을 읽고 아이사투를 만나서 나의 생각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지구가 건강해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준 고마운 책이다. 아프리카 감비아나우는 점점 쌓여만 가는 비닐봉지와 쓰레기들 때문에 오염과 함께 가축들이 비닐봉지를 먹고 내장이 꼬여 죽어가는 슬픈 마을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긍정적인 아이사투와 친구들이 쓰다버린 비닐봉지를 잘라 실로 재활용하여 코바늘로 마치 겨울에 우리 엄마가 나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줄 목도리를 짜듯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지갑을 만들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시작이 아프리카를 변화하게 했다.

버려진 비닐봉지로 아이사투는 어떻게 멋진 지갑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아이사투의 노력이 세상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지갑은 많지만, 어떤 값비싼 지갑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비웃었지만 난 ‘너희의 용기는 최고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작은 노력의 시작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낸 지갑은 지구를 살리고 또 어찌면 우리 가족을 살린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사투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아이사투처럼 나도 오염된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부터 당장 실천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작은 비닐도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마에게 꼭 부탁드려야겠다. 원래 나의 꿈은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한 가지 더 큰 꿈이 생겼다.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른으로 열른 자라서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이 내가 지구환경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도 아이사투와 같은 구원투수가 되어 너를 지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노력은 참 이상해. 지금은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 20년 후 지구야 지금부터 나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너를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줄게. 기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는 내가 지킨다

-비닐봉지 하나가를 읽고-

전안초등학교 2학년 김민재

내 별명은 지구 수비대다. 왜냐하면 나는 유치원 때부터 누나와 함께 아침마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 때문이다. 지구는 나의 친구라서 내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다. 놀이터에는 쓰레기들이 진짜 많다. 내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기분 좋게 쓰레기를 다 줍고 나면 지구가 나한테 “고마워 민재야.” 라고 말하고 태양계를 더 즐겁게 도는 것 같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매일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쓰레기 줍기 대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물론 텔레비전을 조금 봐야 하는데 가끔씩 많이 볼 때도 있다. 그래도 나는 지구 수비대라서 물도 아껴 쓰고 안 쓰는 전기코드는 내가 다 뽑는다. 이번 방학 때 읽은 책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책은 바로 ‘비닐봉지 하나가’였다. 책에서 사람들이 비닐봉지가 옆에 많다고 계속 쓰고 버리고, 계속 쓰고 버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지구처럼 아팠다. 왜냐하면 비닐봉지는 잘 썩지 않아서 지구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매일 장을 보러 갈 때 계속 쓸 수 있는 장바구니를 쓴다. 감비아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장바구니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

아침, 책에서 염소가 비닐봉지를 먹고 죽었을 때 너무 슬펐다. 그리고 아이사투 아주머니랑 동네 사람들이 모두 미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막 쓰고 아무 곳이나 버려서 염소가 죽은 거니까 말이다. 염소가 죽은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아주머니가 비닐봉지를 주워서 다른 사람과 비닐봉지 지갑을 만들어서 다행이다. 아이사투 아주머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을까? 어떻게 비닐봉지를 모아서 지갑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정말 기발하고 좋은 생각이다. 나는 비닐로 지갑을 못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한테도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내가 크면 감비아에 놀러 가고 싶다. 그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아주머니들께 드릴 것이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도 꼭 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비닐도 덜 사용할 것 같다. 아이사투 아주머니, 지구를 사랑해 주셔서 제레제프(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사투 아주머니처럼 지구는 내가 지킬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책

-행복한 늑대를 읽고-

서진초등학교 3학년 우진형

나는 ‘행복한 늑대’ 라는 책을 읽었다. 사람들은 늑대를 무서운 동물,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대부분의 동화책 속 늑대도 그랬다. 하지만, ‘행복한 늑대’에 나오는 아기 늑대는 다르다. 토끼와 함께 당근을 나누어 먹고, 동화책에서는 잡아먹으려 했던 빨간 모자, 할머니와 차랑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늑대. 더 신기한건 아기 염소 7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발에 밀가루를 바르는 나쁜 늑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행복한 늑대’에 나오는 늑대는 목소리를 곱게 만들려고 달걀을 먹다, 실수로 밀가루에 떨어트리고 그걸 반죽해서 당근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아기 늑대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차렸다. 그리고 숲속 동물들은 당근 케이크를 먹으려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늑대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기 늑대의 ‘당근 케이크’를 맛보려고 찾아온다. 또 아기 늑대 역시 으르렁 거리며 험상궂은 얼굴로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케이크를 팔 때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에는 아기 늑대의 엄마가 다른 늑대와는 전혀 다른 아기 늑대를 걱정하며 울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아기 늑대가 만든 크림도넛을 함께 먹으며 얼굴에 달콤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이 왜 ‘행복한 늑대’ 인지 알았다. 결국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으니까!

나도 아기 늑대의 요리를 맛보고 싶어졌다. 무엇보다 아기 늑대처럼 남과 다르다고 울상 짓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나 역시 행복한 진형이가 되어야겠다. 이 책은 나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거짓말

-거짓말을 읽고-

안골포초등학교 3학년 강 보 송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어떤 거짓말을 했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나중에 거짓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빨간 점들이 가득한 곳에 한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있는 표지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다.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주인공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다. 정확하게 어떤 거짓말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해졌다. 식사를 마친 주인공은 거짓말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생겨난 빨간 점! 책표지에 있던 빨간 점은 거짓말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주인공이 거실에 있을 때도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 거짓말은 주인공의 주변을 따라 다녔고,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걸 불안해했다.

“저리, 꺼져!”

하지만 거짓말은 늘 주인공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짓말을 하면 아무도 내말을 믿지 않을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이젠 거짓말한 것을 털어놓으려니 또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있는 주인공에게 부모님이 물어보셨고, 주인공은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밝게 웃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작년에 내가 했던 거짓말이 생각났다. 2학년 어느 날 마지막 시간에 물통을 꺼내서 물을 마셨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가방에 물이 쏟아졌다. 내가 잘못해서 쏟았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다.

“선생님, 누가 제 가방에 물을 부었어요.”

학교 후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를 하셨고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나중에 알았는데 엄마는 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줄 아셨단다. 계속 되는 엄마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뛰고 목소리는 작아지던지 알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서 주말동안 CCTV를 돌려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어쩌지? 내가 한 거짓말에 다들 큰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난 정말 나쁜 아이인가 봐.’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엄마께 조용히 말씀드렸다. 엄마는 내 행동이 이상해서 거짓말하고 있는걸 아셨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후에 주말 동안 CCTV를 보신 선생님이 엄마 폰으로 문자를 보내셨다. 주말 동안 확인해본 결과 가방에 물을 부은 게 꼭 친구들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 내용! 이젠 선생님도 거짓말을 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안다. 거짓말을 하는 건 무척 쉽다. 그래서 이 책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없는 것 같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빨간 점들이 책표지에 있던 것처럼 거짓말은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나쁘게 말하게 된다는 것도 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했던 거짓말 때문에 느꼈던 기분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책 마지막 페이지에 거짓말을 터트리고 방긋이 웃던 주인공의 얼굴이 자꾸만 생각난다. 나도 그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나무를 읽고-

미조초등학교 2학년 문진수

아빠나무라는 책을 읽었다.

아빠나무에서 나오는 여자아이도 나와 같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슬펐다. 나도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때에는 내가 아기여서 잘 몰랐다. 그런데 엄마가 울어서 나도 울었다. 엄마가 다리가 아프셔서 아빠가 계속 도와주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든다.

할아버지도 아빠와 비슷하게 되었다. 내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아빠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가 슬픔의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내렸다. 나는 아직 아빠를 원망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빠나무에서 나오는 여자아이는 자기 탓이라며 자기를 원망했다. 그 아이도 나와 같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느껴서 많이 슬퍼했을 것 같다. 여자아이도 아빠가 바람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그리워했다.

나도 아빠를 볼 수 없지만 여자 아이처럼 내 마음속에 아빠를 간직해야겠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겠지... ..



이 세상에 한 마리뿐인 대단한 늑대에게

-커럼포의 왕 로보를 읽고-

대성초등학교 3학년 김 서 울

로보야, 안녕

엄마가 빌려다 준 도서관 책을 이리저리 보다가 신기한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됐어.

색연필로 쓱쓱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저절로 너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미국의 서부가 어디인지도 유럽인 정착민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고 인디언과 유럽인에 관해 이야기를 한 후에야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너의 고향인 미국 서부에서 유럽의 이주민들이 늑대들을 사냥하고 마구 잡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호랑이를 마구 잡아 사냥하는 바람에 호랑이들이 모두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 아무리 짐승이 사나워도 너무 심하다 싶었어. 만약 자신들이 늑대라면 어떨지 생각이라도 해봐야지! 라는 말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 그러다가 너희 늑대 부족이 그 이주민들을 혼내주자 통쾌하다 싶었어.

로보야! 너는 참 똑똑하구나! 1,000달러의 현상금을 노리는 늑대 사냥꾼 테너리와 랭로시 켈론의 사냥개들과 그들이 너를 잡기 위해 놓아둔 독약들을 아주 신중하게 항상 헤쳐 나갔잖아. 내가 너였다면 발견한 뗏목을 보고 호들갑을 떨다가 뒤에 있는 뗏목에 바로 걸렸을 것 같아. 넌 참 신중한 것 같아. 나는 너희 부족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잡히지 않은 게 신기하고, 혹시나 잡힐까 조마조마했어. 그러던 중 또 다른 늑대 사냥꾼보다 더 침착하고 관찰력이 좋았어. 아마 화가였기 때문일까? 너의 짝지 블랑카를 잡았을 때는 정말 나도 같이 평평 울고 싶었어. 로보야! 너는 짝지를 잃어서 슬펐지? 나도 혼자서 놀 땐 쓸쓸하고 재미가 없어. 그런데도 묵묵히 견뎌내는 너를 보니깐 안심이 되었어. 하지만 그 후 모든 게 바뀌었지. 결국 너는 뗏목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턴에게 사로잡혔지. 너는 살아 있었지만 짝지와 너의 친구들과 자유를 잃었으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다 해도 살아 있지 않은 기분일 것 같아.

결국 너는 죽었지만 너의 죽음은 시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 사냥꾼이었던 시턴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야생동물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 너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켰고 많은 야생동물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야생동물과 이 푸른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걱정 그만하고 너의 짝인 블랑카와 자유롭게 풀밭을 뛰어 다니며 행복하게 잘 지내! 그럼 안녕!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서울이가



행복한 늑대를 읽고

-행복한 늑대를 읽고-

생초초등학교 3학년 권지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행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나는 이 책의 아기 늑대를 보고 바로 이 말이 떠올랐다. 페로스 늑대 가문은 예부터 악명 높은 늑대 가문이었다.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가 빨강 망토 소녀의 할머니를 잡아먹기도 하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박살 낸 바로 그 역사 속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그 가문에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됐고 늑대의 세상이 바뀌었다. 바로 위에서 말한 아기 늑대이다. 그 늑대는 방청소도 혼자서 잘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지나가는 할머니도 부축해주는 아주 착한 늑대이다. 그러한 늑대 모습을 보고 늑대의 엄마는 매우 큰 걱정을 했다. 우리 가문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늑대를 자신의 오빠이자 아기 늑대의 삼촌에게 보내 무서운 늑대로 만드는 훈련을 받게 한다. 그리고 그 훈련 받는 과정에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삼촌이 아기 늑대가 동물 잡아먹고 오랫동안 동물과 놀고 오고 변장해서 사람을 잡아먹고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과 오순도순 놀고 와서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고 매번 아기 늑대를 혼냈다. 하지만 아기 늑대는 계속 웃었고 꾸준히 다른 동물과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해 했다. 악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고 또 웃고 웃어서 착하고 행복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그림을 볼 때마다 아기 늑대는 행복해 보이게 웃고 있다. 바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말 그대로 ‘행복한 늑대’ 인 것이다.

아기 늑대를 통해 행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달렸다는 것을 한 번 더 배운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기 늑대는 삼촌에게 매우 혼나면서도 꾹꾹하게 자신의 길을 갔고 그 과정은 악명 높은 늑대 가문의 아기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도 앞으로 상황 탓을 하지 말고 행복을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아빠나무를 읽고

-아빠나무를 읽고-

창동초등학교 2학년 정채운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친구의 아빠나무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빠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를 보면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나무가 쓰러져 버리면 아빠 생각이 나도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는 정말 아빠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아이에게 늘 함께 있다고 아빠 목소리가 들리게 해 주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아버지께 꼭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고 물으시기에 아버지께도 이 책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께서 계속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저도 이 책의 친구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 드렸더니, 열심히 노력해서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어 주신다고 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우스 같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그러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우리 아빠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이 친구는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요? 저랑 사는 곳이 가까우면 친구에게 꼭 아이스크림이랑 사탕을 사주고 싶었어요. 슬플 때는 달달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전에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야 많이 힘들면 거창 창동초등학교 2학년 1반으로 나를 만나러 와. 내 이름은 정채운이야. 혹시나 찾기 어려우면 우리 집에 전화를 해. 그러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너를 데려와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너를 잘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아빠나무를 찾아가는 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꼭 긴 옷을 입고 돗자리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언제나 씩씩하게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질 테니까 이불도 잘 덮고 아침에는 긴팔 옷도 입고 다녀. 그래야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네가 아프면 하늘에 계신 아빠도 많이 슬퍼하실 테니까... ..

친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멀리 있지만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아빠나무를 읽고

-아빠나무를 읽고-

수양초등학교 1학년 정지윤

아빠나무는 꼭 한 번 읽고 싶은 책이었다.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TV프로그램을 가끔 본다. 외국인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가족들이 아빠를 찾아 한국에 와서 만나는데 매우 기뻐하지만 다시 헤어져야 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 태국에서 온 아빠가 비싼 장난감 대신 동화책을 골라 직접 그림을 그려 색칠하고 태국말로 바꾸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빠표 동화책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고 참 멋진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동화책이 아빠나무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빠나무 책! 아빠가 없을 때에도 아빠를 느낄 수 있는 아빠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아빠 책이다. 나는 아빠가 참 좋다. 엄마는 잔소리를 하시지만 아빠는 잘 놀아주시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신다. 내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혼내시지만 무섭지 않다.

몇 달 전 아빠께서 베트남으로 잠시 일하러 가실 수 있다고 하셔서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 했는데 다행이 안 가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내 곁에 안 계신다면 정말 슬플 것 같다.

우리 아빠의 엄마는 아빠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내 동생이 네 살인데... .. 아빠는 크면서 엄마가 얼마나 그리고 보고 싶으셨을까! 나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프고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내가 커서 아빠가 되면 우리 아빠처럼 태권도, 게임도 함께 하고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멋진 아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커다랗고 든든한 아빠나무가 되어줄 것이다.



아빠나무를 읽고

-아빠나무를 읽고-

제산초등학교 1학년 하재현

나는 여름방학 학교도서관에서 우연하게 아빠나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나무 이야기인가?’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한 소녀가 사랑하는 아빠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예전에 아빠랑 같이 심었던 나무를 찾아가 슬퍼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동화책에 등장하는 소녀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다. 만약 내가 이 소녀처럼 세상의 전부인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신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리 아빠는 항상 나와 동생에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아빠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즐거운 추억이 많이 없다고 하셨다. 항상 시장에서 양말 장사를 하셨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아빠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등을 사 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시고 많이 아파하시다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했다. 아빠는 할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들 몰래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신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우리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아빠와의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행복한 기억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재밌는 이야기와 노래도 많이 불러 주신다. 나는 그런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렇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께서 할아버지 생각으로 슬픔에 잠긴 모습을 또 보게 된다면, 아빠나무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네 불을 스치는 것처럼 흠냄새가 코를 간질이는 것처럼 새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것처럼 아빠도 그렇게 늘 너와 함께 있어.”

할아버지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화책에 나오는 소녀에게도 아빠랑 심었던 나무 예쁜 추억들을 생각하며 힘내라고 위로하고 싶다.



행복함을 꿈꾸는 지민이 늑대

-행복한 늑대를 읽고-

거제상동초등학교 3학년 이 지 민

내가 이제껏 동화책 속에서 만나온 늑대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망가뜨리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 늑대처럼 모두 아주 사악하고, 나쁜 늑대였다. 그런데 이 책은 제목이, 다른 늑대와는 다르게 ‘행복한’ 늑대이고, 표지의 늑대는 부러울 만큼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이 늑대는 어떻게 행복한 늑대가 됐지?

이 책은 악랄하고 잔인한 삼촌 늑대 페로스가 너무 착한 아기 늑대에게 사악하고, 무서운 늑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페로스가 아기 늑대를 데리고 빨간 망토, 토끼들,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아기 돼지 삼형제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악랄해지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결국 아기 늑대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아기 늑대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늑대의 길을 가게 된다.

나는 이 책의 아기 늑대를 보며 나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늑대도 바뀌어야 하는 점이 있듯이 지금의 나도 바뀌어야 하는 점이 있어서이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화만 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자주 말한다. 나도 부모님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씩은 “바뀌!”라는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운 말을 쏟아낸다. 그건 아마 내 안에 심술궂은 늑대 한 마리가 들어있어서일 것이다. 만약 내가 아기 늑대라면 삼촌과 엄마가 계속 바뀌라고만 하면 속상하고, 엄마가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 같다. 아마도 나라면 그랬을 것 같다. 어른들 때문에 화가 날만도 한데 아기 늑대는 상대방의 기분을 흐리지 않았다. 아기 늑대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존중하면서 자신도 속상하지 않게 말을 한다. 화가 나면 미운 말을 하는 나와는 다르게 말을 알아서 조절한다. 나는 이런 아기 늑대가 너무 부럽고 나와 바뀌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아기 늑대가 페로스 과자점을 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아기 늑대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고, 엄마도 삼촌도 모든 동물들도 다 행복해 보여서이다. 이렇게 모두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면 안 될 거 같다. 나도 아기 늑대처럼 화가 나더라도 미운 말 대신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아기 늑대처럼 ‘행복한 지민이 늑대’가 되겠지?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친구들도 더 많아지겠지... ..

“페로스, 아기 늑대야! 나에게 행복함을 꿈꾸게 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도 너희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 할게!”



산딸기 크림붕붕

-산딸기 크림붕붕을 읽고-

신안초등학교 1학년 정은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영국의 라임이라는 마을로 거슬러 가요. 수백 년이 흘러도 한결같은 맛 산딸기 크림붕붕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엄마와 딸이 직접 딸 산딸기와 직접 젖소에서 짠 우유를 15분쯤 저으면 크림이 폭신하게 올라와서 맛있는 산딸기 크림붕붕을 완성할 수 있어요. 200년 전 미국 찰스턴이란 도시 번두리로 거슬러 가요. 이 마을의 엄마와 딸은 농장에서 산딸기를 따고 크림은 젖소농장에서 배달을 해주어요. 동네 대장간에서 만든 거품기로 크림을 휘저어서 10분쯤이면 크림을 만들어서 산딸기 크림붕붕을 완성할 수 있어요.

100년 전 미국 보스턴이란 도시로 거슬러 가요. 이 도시에서는 산딸기 두통을 시장에서 사고 현관 앞까지 배달 온 우유크림을 손잡이가 달린 거품기로 5분 정도 저어서 크림이 폭신하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산딸기 크림붕붕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몇 년 전이에요. 미국 샌디에이고라는 도시예요. 아빠와 아들이 슈퍼마켓에서 산딸기와 유기농 크림을 구입해요. 아빠는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고 아들은 전기 거품기로 크림을 휘저어서 2분쯤이면 크림을 폭신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산딸기 크림붕붕을 만드는 방법은 더 편해지고 더 빨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디저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으면 더 맛있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방법인 직접 산딸기를 따고 젖소에서 우유도 짜내어서 번거롭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산딸기 크림붕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고 싶어요.



비닐봉지의 변신

-비닐봉지 하나가를 읽고-

안민초등학교 2학년 조연우

이 책은 이모가 감동적이라고 추천을 해서 읽게 되었어요. 이모는 평소에 재미있는 책을 잘 추천해 줘서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 책은 비닐봉지 재활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도시에서 비닐봉지가 날아와서 아이사투가 사는 감비아를 오염시켰어요. 비닐봉지를 잘못 먹은 염소도 죽었대요. 나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경주 버드파크에 갔을 때 비닐봉지를 먹고 아기 펭귄이 죽었다는 표지판을 본 기억이 났어요. 그때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우리가 편리해서 막 쓰는 비닐봉지가 동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학교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된 동물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아이사투는 환경오염도 막고 염소를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비닐봉지를 모아서 재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이사투가 생각한 방법은 비닐봉지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씻고 잘라서 언니에게 배운 뜨개질로 지갑과 가방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돈도 벌다니 아이사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나라면 비닐봉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인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재활용품으로 뽕뽕 유령이라는 인형을 만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인형의 머릿속에 비닐봉지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 인형이 좋아서 한동안 안고 잤어요. 내가 만약 아이사투와 같은 마을에 산다면 내가 만든 인형을 아이사투가 만든 가방에 넣어서 팔아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저도 다음에 아이사투처럼 재활용품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키자니아 입장권을 많이 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 비닐봉지는 무섭기도 하고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비닐봉지 하나라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겠어요.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을 읽고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을 읽고-

의령초등학교 5학년 김 정 민

표지를 보고 아이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칠판에 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질 나쁜 행동을 해서 칠판에 손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지에 대한 의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책을 읽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아이들은 박기웅, 박동수, 박민수 모두 박씨 성을 가지고 있는 친한 친구들 즉 베스트 프렌드인데 사람들은 세 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등 하교도 따로 하고 옆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기류가 흐르던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세 박자가 청소당번인 날에 아침청소를 하다 급한 마음에 손으로 칠판을 닦다가 칠판에 손이 붙어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손이 붙어서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는 세 박자가 마냥 부럽기만 했던 반면에 선생님과 어른들은 모두 서로를 탓하며 의미가 없으며 실속 역시 존재하지 않는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탓이야’ 회의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시각에 친구들은 칠판에 붙은 세 박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서 미끄러운 것들을 모두 동원하는데, 참기름과 주방세제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섞으며 분주하게 노력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를 정도로 시간이 획 달려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세 박자의 손이 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상황이 신이 났습니다. 한바탕 정신없는 가운데 깜깜한 밤이 되어서도 세 박자의 손은 끝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손이 딱 붙어 있을 때에도 서로를 보지 않은 채로 시선을 회피했었는데 서서히 시선을 맞추고 서로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이 떨어졌습니다.

책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친구들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생생하고 길게 남아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마냥 친구들의 모습이 귀엽고 내 포래의 친구들 이야기를 본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는데 책에는 지식이나 교훈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세상도 무서워지고 예전처럼 남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배풀어가며 살뜰히 챙기는, 정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이 책에서 친구들의 관계가 갑자기 왜 어색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분명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손이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라며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줄어드는 친구 사이에 억지로라도 대



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하고 우정도 키우는 좋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나도 친구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고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친구들과 다 잘 지내고 연락도 자주하고 안부인사도 하며 지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모두를 정이 없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무거운 주제의 교훈을 우리가 보기 쉽게 담백하게 담아내어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친구와 만약 손이 철판에 붙어서 안 떨어지고 그 친구와 캄캄한 밤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박자 친구들은 용기도 있고 또 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겁이 있어서 친구와 남아있다면 너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저런 상황에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깊은 마음속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어 기분도 좋고 글로 남기면서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철판에 딱 붙었을 때 손톱 지우는 걸 발라보면 뗄 수 있지 않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503호 열차를 읽고-

도동초등학교 6학년 이 윤 석

이 책의 표지에는 '503호 열차'라는 제목과 함께 기차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보는데 순간 영화 '설국열차'가 떠올랐다. 하지만 영화와 달리 아름다운 초록색과 파란색의 환상적인 반짝임 표시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 내 예상과 달리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소련의 연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첫 장면부터 기차에 태워져 강제로 이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 이들은 정상적인 기차가 아니라 짐이나 가축을 싣는 기차에 태워져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왜 끌려가는 지도 모른 채 소련 땅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겨우 듣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 지도 모른 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어 짐이나 가축을 싣는 열차에 태워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얼마나 컸을까', '어깨에 총을 멘 군인들의 위협과 추위, 굶주림에 떨었을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등등을 생각하다보니 저절로 마음이 아파왔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건, 이것이 우리 민족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기차에 태워진 사람들은 중간 중간 내려지고 마지막 종착역에서 사샤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끝도 없는 벌판에 버려지듯 내려게 된다. 그 곳은 키 큰 갈대가 하늘을 찌를 듯이 무섭게 뻗어있고 차갑게 휘몰아치는 겨울바람만 무성한 곳이었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씨를 활활 뿌려라. 땅의 젖을 다 먹고 와삭와삭 자라나네. 와삭와삭 자라나네."라고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는 끝난다. 나는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기차에 태워져 이주당하는 모습도 정말 가슴 아팠지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정착해야 할 곳을 보고 절망하는 장면에서도 슬픔을 넘어서 정말 처절해 보였다.

하지만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은 이런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슬프고 가슴 아팠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 민족은 슬픔을 희망으로 극복하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책에 나온 것과 같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진실은 왜곡되거나 영원히 묻힐 것이고 우리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책인 것 같다.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을 읽고-

초전초등학교 5학년 정 채 언

일주일 동안 결석을 하는 바람에 단짝친구 혜진이에게 배신을 당한 시원이, 외톨이가 된 시원은 걱정입니다. 혼자가 된 처지를 보고 반 친구들이 낯설거나 수군거릴 테니까. 그런 친구들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심지어 고소해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니 무척 힘이 듭니다. 혼자가 된 시원은 영어캠프도 마다하고 학교에 남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교실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러자 말 없고 조용한 친구 민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같은 반에서 지냈는데 민지에 대해 떠오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시원은 그런 민지에게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평소에 민지에게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민지에 대해 알고 싶어지다니, 시원도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교실 안에 민지 말고 달리 신경 쓸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원은 민지가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정말 어울리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주인공 시원은 가만히 민지를 지켜봅니다.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니 민지의 속마음이 보이면서 그제야 민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부족함 없이 지내 온 시원은 민지와 처지가 다릅니다. 그런 민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시원에게 털어 놓습니다. 시원은 미처 알지 못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시원도 자신과 다른 아이, 자신보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아이를 대할 때면 어느 평범한 친구들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알아가고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성현이까지 마음으로 보듬게 됩니다. 그런 시원을 지켜보면 반 친구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해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한 민지와 성현이를 돕기 위해 반 친구들이 용기를 냅니다. 이처럼 시원과 친구들의 마음은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안 한 뼘쯤 깊고 넓어지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면? 혼자 화장실에 가고, 쉬는 시간에도 함께 수다를 떨 친구가 한 명도 없이 혼자 지내야하겠지요.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은 왕따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제 또래 친구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끔씩 반에서 외톨이라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친구 간의 오해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잘 표현하지 않아 느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친구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친구의 외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아직은 제 판단과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 부딪치다 보면 제 자신도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조용하게 친구들에게 상처주지 않으면서 한 뼘 한 뼘 더 마음이 커지는 따뜻한 사람



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수많은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을 갖는 일, 어렵고 힘들겠지만 가족이 아닌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외톨이가 되었다고 풀이 죽어 지내던 주인공 시원이가 같은 반 친구 민지, 발달장애를 가진 성현이와 진정한 친구가 되었듯, 이 책 내용의 결말처럼 정말 학교에서 왕따는 사라지고 모두가 관심과 배려, 울고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친구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며 혼자가 되었을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닌 혼자가 되니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친구들의 속마음처럼 저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한 구석의 용기라는 싹이 돌아나서 제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을까요?



엘 데포를 읽고

-엘 데포를 읽고-

사남초등학교 5학년 박 헤 리

나는 우리 학교 독서부에 있다. 독서부 담당 선생님은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다. 담임 선생님께서 ‘엘 데포’라는 책을 읽은 후 그 내용이 좋다고 하시며 나에게 추천해 주셨다. 겉보기엔 책이 두꺼워서 어른들이 읽는 어려운 책인 줄 알았다. 그런데 표지를 넘겨보니 만화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오히려 시간가는 줄 모르며 재밌게 읽게 되었다.

‘시시벨’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뇌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려 귀가 잘 안 들리게 된다. 그래서 ‘시시벨’은 보청기를 끼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싫어한 ‘시시벨’의 하루하루는 매일 보청기 연구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었다. 어릴 적 단짝친구였던 ‘에마’로부터 자신의 발음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더 실망을 하게 된다. 친구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의 시시벨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나의 단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착한 선생님을 알게 된다. 갑자기 ‘시시벨’은 전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런데 ‘시시벨’은 보청기를 꺼도 수업시간 선생님의 말씀이나 다른 소리까지도 잘 들리지 않아 연구소로부터 보청기 마이크를 받게 된다. 보청기 마이크는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보청기로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기구 같은 것이다. ‘시시벨’은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자신의 보청기를 선생님께 드리고 그 이후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의 작은 발걸음도 ‘시시벨’은 크게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시시벨’의 듣기 능력에 친구들은 그가 초능력과 슈퍼파워와 같은 능력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만약 내가 ‘시시벨’의 친구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보청기 마이크 덕분에 ‘시시벨’은 친구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게 되면서 또 다른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엘 데포’라는 책을 읽고, 고성에서 사천으로 전학 온 지난 날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시시벨’도 나처럼 전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마치 내가 고성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사천으로 전학을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성초등학교 4학년 때 몸이 불편한 친구가 주변 친구로부터 따돌림과 놀림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당시 그런 친구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글의 ‘시시벨’은 다른 친구들에게 처음엔 차별을 당해 기분이 상하지만 나중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책을 읽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몸이 불편한 친구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주변에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차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을 읽고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을 읽고-

진남초등학교 4학년 김 현 정

4학년이 되니 많은 친구들이 영어 수학을 배우러 학원에 다닌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나는 3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미술학원에만 다니고 있다. 주로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끼리 학교에서나 방과 후에 무리를 지어 다니다 보니 가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렇다고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가고 싶은 건 절대 아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고 혼자 도서관에 가는 것보다 학원 숙제에 시달리는 게 더 끔찍할 것 같아서다. 함께 수다 떨 친구는 줄었지만 그 대신 책 읽을 시간은 많아졌다.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마치 요즘의 나에게 충고하는 듯한 책 제목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혼자 지내고 있는 내 비밀을 들킨 기분. 혹시 나 사춘인가? 수영장에 갔다가 눈병에 걸려 열흘간 학교에 가지 못한 시원이는, 그 사이 단짝 친구 혜진이의 배신으로 혼자 지내게 된다. 시원이는 아이들 눈에 우습고 처량해 보일까 봐 함께 어울릴 새 단짝친구를 찾아야 했다. 성적도 집안 형편도 고만고만한 지현이네 무리와 어울리기 위해, 급식시간 그 무리 친구들이 남긴 오이지를 먹여주기까지 한 시원이. 안타깝게도 잠시 이용만 당하고 그 무리에 끼지도 못했다. 쪼글쪼글한 오이지 같았을 시원이의 처지가 어쩐지 안쓰럽게 느껴졌다.

잔뜩 예민해진 시원이는 기다리던 영어캠프에도 갈 수가 없었다. 영어캠프에까지 가서 혼자 지낼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절반 넘게 빠져나간 교실에 남자애들 몇 명과 여자애는 시원이와 민지 둘만 남았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종일 입을 꼭 닫고 있는 민지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 시원이는 민지가 궁금해졌다.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정말 어울리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지 말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같은 반 성현이가 1반 남자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을 때였다. 괜히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까 봐 걱정만 하고 있는 시원이와 달리, 용감하게 나서서 성현이를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지였다. 이런 민지가 어쩌서 그동안 존재감 없이 지냈던 걸까? 나와 시원이의 궁금증은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민지는 이혼한 부모님을 대신해 귀가 어두우신 할머니와 낡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 민지의 사정을 알고 나면, 사람들은 민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한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나쁠 것이라는 편견, 그것이 민지를 움츠려 들게 한 이유였다. 책을 읽다 말고 너무 화가 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맙소사! 어떻게 사는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지?

영어캠프에 간 아이들이 돌아왔다. 혜진이는 영어캠프에 가서 새롭게 단짝이 된 친구에게 보기 좋게 배신을 당한 모양이다. 다시 시원이와 단짝이 되기 위해 하루 종일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혜진이 때문에, 민지와 시원이는



잠시 소원해졌다. 그 무렵 1반 남자애들이 또 성현이를 괴롭혔다. 이번에도 민지가 나서서 성현이를 도와주었다. 재현이라는 남자아이와 싸움까지 해 가면서 말이다. 다음 날 몹시 흥분한 아주머니가 팔이 부러진 재현이와 함께 교실로 찾아왔다. 다짜고짜 욕박지르는 아주머니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시원이도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간 재현이가 얼마나 친구들과 성현이를 때리고 괴롭혔는지, 그때마다 성현이를 도와준 사람은 민지밖에 없었다고 큰 소리로 선생님께 말했다. 재현이 엄마가 자꾸 재현이 편을 들자, 이번에는 혜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시원이의 말을 도왔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원이반 아이들이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한 것이다. 속이 다 후련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했을 재현이 엄마의 얼굴을 상상하니 통쾌하기까지 했다. 이 일로 민지를 바라보는 반 아이들의 시선은 사뭇 달라졌다. 특히 민지의 환경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시원이의 엄마는 다가오는 시원이의 생일에 민지와 혜진이를 모두 초대해도 좋다고 하셨다. 시원이가 혼자였을 때 눈에 들어온 친구, 민지도 이제는 시원이랑 혜진이와 함께여서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사춘기의 문턱에서 가끔은 외롭기도 한 4학년이지만 시원이를 통해 혼자 지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일 때가 아직은 더 좋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았다.

“이제부터 우리 친하게 지낼까?” 혼자 있는 방에서 괜스레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날 내일 아침 등교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호암초등학교 6학년 박은결

나는 사고 싶은 것이 많다. 주로 부모님이 사주시지만 어떤 때는 ‘꼭 필요한지 고민해 봐.’ 라고 뜬을 들이면서 쉽게 사주지 않으면 답답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내게 돈은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내가 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책은 돈의 뜻, 돈의 가치를 매기는 것, 돈의 변화 과정 등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생기는 일이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많아져서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움츠러들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참 이상한 돈이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 많아지는데 도리어 사람이 힘들어지다니.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은 배상금을 물어 내야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다. 그랬더니 물가가 1,600만 배나 올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지 못해 비참하게 생활했던 것이다.

지금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게 쫓겨날 수가 없다. 참 불공평하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온갖 서비스를 다 누리고 편리하게 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나 서비스를 누리기 힘들다. 아프리카에서 돈이 없어 작은 질병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참 나쁜 돈이다. 과연 돈이 있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불공평한 것을 바꾸기 위해 린튼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서비스를 컴퓨터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돈이 없어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다니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프로그램이 더 훌륭한 것은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숨어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시스템에 ‘손난로’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다. 손난로는 온몸을 데워주지는 못하지만 추운 날 호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면 따뜻해서 참 좋다. 손난로처럼 이것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가 일곱 살 때 엄마와 친구엄마들이 모여 린튼과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나와 친구들에게 미술, 요리, 종이접기 등을 가르쳤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엄마들이 참 대단한 생각을 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돈은 많아지고, 나쁜 돈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알쏭달쏭 이상한 돈은 좋은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통씨는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결국 인간인 우리가 해내야겠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어

-대단한 단추들을 읽고-

삼계초등학교 6학년 조 솔 지

처음 대단한 단추들을 읽을 때는 ‘책이 다 그렇지 뭐, 지루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괴물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달랐다.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책이다. 이 책은 단추의 입장에서 쓴 책이고 단추가 느끼는 감정 또는 생각, 단추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근데 생각보다 단추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이름도 특이하고 재미있었다. 단추의 순서는 송아단추부터 시작한다. 더 신기한건 단추마다 사연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추도 있었다. 송아단추는 가장 꼭대기에 달려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첫 단추라서 목이 답답해서 풀고 다닌다. 아무 일도 안하고 축 늘어져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송아단추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나라면 공부도 안하고 놀고 있을 텐데 왜 송아단추는 슬퍼할까?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다.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단추들은 거의 옷에 붙어서 옷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장식품이니깐 때론 관심도 받아보고 싶겠지? 라고 말이다.

그 다음 단추는 가을비단추다. 이름도 예쁘고 가을이라는 단어가 날 유혹하는 듯해서 자세히 읽어 보았다. 근데 가을비 단추도 엄청 고생하고 있었다. 단추 위치가 싸울 때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떡살이라도 잡히는 날엔 그 이름 예쁜 단추를 잃어버릴 수 있는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리였다. 근데 어느 날 단추 주인이 막 친구랑 싸우다가 툭 단추가 옷에서 떨어져 잃어버리고 말았다. 가을비단추는 슬퍼했다. 알고 보니 배꼽단추랑 사랑하는 사이였다. 배꼽단추는 배꼽에 위치한 곳에 달려있는 단추이다. 옷을 접으면 가을비 단추랑 배꼽단추랑 마주보기 때문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을비단추가 자기 주인을 만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근데 은근 쉽게 만난 편이기도 하다. 반에서 작품을 만드는데 단추와 찰흙이 필요했다. 근데 반 친구가 그걸 주워서 만든 걸 주인이 떼어 엄마에게 다시 붙여 달라고 해서 주인과도 배꼽단추와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기분 나쁠진 모르지만 불쌍해 보이는 단추도 있었다. 바로 부끄단추이다. 귀여운 이름을 가진 이 단추는 위치가 어중간하다. 옷 맨 아래에 달려서 바지춤에 윗옷을 넣고 다녀서 밖을 보기 힘들고 오줌을 싸면 역겨운 냄새를 맡아야 하는 힘든 단추다. 처음엔 내가 다 부끄러워서 책에 이런 내용이 왜 나와 했지만 읽다보니 불쌍해 보였다. 나머지 많은 단추들도 있지만 나는 이 송아단추, 가을비단추, 부끄단추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사람도 없어지면 허전하고 걱정되고 슬프지만 단추도 없어지면 누군가가 걱정하고 슬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부끄단추에게 말해주고 싶다. 네가 만약 없어진다면 많이 허전할 거야. 때론 힘이 들고 짜증나는 자리지만 네가 있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야. 넌 생각해보면 아주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말이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엘 데포를 읽고-

가고파초등학교 6학년 김도윤

나는 나에게 견디기 힘든 순간이나 괴로운 일이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리고 웅크리고 숨는 겁쟁이가 된다. 그러나 여러 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숨거나 겁을 내면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결국은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럴 때 겁쟁이인 내가 나에게 거는 주문. ‘괜찮아. 별 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용기가 조금씩 커져 겁쟁이인 나를 몰아내고 쾌활, 용감무쌍한 나로 변신한다. 엘 데포의 주인공인 시시 벨도 나처럼 어려운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벨의 슈퍼파워의 원천인 상상력이다. 벨의 상상이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책의 작가는 실제 청각 장애인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일과 어릴 적 상상을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들 청각 장애인이 보청기를 불편하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의 시시 벨은 포닉이어를 자신의 슈퍼파워라고 생각하면서 무한 긍정을 보여 준다. 엘 데포의 ‘데포’는 귀머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 밖에 없는’이란 뜻이다. 시시는 자신이 귀머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특징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시시 벨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녀의 인생을 밝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불편한 시각에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거나, 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친절하게 대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사라는 아이는 시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시의 둘도 없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 장애가 있든 없든 사실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친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동안에만 우정을 나누는 종이처럼 얇은 우정은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시시가 전혀 불편함을 가진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다. 시시 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남과 다른 점이 우리의 슈퍼파워예요.” 내가 비록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누구처럼 랩을 잘하거나 TV 영재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나는 나의 장점인 상냥함과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친화력이 나의 슈퍼파워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을 슈퍼파워로 가지고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산다면,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서 빨간 망토를 맨 슈퍼 히어로는 ‘나’ 일 것이라고 믿는다.



바람의 맛을 읽고

-바람의 맛을 읽고-

김해부곡초등학교 5학년 이 예 림

나는 '바람의 맛'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보자 맨 먼저 발효식품이 떠올랐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바람과 햇빛, 물 등의 자연이 사람과 같이 발효식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장을 넘기자 '간장과 된장'이라는 소제목이 눈에 띄었다. 나는 평소에 간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이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분명히 간장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갑자기 콩 이야기가 나와서 의아해졌다.

'간장은 메주로 만드는 게 아닌 걸까?

너무 궁금해 책장을 열린 넘겨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용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아하! 메주는 콩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니 콩을 따야겠군.'

계속 한 장, 두 장 넘겨 메주가 간장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메주가 간장이 되는 방법은 항아리에 넣고 40일 동안 발효시키면 된다고 나와 있었다. 콩이 메주로, 메주가 간장으로 변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다. 기다림이 맛있는 간장을 만드는 비법인 것 같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께서는 오래도록 이 일을 해오신 게 믿기지 않는다. "콩 한 알 한 알이 다 내 새끼야."라는 글을 보고 농사가 힘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얼마나 정성을 들이든지 알 수 있었다. 먼 훗날 내 아이들에게도 간장을 담가 주고 싶었는데 간장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아이들에게도 맛있는 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간장만큼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음식은 바로 홍어였다. 홍어는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먹기 꺼려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나는 홍어의 맛이 궁금했다. 나는 '바람의 맛'을 읽고 나서 더 이상 홍어회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홍어는 바다 속에서 늘 목욕하고 있으니까.'라는 대목을 읽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홍어도 더럽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다들 바다 안에서 열심히 목욕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다음으로 내 눈길을 끈 음식은 배추김치이다. 나는 배추김치를 엄청 좋아한다. 맵고 아삭아삭 맛있는 김치가 내 취향에 맞기 때문이다. 김치도 만드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데 할머니들께서는 김치를 만들어 손자, 손녀들에게 거의 다 나누어 주신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도 할머니가 되면 몸이 힘들어도 손자, 손녀, 아들, 딸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싶다. 나는 '바람의 맛'을 읽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발효음식이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걸 배웠다. 음식은 역시 정성인 것 같다.



죽음의 기적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충무초등학교 6학년 강 난 영

처음으로 이 책을 펼쳤을 때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 오는 분홍 문이 눈에 들어왔다. 이 분홍 문 안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있다. 아주 활발하고 밝던 향기와 향기의 엄마, 아빠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다. 그 일은 향기의 엄마가 두부를 사오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이야기였다.

분홍 문에서 분홍이라는 색은 밝고 신날 때 어울리는 색인데 이 분홍 문 집은 문의 색과 너무 다른 숨겨진 사연을 가지고 있어 정말 놀라웠다. 분홍 문 집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을 사람이 나는 향기라고 생각한다. 향기는 나와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어서 책에서 나오는 향기가 느끼는 것들이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향기는 슬럼프를 극복해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항상 우울하고 소심하면서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살 것만 같았다. 여기서 나는 향기가 밝고 극복심이 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지나 씨가 향기와 진정 씨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향기와 아빠가 ‘여보’, ‘엄마’ 하면서 그 동안 쌓였던 감정을 표현할 때 지나 씨는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보면 나는 두 가지 입장에서의 생각을 느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나 씨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면서 속으로 감정을 삼킬 때 얼마나 슬펐었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입장인 향기와 진정 씨의 입장에서는 지나에게 그리움을 표출하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을까? 라는 생각과 지나도 많이 슬프고 힘들 텐데 이렇게 매달리기만 해도 되는 걸까? 라고 내가 두 번째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나 씨가 몽 이비인후과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을 때 지나가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잘 느껴졌다. 또 기억에 남는 하나의 장면은 향기가 분홍 문에 달려있던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고리를 안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고쳐 쓴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 장면에서는 나는 향기가 느꼈던 감정보다 지나 씨의 감정이 떠오른다. 지나 씨는 하늘나라로 갔어도 분홍 문의 집을 찾아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엄마라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온갖 감정이 스쳐가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나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있고 당연히 죽으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끝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고 요정이 되어 지켜주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의문점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직접 죽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주제를 죽음의 기적이라고 지은 이유도 이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정연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책 내용을 생각할 때 보통 거의 다 그냥 생각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신이 겪은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쓴다면 다른 점이 있을지 궁금하다.



분홍 문이 알려 준 행복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초전초등학교 6학년 김 서 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분홍 문의 기적’은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을 잃은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이다. 책을 보기 전 분홍빛 색감이 눈에 띄는데 마치 밝고 화창할 것 같았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면적인 책이었다.

단란한 가정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분홍 문 안에는 폐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향기와 아빠가 있다. 한순간에 의지하던 엄마를 잃고 하루하루를 원망하며 보내던 그들은 어느 날 영혼이 된 엄마를 3일 동안 만날 수 있게 된다.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일상 속에서 다시 사라졌지만 아빠와 향기는 서로 가까워져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다. 향기는 엄마가 천사가 되어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책을 읽고는 정말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에 대한 느낌... .. 그러나 단연 돋보였던 것은 역시 소중한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이었다. 소중한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책에선 향기와 아빠가 문을 초록색으로 바꾸면서 서서히 엄마라는 존재를 극복하였는데 죽은 사람을 마냥 그리워하고 향기와 아빠처럼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죽은 엄마에게는 미안할 수 있지만 가정을 꾸리거나 소중한 인연을 맺는다면 더 극복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일들이 많으니까 빨리 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중했던 기억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힘이 되어 줄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향기와 아빠는 너무 한 사람에게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립심을 기르는 환경 또한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이 들어버리면 이별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움만 더 커질 것이다. 다행히도 책 속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지만 만약 실재였다면 더욱 그리움이 커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었을 수 있다. 나는 죽은 사람은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책과 같이 삶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버리지 말라고, 네 삶을 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물론 이미 깨져버린 유리잔을 주워 담는 것보다 깨지기 전에 유리잔을 어떻게 다룰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사는 동안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대할 것이다. 언젠가 닥쳐 올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 책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간 향기의 이야기를 잔잔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책을 통해 이별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이별은 많지만 잘 극복한다면 아빠와 향기처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내 유리잔은 아직 깨지지 않았으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모두를 사랑할 것이다.



분홍 문의 기적이 내 친구에게도 찾아왔으면...

-분홍 문의 기적을 읽고-

거제중앙초등학교 5학년 공 석 진

엄마와 서점에서 책을 살피다가 분홍색 표지의 책 한 권이 내 눈에 들어왔다. ‘분홍 문의 기적?’ ‘엄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선물 같은 72시간’이라는 글을 보고는 내용이 궁금해서 엄마한테 책을 사달라고 졸랐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핑크색 책 속으로 쏙 빠져들었다.

이 책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향기네 가족이야기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 향기네 가족의 생활은 엉킨 실타래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지공주처럼 작아진 엄마가 다시 돌아와 꿈같은 72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별을 준비하게 된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사람이 만약 엄마라면? 천둥번개가 치고, 무서운 폭풍우가 휘몰아쳐 정전이 된 캄캄한 방처럼 무서울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반 친구인 다솜이가 계속 생각났다. 다솜이는 작년에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이다. 엄마가 갑자기 없어져버린 다솜이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런데도 다솜이는 향기처럼 빠тол어지지 않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낸다. 가끔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엄마이야기를 해서 속상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향기에 비하면 다솜이는 너무 잘 생활하고 있다. 분홍 문의 기적처럼 착한 다솜이에게도 하느님께서 엄마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하게 바라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다솜이에게 감시를 삼켜보라고 해볼까?

작가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이 유리잔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반짝이는 맑고 투명한 유리잔이 1초 뒤에는 수천 개의 유리조각으로 와장창 깨져버릴 수도 있으므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하고 많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 말이 무척 감동스럽고 기억에 남았다. 내일 서점에 다시 가서 이 책을 한 권 더 사서 다솜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사실 다솜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책이라고 했었지만 핑크색 표지와 제목을 보면 나처럼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 책이 다솜이의 슬픔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돈 한 장이 매길 수 없는 가치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을 읽고-

석동초등학교 5학년 기 건

나는 어렸을 적부터 돈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라마다 다른 돈의 색, 모양, 가치를 비교하고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도 이 책의 주제가 ‘돈’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읽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만해도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지?’ 라고만 생각했지 돈의 가치와 본질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도서관에서 먹은 컵라면의 값 1,200원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에 배고픔에 따라 컵라면의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면 나는 만원을 주고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감정, 재능, 지능도 돈으로 매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잔치에 갈 때 돈봉투를 가지고 가서 축하하는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지능을 돈으로 매기고 신분제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과거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옳지 않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는 물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되었다.

요즘도 사람들이 즐겨먹는 ‘새우깡’은 1980년대에는 100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약 1,200원정도이다. 약 30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이다. 물가는 경제성장에 따라 올라간다. 경제가 발전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TV에서 경제공황으로 물가가 올라 돈을 수레에 가득 실어가도 빵 한 개 못사는 모습을 보았다. 물가가 치솟으면 경제공황에 빠지고 돈은 종잇조각이 된다. 여기에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답은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확실히 느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만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환경을 훼손해 이익을 얻거나 재개발을 하려고 철거민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나는 많은 고민이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은 하찮은 것일까?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 돈의 경제적 가치보다 사람의 목숨, 환경, 인격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우깡 값이 올랐듯이 타임달러가 생겼듯이 미래의 돈은 사람의 미래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돈을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쓰고 모두가 꿈꾸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싶다. 또 돈으로 매긴 가치만 보지 않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야!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를 읽고-

신양초등학교 6학년 전 헤 인

이 책의 주인공인 줄리안은 안면 기형아인 오기를 놀리고 괴롭힌다. 아, 오기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나는 그런 오기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는 눈이 나쁘다. 아주 많이 나쁘다. 시신경이 손상되어 그렇다. 맨 앞에 앉아도 칠판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아주 많다. 칠판 글씨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 색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 학교 친구들도 눈이 나쁜 나를 놀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나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다 보니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우리 학교 친구들 생각이 났다. 도대체 왜 그 애들은 나를 놀리는 걸까? 사람은 다 다른데... 눈이 나쁜 친구도 있고, 키가 작은 친구도 있고, 뚱뚱한 친구도 있고, 사람은 다 다르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줄 수는 없는 걸까? 비록 나는 눈이 나쁘지만 잘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정말 많다. 그리고 눈이 나쁜 대신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매일 열심히 피아노도 치고 있고, 외워서 이해하는 능력도 좋아서 영어와 중국어를 의사소통에 문제없을 만큼 잘한다. 다만 눈만 나쁠 뿐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줄리안은 오기에게 나쁜 쪽지를 보내고 전염병 놀이를 만드는 등 오기를 심하게 괴롭힌다. 그렇지만 줄리안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줄리안은 몰랐겠지만 이러한 줄리안의 행동들은 분명히 오기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우리 학교 친구들도 펜이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눈이 나쁜 나에게 “이거 몇 개개?” 라고 물으며 깔깔거린다. 그럴 때면 나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고 꺾꺾 눌러 참는다. 내가 잘못을 해서 눈이 나쁜 게 아니니까, 내가 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다. 하지만 집에 와서 엄마를 만나면 나는 무너져버린다. 엄마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진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엄마를 보며 그렇게 우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는다. 나도 내가 5년 전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 어휴, 오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오기 생각을 하니 너무 안타깝고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줄리안은 왜 이렇게 오기를 놀리고 괴롭힐까? 아무리 줄리안이 야경증이 있어서 오기에 대한 나쁜 꿈을 꿴다고 해도 줄리안처럼 자신의 아픔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참을 수 없었을 것 같다. 입장 바뀌서 줄리안이 오기 같은 안면 기형아인데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왔다면 줄리안의 부모님은 아마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학교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줄리안과 부모님이 한 번만이라도 오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더라면 학교를 고소한다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난 이렇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줄리안이 뚜흐또 이야기를 듣고 잘못을 반성하고 오기에게 사과편지를 써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오기가 화를 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줄리안은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어떤 친구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줄리안, 앞으로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잘 도와주고 챙겨 줘. 그럼 넌 옛날처럼 인기 많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친절하고 착한 줄리안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더 씩씩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나의 꿈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눈이 나빠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야. 훗날 나는 피아니스트 전해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싶어. 우리 둘 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파이팅!”



엘 데포

-엘 데포를 읽고-

중리초등학교 6학년 신 유 비

요즘 난 나의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다. 동생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인지 동생은 친구가 없다고 많이 말한다. 난 이런 내 동생이 정말 안쓰럽다. 그런데 이번 선정도서 중에 '엘 데포'라는 책이 있었다. 이름이 특이해서 엄마께 책을 사달라고 하여 읽어 봤는데, 글씨 동생과 비슷한 아이가 주인공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난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

시시라는 평범한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시가 아파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검사를 해보니 뇌수막염이었고, 그 뒤로 시시는 나아져서 퇴원을 했다. 그런데 시시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게 되었다. 특별한 학교에 입학하게 된 시시는 말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시네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시시는 외로운 생활을 계속 하다가 또 다른 학교에 입학할 한다. 그곳에서는 마이크와 연결된 보청기를 사용해 수업을 듣고, 보청기 덕분에 시시는 선생님이 화장실에 갈 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귀머거리라는 이유로 다시 외로워지곤 했다. 친구도 몇 명 사귀어 봤지만 좀 뭔가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그 뒤, 친구들과 TV를 보는데 귀머거리 아이와 평범한 아이가 나왔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가 귀머거리 아이에게 '데포'라고 불렀다. (데포란 귀머거리라는 뜻이다.) 시시는 TV를 보고난 뒤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데포라 불려도 되지만 엘 데포라고 부르라 말했다.(엘이란 스페인어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시간이 지나 4학년이 된 시시는 수화교실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 중 미사라는 아이는 시시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만 함께 놀다가 시시가 다치는 것을 보고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좋은 친구로 거듭나는 등 여러 이야기가 등장한다.

시시와 내 동생은 둘 다 장애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평범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진실된 친구가 한 명쯤은 있다. 서로 잘 맞는 친구! 시시와 내 동생은 특별하면서도 진실된 친구가 있다. 책의 내용이 내 동생의 이야기와 비슷하여 이해하기 쉽고, 한편으로 내 동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비록 난 동생과 나이 차이는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되고 싶다. 내 동생 관우야! 사랑해!

독서감상문 | 청소년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경상남도교육감상 최우수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장상 우수

- 063 **한 스푼의 시간**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경남항공고등학교 1학년 최유진
- 065 **동물사랑, 동물복지를 향한 꿈** -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을 읽고
범어중학교 2학년 이수아
- 067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을 읽고
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장보영
- 069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를 읽고
대아중학교 1학년 강지민
- 071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를 읽고** -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를 읽고
옥포중학교 1학년 반혜린
- 073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을 읽고
통영중학교 1학년 김종재
- 075 **제대로 꿈꾸기 위한 욕망 연습** -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명신고등학교 2학년 권수민
- 076 **거울소리**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민윤지
- 077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를 읽고
함양여자중학교 3학년 박혜정
- 078 **멀지 않은 인공지능 세상**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유진
- 079 **그래, 한번 해보자** -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를 읽고
김해울하고등학교 1학년 김혜영
- 081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 -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창원용호고등학교 1학년 홍수민
- 082 **‘17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나서** -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창원용호고등학교 1학년 성연수
- 083 **한 스푼의 시간**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남지고등학교 2학년 김가림

독서감상문 | 청소년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장상 우수

- 085 **한 스푼의 시간**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진영고등학교 2학년 이도현
- 086 **시간의 일부**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칠성중학교 3학년 전주은
- 087 **한 스푼 속 수많은 감정**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밀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현아
- 088 **‘싸이퍼’를 읽고** - “싸이퍼”를 읽고
거창여자중학교 1학년 김연우
- 089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마산삼진고등학교 1학년 박상우
- 090 **삶의 모든 것**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남지고등학교 1학년 설나경
- 093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를 읽고
마산삼진중학교 2학년 정연우
- 094 **인간이 최고라고?** -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을 읽고
수월중학교 2학년 이지우
- 095 **사람이기에 가능한 무언가가 있다**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창원용호고등학교 1학년 이은지
- 096 **한 스푼의 시간** -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경남항공고등학교 1학년 조규찬



한 스푼의 시간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경남항공고등학교 1학년 최 유 진

인생은 한 스푼의 세제가 녹는 시간. 정명의 세제가 다 녹기 전에 그의 아들의 시간이 끝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몇 년 간격으로 오던 편지에는 익숙해졌지만, 차가운 전화기 너머 들리는 아들의 끝은 부정했다. 아들의 끝을 수궁할 때 즈음 아들의 이름으로 큰 택배가 도착한다. 그렇게 정명은 은결을 만난다. 분석하여 끝을 맺으며, 정보를 입력하고 표출하는, 인간의 감정과 관계는 표현하지 못하는 로봇!

사랑과 미련이 담긴 둘째아들 이름, ‘은결.’ 그 이름대로 은결은 천천히 자익를, 감정을 가져가고 있었다. 은결의 눈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감정은 참으로 신비로웠다. 그 어떠한 것도 옳은 것은 없었으며 잘못된 것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인생은 세탁기 안의 빨래. 얹히고설키고 풀렸다 구겨지며 축축이 젖기도 바싹 마르기도 한다. 그렇게 모두 커다란 세탁기 안에서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아직은 얼룩지고 구겨진, 커버린 시호와 은결이 얼룩에 대해 얘기한다. 언제, 어떤 얼룩이냐에 따라 지우는 방법이 다르다. 인간의 상처 역시 그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때때로 얼룩을 지워내지 않는 선택을 한다. 시호의 옷에 묻은 피같이 말이다. 또한 인간은 얼룩을 쉽사리 지울 수 없으며 때때로 시간이 지나 얼룩은 화사한 그때의 추억이자 무늬가 되기도 한다. 은결은 느끼지 않았을까.

은결은 그저 은결이 되어간다. 그 지나가는 시간만큼 정명의 시간은 녹아 흐려지기 시작한다. 말기 암이었다. 가법지만 무거운 양도문을 서랍에 두고 떠났다. 기억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아주 이기적인 부탁과 함께. 정명이 가고 은결은 ‘무너지다’라는 감정을 겪게 된다. 인간의 감정은 오류의 감정. 깊고 뜨거우며 위험한 것. 이내 타고 오르는 전류에 눈을 밝힌다. 어떤 것이 정상이 아니라도 다시 눈을 뜬다. 인간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은가. 고장이 나도 일어나 살아간다는 그 묵묵함이. 은결은 양도문을 찢어버리고 오물 묻은 이불을 빨기로 한다.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욕조에 물을 받아 발로 천천히 밟으며 올라오는 거품을 바라본다. 집이 되는, 그럼에도 가족을 이루는 이유가 방울을 통해 비추어지는 것 같다. 아름답게 반짝이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결국 남는 이만 반짝였던 그때를 더듬으며 흔적을 찾을 뿐이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물은 머리 위로 차오른다. 인공 심장에 차오르는 물의 양은 계산하면서 또다시 남겨질 누군가의 고통은 계산하지 못했다. 서로와의 관계는 짐을 옮기고 옮기는 잔인함의 연속이다. 그 짐을 언제 두고 먼저 떠나느냐가 문제이다. 죽음으로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짐이기 때문에 항상 무겁다.

준교가 은결을 꺼내 말린다. 은결의 비눗방울은 아직 다 터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시호와 준교가 꽃



을 맺고, 그 꽃은 또 다른 꽃을 피웠다. 몇 번의 꽃이 지고 필 때까지 인공심장은 쉴 새 없이 학습하고 기억한다. 그 심장은 세상 어느 것보다 부드럽고 따뜻할 것 같다. 수많은 사람이 거뒀다 보다듬고 떠나갔으니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폈을까. 이다음에 내 시간도 흐려질 때쯤. 내 자식의 지식에게 말해주고 싶다. 순간순간을 사랑하면 이리 따뜻한 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 작은 순간조차 사랑했으니 지나가 시간을 미련 없이 뒤돌아 볼 수 있다고 말이다. 인간의 삶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으나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건 모두의 꿈속의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동경하고 빛이 난다. 따뜻하게 이 책을 덮었으니 이 마음을 담아 끝을 맺는다.



동물사랑, 동물복지를 향한 꿈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을 읽고-

범어중학교 2학년 이수아

어릴 적부터 내가 즐겨보는 동물 관련 TV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계기로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방학을 맞아 숙제도 할 겸 찾은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내 눈길을 끌었고 무엇보다 작가가 수의사 선생님이라 더 신뢰와 호기심이 생겨 읽고 싶어졌다. 나는 솔직히 동물원에 가더라도 내 눈에 작고 귀여운 동물에게만 관심을 보였는데 저자는 표범, 사자 등 맹수까지 자식 다루듯 건강을 챙기고 염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물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의 동물들이 치료대상이라 할 수 있으니 수의사는 방대한 관련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고기를 먹기까지 도축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그 도축장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일도 수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수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수의사와 도부아저씨들의 직업적 고통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 일을 수의사와 도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절로 감사의 마음이 든다. 그리고 희생되는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도 책에서 제시한 침지방식 도축장 이동로를 하루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삼촌이 뉴스를 보면서 한 나라가 선진국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동물에 대한 제도와 의식 수준이라고 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사태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대량 살처분을 하고 가축농가에는 엄청난 손해를 안긴다. 게다가 매장된 곳에서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국가적인 시책에 이끌려 나섰다가 정신적 상처에 시달리고 수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다고 하니 잘못된 정책과 대응의 피해가 여러 분야에 너무 큰 희생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중학생이 되고 난 후 자유학기제를 거치고 진로탐험 등을 하면서 나의 장래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강아지를 예뻐하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수의사가 되고 싶어 이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진짜 수의사가 되어 동물원, 동물보호소, 대관령 목장, 보건환경연구원, 도축장, 전염병 현장과 동물 부검실까지 모두 쫓아다니며 활약을 한 기분이다. 우리 동네 상가 한 칸에 자리 잡은 예쁜 동물병원의 원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식탁 위까지 영향을 미치고 보살펴 주는 직업이 수의사란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방대한 영향력에 놀랐다.



이 책을 통해 막연하게 꿈꿨던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관련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무엇보다 수의사로서 가져야 할 동물에 대한 마음가짐, 생명이 주는 사랑과 존중을 깨달았다. 저자는 아픈 동물이든, 건강한 동물이든, 맹수든, 반려동물이든 동물의 상태와 외모,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분임을 글에서도 느낄 수 있어 존경스럽고 나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했다. 수의사를 꿈꾸는 내게 이 책은 용기내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주었고 의미 있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다.

세상 모든 동물들아, 기대하고 기다려! 멋진 수의사가 되어 달려갈게!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을 읽고-

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장 보 영

6살 때였다. 엄마 아빠와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다녀오던 중 산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 한 마리가 우리 차에 치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차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차가 부서질 것 같은 굉음에 잠이 깨었고 엄마 아빠도 당황한 듯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시고 있던 터라 불길한 기운에 휘말리고 싶지 않던 이유도 있었다. 운전하시던 아빠가 갓길 옆에 차를 세우시더니 야생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간식으로 먹던 떡을 조금 나누어 담아 산세에 가까운 곳에 살짝 놓아두셨다. “우리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동물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주자.” “다음 생에는 예쁜 여자아이로 태어나 못 다한 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고 나니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듯했던 경험이 떠오른다.

이 책의 작가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다 로드 킬을 당한 동물을 보면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도 직접 물어준다고 하니 그의 진심 어린 동물 사랑이 전해졌다. 도로나 거리를 달리다 보면 로드 킬을 당한 동물들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동물사랑의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고보다 귀찮다, 바쁘다, 더럽다는 이유로, 아니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생명을 다한 동물들에게 예의를 지켜주지 못한다. 지역번호 +120 ‘전화만 한통 해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 가족이나 친척이 내 친구가 도로에서 생명을 다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책에서 개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퍼부으면서 순진함과 충성심을 평생 보여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느끼기 힘든 온기를 개를 통해 맛보게 된다고 한 글귀가 떠오른다. 최근 1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증가가 반려동물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쳐 우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이르렀다. ‘반려’라는 말처럼 동물이 주는 혜택을 존중하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 같은 존재로 인식해야지 ‘애완’이라는 말처럼 장난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작가도 요즘 사회에 있어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동물을 키우며 인간 본연의 천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작가가 목장에서 ‘전위증’에 걸린 소를 치료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모습에서 직업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최대한의 에티켓과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좋아한다’, ‘키우고 싶다’라는 단순한 욕심만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무시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유기동물의 사례는 TV나 책에서 많이 보았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동물농장’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았는데 그런 사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인데’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했으며 사람들이 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 자신의 반려동물로 맞이하여



기르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길러야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생명을 아무 곳이나 버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유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책 속의 유기동물에 관한 부분에서는 흥분되는 내 생각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유기동물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감의 참 많이 되었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어서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에게 분양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마치 그게 내 일인 듯 너무 기뻐다. 반려동물이 유기동물로 바뀌는 슬픈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가끔 상상한다. 동쪽으로 뻗은 드넓은 초원에 얼룩덜룩 젖소들의 목장이 있다. 청명한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한 데 어우러져 젖소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나는 고요하면서도 신비한 평화로움을 만끽한다. 이것은 언제나 내 상상 속 목장이다. 젖소들을 가득히 품고 있는 저 울타리는 젖소들을 노리는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지킴이가 되고 버팀목이 된다. 하지만 젖소들을 노리는 무서운 세상은 없다. 동물도 동물, 사람도 곧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인간을 치장하며 동물이라는 말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사람이 지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어서 잠깐 동물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지 언젠가는 영화 ‘혹성탈출’ 같은 이야기가 전개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본다. 나는 작가에게 우유를 만드는 법, 소의 인공수정 방법, 소의 출산, 질병 등과 같은 내용을 배워본다.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몰랐던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내 지식의 장을 채워나가서 뿌듯했다. 이렇게 늘 내가 꿈꾸는 목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다. 앞으로는 목장을 상상할 때마다 이 책에서 배운 내용들이 생각날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동물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동물과 좀 더 친해진 기분이다. 나는 원래 이론적인 설명이 담긴 책 보다는 소설처럼 스토리가 구성된 책을 더 좋아하는데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이론 설명도 있고 수의사의 경험담과 같은 실제 이야기가 함께 있어서 특히 내게는 더없이 좋은 책이었다. 유익한 책이었던 만큼 책을 읽는 동안에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사람들이 책을 읽은 뒤 동물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을 많이 읽다보면 이론 설명이 들어간 책에도 금방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저자인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 ‘달려라 코끼리’ 등의 작품들도 읽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작가 ‘최종욱’ 수의사가 내게 던진 질문,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에 답할 수 있다. 난 분명 놀랄 것이다. 하지만 놀란 만큼 조심히 다가가 꼭 안아줄 것이다. 그럼 나중엔 놀라지 않겠지. 너구리와 만나도, 멧돼지와 만나도, 고양이, 개, 비둘기, 사자, 소와 만나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도시에서 사람도 동물도 모두 다 함께 안아주는 날이 오겠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나다면 꼭 안아주어야겠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는 읽고-

대아중학교 1학년 강 지 민

사람들은 옛날부터 ‘시간여행’ 또는 ‘타임머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머지않아 타임머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고 싶은 시간여행. 실은 나도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일 먼저 타고 싶지만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불가능한 존재들을 담아놓은 이야기가 있다. 어쩌면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이야기, 2120년에서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이다. ‘2120년에서 친구가 온다면 난 절대 비밀로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책의 첫 장을 펼쳤다.

주인공인 ‘요하난’은 2120년에서 찾아온 아이이다. 요하난은 2120년은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초록빛 풀 한 포기, 초원을 뛰노는 야생동물들,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며 슬퍼한다. 내가 생각한 2120년은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여전한 ‘초록’의 지구가 상상되는데, 요하난의 말을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나의 후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의 2020년의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대화를 통해 자칫 미래에 변화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이것저것 잘못된 일들을 신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상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요하난은 2020년에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지만, 요하난의 부모님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모습을 숨어서 필기하라고까지 한다. 마치 아주 오래된 동물원에 견학을 온 사람들처럼 말이다. 미래에서 온 이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필기한다면 나는 약간 무섭고 화가 날 것 같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것을 관찰하고 공부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물건 중에서 ‘갈릴레오’라는 내비게이션과 ‘레이저 칼’ 그리고 홀로그램을 보여주는 천사모양 목걸이가 가장 인상 깊었다. 요하난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물건들을 보면 미래에서 왔다고 믿을 것이다. 요즘은 ‘현재’가 점점 더 빨리 ‘과거’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만약 내가 과거로 갈 때 가져갈 물건을 정한다면 꽤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시간 여행자들은 눈치 빠른 ‘파울루스 박사’에게 쫓기기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 파울루스 박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라는 말뿐이지 정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 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다. 박사는 배고프고 지친 요하난을 유혹해 미래로 가는 문을 열 생각이었나 보다. 다행히 요하난은 파울루스 박사에게 적대감을 느끼고 ‘메얼린’이라는 친구를 만나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 요하난이 2120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 메얼린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인데, 메얼린도 2020년의 지구온난화에 대해 걱정을 한다. 지구온



난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생성되어 ‘기후 난민’이 생겨났는데 메얼린의 친구 아카샤도 불쌍한 기후 난민이었다. ‘지금이 2017년인데, 3년 후면 지구온난화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103년 후에는 요하난이 사는 시대인 어두운 미래를 걷게 되는 건가?’ 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2120년은 ‘빛나는 과학기술을 조화롭게 쓰는 인간들의 세상’ 일지, 아니면 ‘풀 한 포기조차 볼 수 없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세상’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의 미래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는 장난스러운 상상보다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2120년은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어두운 미래를 걷고 있는 인간들의 세계인데, 어쩌면 요하난의 생각은 2020년에 와 있다는 것이 꿈을 꾸는 느낌일지도 모른다. 2020년에도 먼 미래의 2120년에도 늘 그 자리에 있어줄 지구를 사람들은 지금도 괴롭히며 못살게 굴고 있다. ‘지구온난화’라는 기후 문제 말고도 환경 문제는 꽤나 심각하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2120년은커녕 2080년만 돼도 인류가 멸망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요하난의 2120년도 고민하고 상상만 하다가 맞이한 불행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루, 하루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깨닫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구슬 같은 지구를 천만년, 아니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마지막에 요하난이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갈 때 ‘다시 2120년이 깨끗한 미래로 바뀌어 있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도 우리의 노력이 요하난을 미소 짓게 만들어서 혹시라도 2017년으로 한 번 더 시간여행을 와서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하난! 지구를 깨끗하게 아껴서 2120년에 돌려줄게!”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를 읽고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를 읽고-

옥포중학교 1학년 반 헤 린

1910년 2월 10일, 한 조선인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그는 삼심제도(三審制度)를 통해 두 번의 재판을 더 받아 형을 줄여 사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그는 자신이 적국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하여 조국에 목숨을 바친다. 그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라는 독립, 대한독립을 꿈꾸었던 안중근 의사이다. 대개 사람들은 안중근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알지만 그가 이런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거사를 치르고 난 뒤의 일은 잘 모른다. 나도 초등학교 역사시간에 배운 간략한 내용만이 전부였었고, 그 후의 일과 또 재판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은 친절하게도 앞부분에 현대 법에 대한 내용과 당시의 법,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거사에 함께 하였던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에 대한 짚막한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허나 아쉽게도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판을 참관했기 때문에 이 셋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 올려 퍼진 총소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겨눈 총이 오토의 우측 가슴을 관통해 30여분 뒤 사망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이 열린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안중근 의사에게 공정한 심판마저 받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을 재판장은 미치광이에 정신병자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을사늑약과 그에 관련된 국권 상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억울한 조선의 입장을, 약소국의 대표자로서 당당히 맞서 이야기하였다. 위인들 중 안중근 의사가 왜 위인으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자신의 가족들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빼앗긴 조국과 조국의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당시에 몇이나 되었겠는가. 일본인 검찰관이 대한제국이 ‘대한’이라는 국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일본의 우에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조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을까.

나도, 하루아침에 조국이 사라졌다면, 편의 눈 붙일 내 고향이 사라졌다면, 난 그것에 무어라 말하고 무어라 그 감정을 형용할 수 있을까. 빼앗긴 조국의 500년 역사를, 되찾으려 간 사람마저 돌아오지 않는 그 무서운 세상에서 나는, 울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이어나갈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했으나 끝내 사형이 내려지기까지도 당당하고 올곧게 말을 했으니 옛날 그때의 우리는 크고도 똑똑한, 빛나는 위대한 인물을 잃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알고 있는 내용에 살을 붙여 지식을 넓힐 수 있었으나, 알게 된 내용 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내용도 존재하였다. 첫째, 재판 당시의 심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떠나올 당시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고작 몇 달도 아니며, 3년이란 시간동안 가난뱅이 시절 본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일본 당국이 그저 안중근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편파적 태도. 일본인 변호사를 세워 일본 당국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한국인 변호사를 재판장에 안중근 의사가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음), 재판관이 하는 말에 비해 통역은 간결하게 하여 이해를 어렵게 하여 고의적으로 피고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이끌었다. 이처럼 여러 불리한 상황들과 일본의 입김이 더해져 우덕순은 징역 3년, 안중근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중근 의사처럼 자신의 신념을 믿고 따라 올바르게 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을 읽고-

통영중학교 1학년 김 종 재

아파트 13층인 우리 집 베란다 새시를 쪽쪽 빨아대는 기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겠지만 키 큰 기린의 미네랄 보충을 위해 이제는 기꺼이 어제 먹고 남은 족발 뺏조각을 내어줄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누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책의 제목에서 환기시켜주듯 동물원만 해도 도시에서 지척에 있고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에도 잘 관찰한다면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이 책은 하루하루 동물들과 아파하며 기뻐하는 수의사의 시각에서 쓰인 책이다. 분명한 것은 골목의 고양이, 공원의 너구리, 목장의 소, 동물원의 기린까지 그들이 가진 생명의 무게를 묵직하게 여겨야 하는 의무감은 수의사나 일반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동반자이자 도시생태계의 구성원인 동물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심한 이웃은 아니었을까?

사랑받다 버림받은 동물들의 운명은 잔혹하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약한 것처럼 자연적 본능을 상실하고 ‘인간화’된 그들은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 로드킬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한다. 유기 동물보호소의 보호를 받게 되더라도 20일 안에 분양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안락사를 당하고 만다. 멸종한 생명들이 안락사에 처해지는 것이 거리를 떠도는 것보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도 공원 산책을 나섰다가 로드킬로 키우던 개를 잃었다. 그 당시 방실이(믹스견)를 안아들고 문 닫힌 동물병원 앞에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후 더욱 무거워진 생명에 대한 책임감은 반려동물 입양을 주저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막상 안락사 직전에 놓인 유기 동물의 처지를 생각하니 2년 전처럼 가슴이 먹먹해졌다. 키우던 동물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유기 동물을 입양함으로써 그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선택된 몇몇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기 동물의 입양이라는 애뜻하고 아름다운 일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다. 아기 같은 순진함과 평생 지칠 줄 모르는 충성심을 보여줄 한 생명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생명이 주는 사랑과 안도감은 비단 반려동물만이 주는 기쁨은 아니다. 동물원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동물들의 움직임, 호흡과 울음소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던 작년까지 1년에 한 번은 동물원에 갔었다. 소풍이며 어린이날이 되면 들뜨고 신난 나와는 달리 한자리에 서 꿈쩍 않고 잠만 자는 사자와 호랑이를 보고 실망하기 일쑤였다. 빛과 외기에 의해 돌아가는 내부의 생체시계가 비교적 정직한 동물들이 봄날의 꿀잠을 자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실내가 아닌 바깥에서 긴 겨울을 이겨낸 동물들에게 봄이야말로 인고에 대한 보상이자 선물이었을 텐데.....



이제는 동물원에서 조는 동물을 만나게 되면 너그러운 발소리를 죽여 지나가 주어야겠다. 지은이의 말처럼 동물원의 동물들은 자연에서 온 손님일지도 모른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귀한 손님들이 보여주는 강력한 본능과 그로 인한 작은 소동들은 분명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일 것이다. 여성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의 동물을 배려한 구조의 도축장 설계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물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는 칸막이식 이동로와, 서로 부딪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원형 이동로, 소의 약육을 위한 경사면 침지 용기의 개발은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알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도축될 운명의 동물들을 위한 그랜딘의 배려에서 다시금 존중받아 마땅한 생명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아름다운 건 이렇듯 다른 종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이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을 만난다. 다만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충분히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의 생태계는 이런 인간의 무관심 덕에 꽤 안정적인 단계까지 성장해버렸다. 길고양이, 너구리, 비둘기, 청설모와 까치까지 이들은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를 잡아먹고 과수원의 위협이 되는 등 인간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외진 시골조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인간의 끈질긴 개척정신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어야 한다. 인간만을 위한 생태계는 필경 어떠한 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생태계가 되어버릴 것이다. 자연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공생이다. 도시에 사는 공생의 지혜가, 도시 바깥에서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함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 사랑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잘 살피는 것에만 머무는 것 같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 집 밖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도 엄연한 우리의 이웃인데 말이다. 동물과의 관계는 혈통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동네 유기묘 나비가 당당하게 제 수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 동물원 동물들의 사계절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유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고기가 되는 가축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이처럼 생명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는다면 동물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주 꺼내보지 못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가족사진 한가운데 인절미 색깔 방실이까 허를 내밀고 웃고 있다. 가족 단독방에 글을 올렸다. ‘유기견 한 마리 입양합시다!’ 여동생은 벌써부터 강아지 목욕은 자기가 시켜줄 거라며 난리가 났다. 오랜만에 강아지 이야기를 꺼내게 될 오늘 저녁이 무척 기대된다.



제대로 꿈꾸기 위한 욕망 연습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명신고등학교 2학년 권수민

책을 접하다 보면 처음부터 단숨에 읽어드는 책, 의무감으로 끝까지 보는 책,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한 책, 등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첫 장부터 묵직하게 나를 끌어당겨 쉽게 책장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책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안 좋고, 속상한 일들을 '만들게' 된다.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자기 인생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 필사적으로 술에 의존할 거리를 만든다는 내용에서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부 내용이 어려워져서,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떨어진 나의 성적에 화가 나서, 부모님의 강압적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로 인해 등등..... 참 다양한 이유로 나는 게임 세계에 자주 접속하였다.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쩌다 시험 성적이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성적이 안 좋으면 기분이 우울하니까 분위기 전환용으로 등등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대었었다.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두세 시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폰을 쥐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어느새 내가 꿈은 희미해져 버려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아름다운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말과 행동을 다듬어서 인격을 갖추라고 한다. 이 책을 읽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은 한껏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면교사란 말처럼 나보다 더 거친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저자는 인간의 행복은 타월함에 있으니 한 분야에서만 타월함을 갖추기를 권한다. 인간의 행복을 타월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는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타월해지려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본다.

인생의 진도표를 단계별로 짜기를 권한다. 내가 되고 싶은 꿈을 '성장 욕구', '욕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욕망도 연습해야 한다고 격려와 충고를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상으로 나를 채우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는지도 실제로 예시를 들어 보여준다. 마지막 장에는 내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여러 이론을 제시하며 실천하기를 권한다. 언제부턴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 학원을 돌며 살다 보니, 제대로 욕망 연습해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온갖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한 부분이라도 실천해 보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제대로 꿈꾸기 위한 욕망 연습, 첫발은 힘들지만 누구나 가능하다. 나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거울소리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민 윤 지

청량한 빗물이 소리 없이 옷가지를 적신다. 입술은 감탄사를 내뱉지 않는다. 웅얼거리듯이 나지막한 독립언을 내뱉는 것은 시뻘정계 타고르는 심장이다. 온 신경을 사랑스레 속살거리는 심장에 집중한다. 어딘가 모습을 감추고 있는 슬픈 기억 한 조각과 함께 불꽃을 담은 책의 잔재가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그렇게 어느 날 밤, 한 스푼의 시간이 흘렀다. 내게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딱 한 스푼만 떠올려 보라 하면, 나는 오래도록 고민할 것이 뻔하다. 가장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다. 누구도 순갈의 종류를 규정짓지 않았음에도, 나는 한쪽 눈을 가릴 정도의 크기인, 본래 밥과 국을 떠먹던 그 순갈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이 지구의 굴레에서 버둥대는 새끼오리가 되어 이야기를 읽는다.

이 책은, 작은 이야기일 뿐이나, 서서히 나의 뇌수를 깃털로 가득 채운다. 바람에 솔솔 날리는 깃털 같은 이야기 속,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소년, 은결..... 나는 책을 읽던 어느 순간부터 그를 인간답다 말하고 있었다. 크림색 책을 든 양손은 소년이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인공심장이 펄떡대는 인류의 심장인지, 나의 빨간 심장이 실은, 온갖 회로로 구성된 기계 심장인지 알 수 없다. 천천히 심장의 존재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만큼 투명해져 간다. 소년이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다채롭다. 세탁소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는 시원한 바람결 같다. 주름진 온갖 지문으로 장식된, 두 팔 끝에 달린 물건으로, 소년의 뺨을 만진다. 나긋나긋, 부드럽다. 폴리 뽀시기로 시작하는 그런, 가공의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감정들을 담고 있다. 소년이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인공의 관념은 이미 휴지통 한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걸 쓰레기 처리반이 회수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세계는 여전히 편협이란 이름의 모순된 오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꽤넘치 않는다. 소년이 걸어가는 세상은 소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따뜻해진다. 체감온도와 같은 표면적 수치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책을 덮고, 은결아, 하고 너를 불러보는 그 행위가 내 주변의 공기를 좀 더 덥게 해 준다는 말이다.

어느 순간, 은결의 머리 위로 짧은 비웃음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 목적지는 은결이 아니다..... 나는,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와, 볼펜과, 그리고 저만치 꽃핀 한 권과, 무어가 다르단 말인가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을 알아가려 하는 중이었다. 알다, 알지 못하다. 알고 싶지만 알지 않는다. 알기 싫지만 알아야 한다..... 결국 이것들을 은결의 오래된 안구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인류의 일인 것이다. 순간 고개를 휙 돌린다. 문득 장밋빛 공명이 지잉하고 울릴 것 같다. 은결은 여전히 저만치 서 있다. 지금은 빨래바구니를 들고 있다. 그의 눈동자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웃고 있다. 여전히, 한 스푼의 시간은 끊이지 않고 흘러간다.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를 읽고-

함양여자중학교 3학년 박혜정

하얼빈 역에서 3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코리아 우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죽는 날까지도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힘썼다. 그는 안중근 의사이다. 이 책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대화 형식으로 자세히 서술한 책이다.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조금은 생소한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가치관, 인생 등을 알 수 있다.

처음 책을 읽는 순간부터 책을 놓는 순간까지 나는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홀로 재판정에서 일본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말했던 말들이 내 귓가에 선명히 들려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하는 중,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재판정에서 내쫓길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안중근 의사가 되었다면 과연 안중근 의사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나는 한 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기절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말했던 모든 말은 아름다웠다.

재판이 점점 끝나가자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각본대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너무나도 분통하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그건 일제의 억지였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일까? 재판의 기회는 총 2번 남아있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답답하게도 자신의 형에 수궁했고, 어떠한 변명 즉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는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편지를 읽는다면 꼭 손수건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안중근 의사를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아들에게 명시해주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허탈할 법도 한데 뽕순감옥 특수 감방에서 자서전 등의 책을 집필하셨다. 하지만 이 책은 일제가 정한 사형선고일 때문에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죽어서도 외로웠다. 왜냐하면 일제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곳이 항일운동의 성지가 될까 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곳을 비밀로 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을 빼앗기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국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조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며 우리가 안전하게 있기에 노력하신 많은 분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를 위해, 조국이 있기까지 홀로 싸웠던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자신 있게 설명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멀지 않은 인공지능 세상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 유 진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로봇에 관하여 ‘로봇=차가움, 냉철함’이 아닌 색다른 관점을 다룬 글을 읽고 싶어 서다. 평소에 로봇,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차가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런 생각이 한낱 편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의 주인공, 로봇 은결이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평소 되돌아보지 못한 주변 이웃의 평범한 삶의 모습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

“콩알만 한 지구도 태어난 지 45억년, 그에 비하면 사람의 인생은 고작 푸른 세제 한 스푼이 물에 녹는 시간에 불과하단다.” 인공지능 로봇인 은결에게 이 한마디는 인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마디이다.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로봇 은결은 8개월 전 낯선 나라에서 죽었다는 아들의 이름으로 배달되었다. 8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마저 떠나보내 적적하던 세탁소 주인 명정은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은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운영하는 세탁소를 드나드는 손님들을 구경하며 인간의 삶과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한다. 그 속에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까지도 어렵듯이 알게 되고, 세탁소의 여러 손님들과 명정에게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은결이 명정의 유언이 적힌 종이를 찢는 부분이었다. 평소 명정의 임무를 잘 수행하던 은결은 명정이 죽고 난 뒤 자신을 연구하게 될 학자에게 쓴 유언을 찢는다.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명정의 말을 잘 듣던 은결이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은결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낱알이 평가한 종이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는 불쾌함을 이해하게 되어 종이를 찢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한 스푼의 시간’에 등장하는 ‘은결’이라는 로봇이 실제로 내 옆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사실, 조금 섬뜩할 것 같다. 책에서 명정은 로봇을 바로 수용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의 작업을 덜어주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분명 좋은 면도 있지만 무한정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힘든 일은 로봇이 다 해결해 주고, 인간은 쉬운 일만 하면서 로봇의 보호 아래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면, 과연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평소에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결국 찾아오게 될 로봇의 시대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더 궁금해지기도 한다. 미래에 발명되는 로봇들이 은결처럼 인간의 삶에 소소한 따뜻함과 인정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를 읽고-

김해울하고등학교 1학년 김혜영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내가 슬슬 진로를 정하게 되면서 하게 되었다. 뭔가 나 같은 일반 학생과는 달라도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면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람은 어떤 거지? 이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나는 얼마 전까지 성공하는 비결이라 하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였다고 일컫는 사람들의 시작은 알고 보니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다. 처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점?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건이 전부 점이라니...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선이 되고 인생이 된다니!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스티브 잡스도, 마이클 조던도 처음 시작은 작고 사소한 실천과 도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한번 해봐!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준다. 사실 처음 책 제목을 봤을 때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라니... 요즘 세상에는 한번의 실수로 결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한번'이 작은 실천, 예를 들면 저자가 직접 해봤던 것처럼 아침에 15분 걷기라던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산책하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내 예상을 빗나가긴 했지만 내 생각보다 더 매력적인 책이었다. 운명을 바꾸는 '한번 하기'의 힘, 멋있지 않은가.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분명 많은데,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얼마 전 선배한테 SNS 친구신청을 걸었던 일인데, 누가 들으면 사소한 일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동아리 선배인 양언니(양을 많이 닮았다)와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내가 친구신청을 건 뒤에 선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그 뒤로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면서 급격하게 친해졌다. 물론 1학년인 나에게 언니의 대회 경험이나 1학년 시절 경험담, 공부법은 서점의 베스트셀러인 자기계발서나 친절하게 1등급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동아리원보다 더 많은 정보들도 알 수 있었다. (공부 방법 같은 고급 정보) 과연 내가 친구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선배와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내가 '무엇'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을, 그들의 인생 막바지에는 대단한 일을 했다. 저자는 일단



쉬운 일부터 해보라고 한다. 그것들이 먼 훗날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다. 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다. 그때도 이 책은 참 도움이 되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특히 ‘시작이 어렵다면 그들처럼 해라’에서 아, 처음이 어려우면 성공한 사람들의 점을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A, J, H, 유명인사들... 책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보며 아 저런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겠구나, 하면서 많은 일화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에서 나도 저자가 매일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했었다는 짧은 메모하기를 습관화해보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람이 커졌다. 책을 읽었던 당시 8월 10일 즈음부터 해보자고 결심했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먼 훗날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고작 한번이라는 인생의 점 하나하나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 중이다. 책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에서 읽은 후 ‘한번 해보자!’ 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저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운명을 바꾸는 ‘한번 하기.’ 그래, 한번 해보자.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

-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

창원용호고등학교 1학년 홍수민

방학을 맞이하여 이 책을 길잡이 삼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비슷한 시기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들이 전부 공감의 감이 갔다. 그래서 읽으면서 훨씬 집중하여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요약하자면, 우선 철학이라는 갈래에 맞게 주체성이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내용에 대해 본론을 말하기 전 앞부분에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하고 싶은 말의 주제를 먼저 드러낸다. 여러 명언을 통하여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또한 그 끝부분에는 여러 물음을 주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전과제를 통해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욕망도 연습해야 늘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정도 쌓아야 하고 자신의 콤플렉스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사람은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보거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처럼 자신의 성장계획을 세우는 등의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욕망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친구가 미워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나와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은 책 뒤편 성장노트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는데, '나의 반면교사들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좋지 않은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침묵을 배울 수 있고 까칠한 사람에게서는 친절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나의 모습도 발전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도 충고해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의 모습이 좋아지면 내 주위 사람들도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이 책이 나에게 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고 무작정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에 부딪치면서 의미 있는 과정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더라도 잘 실천하지 않고 틀린 것을 반복하는 것 같다. 이 책에 따르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삶을 처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내가 크게 느낀 것처럼 나의 삶에 대해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가며 삶을 잘 이끌어 간다면 잘못된 반복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체성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인격체로서 원하는 만큼의 욕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욕망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것이고 이 욕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17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나서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창원용호고등학교 1학년 성연수

이 책은 밤 풍경의 표지와 책 모퉁이의 ‘꿈을 찾는 철학 수업’이라는 글귀를 통해서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꿈을 꾸기 위해 왜 ‘욕망 연습’이 필요할까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칠까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나의 꿈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득바득하다 보면 사람들은 왜 달리고 있는지를 잊곤 합니다.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한 채로요.’ 레밍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목표도 없이 입시에만 매달린다.(레밍의 딜레마: 경쟁에만 몰입하다 파멸에 이르는 말; 핀란드 북부에 서식하는 레밍이라는 들쥐무리에서 앞쪽 무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뒤따르는 무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앞선 쥐들을 따라잡기 위해 계속 뛰다가 절벽에 도착해서야 끝난다는 질주) 나 역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레밍의 딜레마에 빠져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입시를 위해 공부한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삶이 부담스러워 스스로 자신감을 낮추고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아갔다. 또한 이유 없는 우울함에 빠져 힘들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찾았다. 바로 이 책에서 나는 나의 이용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고 그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무서웠다. 나는 항상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개성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다. 내가 한 말들로 혹시나 친구들의 심기를 건드려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나의 솔직한 마음도 항상 숨기고 다녔다. 나의 이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도 날 싫어하지 않도록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는 나를 구해주었다. ‘늘그막을 편안하게 보낼만한 여유를 만들기란 대한민국에서 결코 쉽지 않다’며 현실을 직시해주기도 하고 ‘인간관계는 항상 공사중’이라며 10대의 고충을 잘 나타내주었다. ‘1퍼센트 대 99퍼센트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격려해주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솔직하게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슬픈 현실을 담아낸 이 책을 읽고 나서 노력 없이는 꿈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것과 몇 십 년 후에 고등학생이 될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현실을 맞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입시에 힘들어하고 친구관계에 마음 졸이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나 또한 위로 받았다. 친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아닌 나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와의 경쟁이란 것을 잊지 않고 이 책이 나에게 가져다 준 꿈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오늘 하루도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스푼의 시간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남지고등학교 2학년 김 가 림

이 책을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제목보다도 ‘위저드 베이커리’와 연관 지어 ‘구병모’라는 작가를 연상할 것이다. 나도 이전에 ‘위저드 베이커리’를 읽어 보았기에 더 성숙되고 진지한 감정으로 변화된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 ‘구병모’ 작가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마을 선타크 주인인 명정에게는 어느 날 사고를 당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아들로부터 로봇 하나를 받는다. 일단은 겉모습이 꼭 사람처럼 생겨서 ‘은결’이라 이름 붙여주는데, 처음에 명정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은 로봇에 거리낌도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사람처럼 생겨서 로봇의 이용 가치만으로 사용해도 될지 등 많은 의문들이 있었다.

나도 처음 ‘은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겉모습을 지닌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까?’, ‘로봇은 단지 기계일 뿐인데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처럼 별 뜻 없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은결’은 샘플 로봇이었기 때문에 은결의 오류라고 하면 오류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동을 간혹 할 때가 있어 단지 기계라 보기에는 무리인 부분이 있었다. 명정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듯 간혹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 것은 기계의 오작동으로 여겼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준교의 생각은 달랐다. 준교는 지식의 일부에 ‘감정’이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삶은 유한한지라 명정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명정과 준교는 지식 장치를 삭제할지 여부부터 은결을 준교와 과학실의 연구를 위해 위임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다. 정말로 명정이 죽은 후 은결은 명정의 명령에 따라 명정이 준비해 놓은 계획대로 실행한다. 하지만 이 순간에 바로 그 간혹 발생하는 오류가 또 두 번이나 발생하는데 처음 한 번은 자신의 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열어본 것, 두 번째는 은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봉투째 찢어버린 것이다. 이는 처음 사람들과의 죽음을 접한 은결이 사람들이 흔히 쓰는 ‘무너진다’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명정의 편지를 읽고 자기도 모르게 반응한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나는 ‘로봇=기계’라고 생각하는 건 이때까지 은결이 명정에 한 행동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은결이 명정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은결의 그 당시 모습에서 또래였던 시호와 준교의 개인들의 슬픔을 인간도 아닌 인간 모습의 기계가 치유하는 것을 통해 ‘로봇’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고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간복제니, 미래에는 로봇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내놓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도 어쩌면 은결에게도 감정이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마음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은결이



떠나간 명정의 이부자리를 욕조에서 빨다가 물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나는 전에 준교가 재미로 로봇이 자살을 했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났다. ‘과연 은결도 자살이라는 것을 시도한 것일까?’ 라는 의문으로 은결이 깨어나길 기다렸는데, 은결은 준교와 시호의 빠른 조치로 깨어났고 이야기는 지체 없이 미래로 쭉 달려 나간다. 먼 미래 어느 순간 은결이 눈을 떴을 때 시호와 꼭 빼닮은 준교의 손녀가 있고 그 손녀 또한 은결을 자신의 친구처럼 여기고 준교처럼 은결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을 한다. 비로소 은결은 자신의 무한한 생명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짧은 인생을 경험했던 것이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그 우주 안의 작은 지구도 태어난 지 45억 년이나 되는데 그에 비하면 사람의 인생은 고작 푸른 세제 한 스푼이 물에 녹는 시간에 불과하다. 바로 이 한 스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한 스푼의 시간을 그 시간을 직접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과 그 시간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는 인간로봇의 관점을 교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구병모’ 작가는 사람이 아닌 존재의 관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소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로봇’이라는 존재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직간접적으로 미리 보여주어 인간들이 앞으로 가질 고뇌를 잘 다루어 주었기에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스푼의 시간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진영고등학교 2학년 이도현

구병모 작가의 장편소설 ‘한 스푼의 시간’은 후미진 작은 세탁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설레는 이야기이자 끝내 먹먹해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은 인공지능로봇 은결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지만 끝내 가슴이 먹먹해지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책이기에 자연스럽게 이 책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었다.

전체적인 작품의 줄거리는 후미진 동네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명정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아들의 회사로부터 온 택배를 받게 된다. 그 택배 안에는 인간의 모습을 똑 닮은 인공지능로봇 은결이 들어 있었다. 은결은 죽은 아들의 역할을 대신하며 명정의 일을 돕는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은결은 이웃주민인 시호와 준교, 세주의 일상에 녹아든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명정은 자신의 생을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은결을 준교에게 맡기며 눈을 감는다. 비록 은결은 인공지능로봇에 불과하지만 각자 아픔을 가진 아이들과 세주, 명정에게 위로를 건네며 소중한 존재가 되어간다.

이 소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조리함과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로와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소설이다. 예를 들어 시호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와 교육의 이익화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나는 시호의 모습이 곧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얼마 전 나는 tvn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한 유명강사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압축고도 성장으로 물질적 부를 이뤘지만 그 부작용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제도를 고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제도를 고쳐나간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부조리와 어두운 면에서 오는 각박함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이 소설에서 ‘인간다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인간다움’이 인간의 감정조차 철저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흉내 내는 인공지능로봇 은결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은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뀌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구병모 작가는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은결을 통해 더 이상 힘을 낼 수도 없이 지쳐버린 현대사회의 우리들에게 희망과 안정,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시간의 일부

-한 스펀의 시간을 읽고-

칠성중학교 3학년 전주은

인간은 항상 '시간'에 대해 고민한다. 오래 살 공리를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공리를 한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짧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 아파한다. 구병모 작가의 '한 스펀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바탕으로 로봇의 시간에 대해 말해준다. 이 글에 나오는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인 은결을 보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반면에 은결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식과 감정을 학습한다. 인간의 늙어가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매뉴얼과 다른 대처방법을 학습하고 감정의 정의를 깨우치려 한다.

가능한 한 계속 살 수 있는 로봇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간은 매우 짧다. 이 글에서 은결의 주인인 명정은 삶을 계란이라고 표현했다. '데어버리도록 뜨겁고 질척거리며 비릿한 데다, 별다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어느 곁에 손쉽게 부서져 버리는 그 무엇' 즉, 삶이란 짧고 위태로운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수없이 찾아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짧은 인생에서도 분노하고 사랑한다. 그런 인간의 삶과는 달리 로봇의 시간은 무한하다. 로봇에게는 '삶'이라는 시간관념이 없고 로봇에게 인간의 시간은 그저 흰 도화지에 찍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 스펀의 소중한 사람이, 한 스펀의 소중한 기억이, 한 스펀의 아픈 기억이, 한 스펀의 배움이 로봇인 은결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명정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정과 그 주위 사람들은 은결을 포맷시키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다. 비록 은결이 조금 고장 나긴 해도 나는 이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을 잊고 싶은데.....'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무언가를 잊고 싶다는 것은 매우 슬픈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이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런 역할의 소중한 기억을 잊는다는 것은 잊는 사람에게도 잊히는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다. 특히 은결의 시간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만이 채우고 있다. 은결의 기억이 지워진다는 것은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지워지는 것이다. 포맷을 하면 지식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 스펀, 한 스펀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시간들이 지워지는 것이다.

내 시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물론 나는 은결과 달리 나이가 있고 시계도 있다. 하지만 분명 내 시간도 그 저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의 시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 추억들과 배움의 순간, 울거나 웃고 화났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내 시간을 기억해 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나도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은결은 명정의 시간과 그의 주변에 있는 세주, 준경, 시호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그들과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린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시간의 일부가 되고 싶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내 시간에 보관하고 싶다.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이유는 친교를 위해서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이유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나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상을 살게 하고 싶다. 한 스펀, 한 스펀 만들어진 은결의 시간을 통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 스푼 속 수많은 감정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밀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 현 아

형형색색의 바다모래로 가득 찬 유리구두 한 짝이 놓인 책표지의 일러스트에 눈이 멈췄다. 뒤표지 ‘푸른 세제 한 스푼’ 문구를 보고서야 비로소 바다모래의 정체가 세탁 세제임을 알았다. 일상적이고 참신한 소재가 나의 눈과 손을 마구 두드렸다. 현재보다 앞선 첨단융합시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배경을 서술한 면에서 작가의 신선함이 드러났다. 처음엔 로봇이 지배적인 감정이 생겨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전개일 줄 알았다. 예상과 달리 세탁소의 평범한 일상을 로봇의 시점으로 전개하면서 내게 360도 그 이상의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마치 달동네 같은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혼자 운영하던 노인 명정은 사고로 죽은 아들의 유품인 소년로봇을 받는다. 명정은 로봇을 ‘은결’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둘째 자식처럼 대한다. 어느 날 인간이 조작한 인공지능로봇인 은결에게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유사한 이상증세가 나타난다. 은결이 욕실에서 죽은 명정의 이불빨래를 하다가 자살하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에서 충격이 적잖았다. 로봇이 정해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자살하는 시나리오에 나에게는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던져줬다.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은결은 더 이상 로봇이 아니란 걸. 그는 자신과 함께 살아온 동네 사람들 제각각의 감정이 담긴 색 알갱이에 의해 다색을 지닌 인간으로 재탄생되었지만 외로움이란 감정에 사로잡혀 명정이 보고 싶은 소망과, 인간이 성장하는 시간 속 어느 곳에 저 혼자 머무르듯 그대로인 자신의 신체가 미워져서 영원성을 깨부수려는 반항이진 않았을까.

작가, 등장인물들, 심지어 독자들까지 모두 남자로봇인 은결을 ‘그’ 혹은 ‘소년’으로 지칭했다. 이 단어들은 사전적 정의로 ‘사람’을 의미하듯이 첫 의도는 로봇이었지만 어느덧 자신들과 같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제 냄새가 감도는 책의 평온함이 로봇에 대한 나의 적개심을 씻겨냈다. 어쩌면 은결은 인간인 우리보다 더욱 인간다움을 가질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인간은 두려워했을 선택을 그는 망설임 없이 푸른 세제가 물에 스며들 듯 자연스레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로봇이라서가 아닌 인간 중 N분의 1처럼 살아 만족했다는 것처럼 말이다.

빨래하기 좋은 날 오후 두 시, 나는 빨래하기 위해 1점의 세제를 쏟아냈다. 흰 표백제 속에 숨어 있던 푸른 알갱이들이 한 소년의 심장박동처럼 아주 느리게 툭툭 떨어져 쌓여갔다. 나는 다시 한 번 책의 여운을 느껴본다. 세탁소 특유의 개운한 향내가 감싸는 먹먹함을.....



‘싸이퍼’를 읽고

-싸이퍼를 읽고-

거창여자중학교 1학년 김 연 우

이 책은 나에게 제목부터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힙합에 관심이 없던 나였기 때문이다. 사실 난 심지어 힙합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듯하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내가 힙합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탓에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얼핏 TV라든지 여러 매체 속에서 조금 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장신구들이 화려하니 약간 무섭고 안 좋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렇게 힙합에 대해 부정적이던 내가 이 책을 통해 많이 바뀌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웁’이다.

이 책은 주인공인 도건이 자신의 스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작에서부터 난 정말 한마디로 도건이의 스웁을 느꼈다. 사실 중간에서도 예를 들어, 제이제이에게 한수 가르쳐 준 것처럼 도건이의 스웁이 느껴진 부분은 많았다. 나는 이런 도건이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럽고 닮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스웁, 영어로는 swag, 사실 처음에는 ‘이게 잘난척하는 건가’며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다보니 스웁은 잘난 척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인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 말인즉슨, 자신감이 부족한 나에게는 없는 거라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남들이 다 잘한다는 것도 ‘내가 이것 잘하는 게 맞아’ 하고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아도 나의 실력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도건은 정반대였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힙합도 더 오랫동안 해왔던 정형 앞에서도 전혀 기가 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자신 있게 랩 가사를 썼다. 정말 신기하도 놀랍고 ‘아, 이런 게 스웁이구나. 스웁은 진짜 잘하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맘껏 보여주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스웁 넘치는 내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 그건 바로 내가 한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쓴 글 같은 것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나, 노래실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부르는 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 떠올려보고 나니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건 아니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준 덕에 힙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도건이의 힙합에 대한 태도였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것 느꼈지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도건이 엄마와 갈등할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힙합에 휴지 즉, 음절이 발음되지 않는 부분이 있듯이 엄마도 삶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해하게 된 부분이었다. 도건은 ‘얼마나 힙합이 좋았으면 실생활에 힙합이 물들었을까’ 싶어서 도건의 그 열정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또한 흥대에 자주 가서 힙합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시를 필사하고 늘 읽으며 어휘력을 높이는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모른다. 나는 아직 정확한 꿈이나 목표가 없는데 이렇게 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전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닮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요즈음 나의 고민이나 생각들을 한 번 생각해보게 해준 책이었다. 또한 힙합에 대한 나의 딱 막힌 생각에도 변화를 가져다 준 고마운 존재였다.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열일곱 살의 욕망 연습을 읽고-

마산삼진고등학교 1학년 박 상 우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나는 답을 구할 수 없는 고민을 한다. 한 달 후에 열릴 ‘꿈 발표대회’를 앞두고 참가 여부에 대한 용기와 두려움의 경계선에서 결심과 포기를 반복하며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마음 속으로 반추하던 말, 이젠 지쳐 명언의 출처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다. 왜 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작아지는 것일까?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본다. 친구는 그런 나를 ‘바보’라고 한다. 조언을 구하려다 오히려 나는 친구에게 역정을 내고 말았다. 과연 앞서 말한 나의 고민들이 바뀌지 않는 세상의 이론임을 깨닫고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아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열일곱 살들이 많을 것이다. 작가는 평범한 열일곱 살인 우리에게 다섯 가지 욕망 연습을 제시한다. 작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잠재되어있는 욕망을 깨워주었다. 이 책은 ‘평범함’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청소년들의 삶에 나침반이 되었으며, 열일곱 살인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연습은 ‘나를 찾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폴 발레리는 “의지를 갖고 그대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소심하게 눈치 보며 자신 있게 나서지 않는 내가 답답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 그로부터 오는 안도감을 누렸다. 작가는 인식을 전환하길 권유한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믿던 시기, 홀로 지구가 돈다고 외쳤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이다.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부’의 앵글이 ‘청빈’의 구도로 들어올 때, 그 앵글은 중심이 될 수 없다. 나의 앵글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다. 이 연습이 내게 가져다 준 욕망이다.

두 번째 연습은 ‘친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도화지들이 나의 작품이 될 수 없듯 친구 또한 그런 존재이다. 친구관계는 ‘이용가치’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이 친구를 ‘이용가치’로 여겨서 그런 것일까? 작가는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회’란 초원을 앞둔 열일곱 살에게 필요한 관계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평생 연습’이라 부르고 싶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무기력한 인생이 답답했다. 이 책을 만난 뒤, 이해할 수 없었던 이론들이 나만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로 다가왔고 비로소 고민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책을 읽게 되면 당신은 ‘가장 나다운 순간’을 발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삶의 모든 것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남지고등학교 1학년 설 나 경

나는 공상과학이나 SF류를 선호하지 않았다. 영화, 도서 등 많은 매체에서 이를 그려내고 있으며 현실에서도 어느덧 이따금 다가온 로봇, 인공지능 이러한 소재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이야기 속에는 로봇이 어떠한 오류로 인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결말을 다소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려워했던 것은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분명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하얀 배경에 푸른 계열의 심플한 표지가 왜인지 모를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한 스푼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예상하기 힘들었다. 내용을 유추하는 것을 떠나 제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저 분위기를 보아 평온한 생활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책의 페이지를 펼쳐나갔다. 비행기 사고로 아들을 잃고, 부인과 사별한 명정은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낸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아들 이름으로 큰 택배 하나가 배달된다. 그 택배는 다름 아닌 로봇이었다. 그는 로봇에게 둘째를 낳으면 지으려고 했던 ‘은결’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 후 이는 ‘은결’과 ‘명정’ 그리고 주변 인물들 ‘세주’, ‘준교’, ‘시호’의 이야기들이 얼키설키 뒤엉켜서 각별하고 애뜻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은 내용을 표시하면서 그 부분이 왜 인상 깊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43쪽에 ‘그리 오래지 않아 이런 장면에 익숙해지고 시들해지겠지만 당분간 즐길 거리 정도는 충분하다.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을 상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늘 같은 자리에 떨어져 심장에 구멍을 내던 물방울의 낙하 방향을 조금이나마 바꾸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가족들을 여의고 기댈 곳 없고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시골의 작은 세탁소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상황이 그에게 적지 않은 아픔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명정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114쪽을 보면 “죽음이 그렇다면, 또한 각별히 혜택 받은 삶이 그렇다면.” “그러면?” “보편적인 삶은, 아니 그냥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나는 멈칫했다. 과연 보편적인 삶이 무엇을 뜻할까? 끝없이 질문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과연 인생에 ‘보편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이제껏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사람들은 각자의 다른 삶 속에서 다른 일들을 마주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의 삶은 모두 특별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럼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 후 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사건 사고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표로 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은결이가 말하는 ‘보편적인 삶’이 아닐까?



135쪽을 보면 ‘은결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며 취침모드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편 취침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돌아올 곳이 여기라는 당부 또한 잊거나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것처럼 사소한 변화들이 지금 단지 연산의 오류의 누적으로 인한 일종의 증상이나 일시적 현상 같은 거라면, 언젠가는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변화 또한 찾아올지 모른다.’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진 즉, 점점 사람화 되어가는 은결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은결이 그간의 세탁소, 아이들, 명정과 함께했던 추억을 잊고 떠나가 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저 인간처럼 되어 이질감 없이 인간세상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전까지의 생각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찰나였다. 하지만 내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은결의 인간다움은 커져갔고 그것을 확실히 느꼈던 구절이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69쪽에 은결의 말이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인물이 대략 21인이나 등장하고 약간의 생략된 맥락들이 있어서 모든 조각을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만은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냈고, 부자유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할 줄 알면서 동시에 다른 손님들의 권리를 소홀히 다루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소극적인 형태라고 하겠으나 불의에 저항하기를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선의가 항상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에 당신은 부당한 곤경에 처했고 이제 비로소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은결이가 시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선의가 항상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에’ 라는 말이 정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보통의 데이터는 ‘권선징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등의 객관적인 의견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항상 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요즘은 선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기적 세상 속에서 홀로 바보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노력이 진리가 아니며 언제나 예외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배운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느끼고 극복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조차 없는 로봇, 은결은 어떻게 객관적 데이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췌할 수 있었을까? 이는 은결이가 점점 ‘인간화’ 되어간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공상과학영화는 인간의 기술을 중점으로 전개되는 느낌이 있다. 이 또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책을 읽던 중 이런 나의 선입견을 꺾어버린 구절이 있다. 184쪽을 보면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을 조금 넘나 그렇다지. 그 우주 안에 콩알만 한 지구도 태어난 지 45억 년이나 되어 그에 비하면 사람의 인생은 고작 푸른 세제 한 스푼이 물에 녹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를 신중



하게 결정하고 나면 이미 녹아 없어져 있지.’ 이를 읽었을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껏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힘든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왔고 은결도 점점 ‘인간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상과학영화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 서술한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술, 능력이 아닌 각자의 한계와 단점을 가진 존재로 로봇인 은결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살았던 명정이었기에 은결을 단순 노동에 쓰이는 로봇이 아닌 인간처럼 대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뒤쪽에도 나타나있다. 196쪽을 보면 명정이 죽음을 앞두고 사색하는 부분인데, ‘그토록 사소한 일상을 통해 익히 경험해왔으면서, 고성능 컴퓨터가 탑재된 로봇이 언제까지나 곁에서 삶을 지탱해 주리라는 착각을 한때나마 하다니 시간의 칼날이 평등하게 그 목덜미를 향한다는 생각을 어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인간도 로봇도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는 대목이다.

명정이 죽은 후에는 소설이 먹먹해져 버린다. 216쪽, 명정의 장례식에서 명정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무너짐’을 느끼며 은결의 눈꺼풀이 감긴다. 이 부분은 소설 중 가장 아름답고도 먹먹했던 부분이다. 인간화되어가던 로봇의 최후는 ‘죽음’인 건가를 생각하면서 먹먹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과 로봇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닮아가며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226쪽부터 228쪽을 보면 주인이 마지막으로 덮었던 이불을 보며 지난 TV를 보던 날을 떠올리며 그 이불을 빼는 은결의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후에 물에 주저앉아 죽어갈 때는 이내 또 먹먹해졌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소재에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내용이 신선하다고는 느꼈지만 공감의 요소가 없어서 몰입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각자 인물들의 인생에 몰입하게 되고 멀게 느껴졌던 은결도 그들 삶에 녹아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어느새 인물이 울면 함께 울고 웃으면 함께 웃고 있었고 결국 아쉬운 한 장을 넘기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생에 대한 관점, 견해를 얻었고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과 비애를 느낄 수 있었으며 평소 멀리했던 로봇에 대한 선입견도 줄어들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이를 통해 ‘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인생에 욕심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은 세제 한 스푼이 물에 녹을 시간에 불과할 테니.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원전은 다름 아닌 ‘인간다움’이다.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는 읽고-

마산삼진중학교 2학년 정연우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라는 책은 안야스튀르처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다. 이 책은 이 작가님께서 처음으로 쓰신 청소년 소설로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문학 아카데미 신인상을 받은 책이다. 제목부터 흥미로워 보이고 내용도 정말 재미있었다. 이 책의 내용은 요하난 가족이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와, 과거시대를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

요하난 가족은 물리학 박사인 파울르스에게 시간여행자라는 사실을 들키고 만나. 박사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미래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던 때에, 요하난 가족을 만났던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서둘러 깊은 숲속에 있는 시간의 문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요하난이 버스에 숨니아베로를 놔두고 오는 바람에 요하난은 미래로 가지 못하고 내비게이션 갈릴레오와 함께 다른 시간의 문이 있는 베를린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박사는 숨니아베로를 훔치고 갈릴레오에 추격 장치를 달아 요하난을 뒤쫓아 자신이 베를린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차에 태우지만 요하난은 사실을 알고 도망을 치게 된다. 요하난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친구 메얼린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고 메얼린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박사는 계속 요하난을 따라온다. 요하난은 메얼린과 그의 동생, 아카샤와 함께 시간의 문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도움을 받고 결국 요하난은 무사히 엄마, 아빠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지금 현재시대에도 시간여행을 하러 온 미래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 책에서 보면 미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망가졌다고 나와 있다. 정말 미래에는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나라가 발전하여 경제개발에 힘을 써, 우리 생활이 더 편해지고 한결 나아질 줄만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나라와 지구가 발전을 하려면 자연이 점점 파괴될 것이다. 그럼 정말 저 깊은 미래에는 과연 지구가 존재할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까지 존재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인간이 개발하는 사회, 그것 때문에 동식물들은 더욱 아파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자연 파괴를 막으면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님들 덕일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래의 아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 책은 나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다. 요즘 학생들은 책을 멀리 하고 있지만, 이 책을 한번 읽는 것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



인간이 최고라고?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을 읽고-

수월중학교 2학년 이 지 우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정말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꽤나 멋지고 흥미로운 경험일 것이다. 원래도 동물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정말 딱 맞는 책이었다. 이 책은 수의사인 최종욱 씨가 쓰신 책인데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저자이신 최종욱 씨를 직접 만나 실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 책을 읽으니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편인데 유기견 또한 많이 있는 편이다. 그런 유기견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길가를 떠돌다가 온갖 병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으면 유기견 센터에 가서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분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최종욱 씨는 안락사 직전에 놓인 개들을 분양시키는 사업을 추진시켜서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정말 이럴 때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 같다. 반려동물들을 한낱 갖다 버려도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글쓴이가 동물원에서 일하던 중 동물원에 이상 징후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 때문이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에 얹혀산다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될 큰 문제인 것 같다. 동물들도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는 텀블러 사용하기와 일회용품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런 일상의 사소한 실천이라도 그것이 계속 모이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우유, 고기도 동물의 값진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고마움을 느끼며 먹어야 할 것 같다. 젖소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 인공수정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그런 정성과 노력을 거쳐 우리에게 온 것이다. 도축장에서 하루는 임신한 소가 다리를 다쳐 도축을 당하게 되었는데 도부들의 노력으로 송아지를 빼내고 도축을 하였다. 도부들은 단지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보다보면 동물은 어느 생명체보다 멋지고 본받을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인간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동물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다. 결코 동물들은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다. 모든 생물은 존엄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사람이기에 가능한 무언가가 있다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창원용호고등학교 1학년 이 은 지

얼마 전, 열심히 보던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책일까 궁금했었는데 마침 전에 재밌게 읽었던 ‘위저드 베이커리’의 저자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라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책을 꺼내 들었다. 이 책은 해외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사고로 죽으면서 그의 회사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인간형 로봇 ‘은결’과 세탁소 일을 하시는 아버지 ‘명정’이 함께 세탁소 일을 하면서 삶에 대해 배워가는 이야기이다.

‘은결’은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심리를 수치화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점점 인간의 심리를 닮아가게 된다. 감정을 주체적으로 느낄 수 없는 ‘은결’은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고 점차 로봇의 궤도에서 이탈해 사람처럼 생각하기 위한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실제로 인간이 겪고 있는 슬픈 생활사가 로봇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서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사고방식과 행동은 인간을 닮아가지만 절대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은결’의 세계. 그의 세계에도 ‘삶이 무너지는 것’은 존재한다. 각각 자기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잃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을 ‘은결’도 수치화된 정보이긴 하지만 느끼고 있었다.

나에게도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 내게는 동생과 나이가 같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다. 친 이모처럼 나에게 잘 해주시는 동네 이모네 아들인데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던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입맛이 없다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일주일 동안 요구르트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던 동생은 이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도 씩씩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1년 만에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지금은 즐겁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혹여나 소중한 생명의 여린 촛불이 꺼져 버릴까 안달복달하면서 왜 그 착한 아이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때 내 심정이 그랬다.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종료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힘든 항암치료를 견뎌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이 꼭 살이 데일만큼 뜨겁고 비릿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비릿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비릿한 것은 로봇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저 받아들이야 할 정보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인간은 받아들이는 능력만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알아차리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비릿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를 느끼고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사람답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 노력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비릿하고 씁쓸한 인생을 감싸줄 시원한 단비가 되어 테인 이들의 흉터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스푼의 시간

-한 스푼의 시간을 읽고-

경남항공고등학교 1학년 조 규 찬

하루하루 지루하고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의 별뿔별처럼 내 마음 속에 한 획을 그은 책을 만났다. 이 소설을 읽음으로써 ‘사람다움’의 매력과 나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동네 작은 세탁소의 주인인 명정에게 일어난 파란만장한 일들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명정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인 로봇 은결이 겪는 모든 순간들을 가슴에 잘 와 닿도록 그려내고 있다. 명정은 자신의 아들이 출장 길에 오르던 중 비행기가 통째로 실종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실종된 아들이 보낸 택배를 받게 된다. 바로 그 택배 속 주인공이 인공지능 로봇 은결이다. 명정은 그 로봇에게 ‘은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처럼 대해주기 시작한다. 그렇게 은결은 세탁소에서 생활하며 명정과 세탁소에 드르는 사람들, 어린 소녀 시호, 준교, 은결의 초기 세팅을 도와준 세주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감정에 관해 어렵듯이 알게 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명정이 은결에게 “콩알만 한 지구도 태어난 지 45억 년이나 되고, 그에 비하면 사람의 삶은 고작 푸른 세제 한 스푼이 녹는 시간에 불과하단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나면 이미 녹아 없어져 있지.” 라고 조언해준 부분이 고등학생인 내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아서 인상 깊었다. 그렇게 나날이 배워가며 은결이 성장해가던 도중 명정은 가슴통증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다.

책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죽어버려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명정은 죽기 전 은결을 대학교 연구소에 넘기겠다고 유서를 써 놓았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명정의 유서를 은결이 찢어버린 것이다. 로봇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 소설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은결이 유서를 찢었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자신을 어딘가에 연구용으로 쓰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더라도 유서를 찢어 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다. 내가 읽은 이 소설은 사람의 감정, 로봇의 모순된 행동 등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져 굉장히 몰입감 있었고, 한 스푼의 세제가 물에 사르르 녹듯이 빠져들 수 있어서 좋았다.

독서감상문 | 일반

경상남도교육감상
대상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장상
우수

- 098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 “공부할 권리”를 읽고
창원시 대원동 김명희
- 100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 - “숨결이 바람 될 때”를 읽고
양산시 동면 이진희
- 101 **인문학에 대한 설렘을 기억하는 나의 세포들을 위한 시간** - “공부할 권리”를 읽고
창원시 양덕동 김명숙
- 103 **우리의 아이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읽고
거제시 아주동 손윤정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공부할 권리를 읽고-

창원시 대원동 김명희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의 즐거움을 표현한 《논어》의 첫 문장이 떠오릅니다.

정여울 작가님이 쓴 《공부할 권리》의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였고,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도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일 때는 더욱 소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만 할 때는 무척 신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공부할 권리》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가슴이 쿵,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 놓쳐 버리고 있었던 부분을 내공 깊은 사람이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실타래를 풀 듯 술술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수많은 책을 읽으셨고, 그 책을 통해 자신이 발견한 책 속의 숨은 의미들을 조곤조곤 해석해 놓았습니다. 해석해 놓은 내용을 읽으며 깊은 공감을 하는 사이 저도 모르게 책 속으로 풍덩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투성이 소녀 「신데렐라」를 읽을 때는 신데렐라와 내 안에 울고 있는 재투성이인 제가 살짝 겹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조차도 그 참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의 알곳은 운명이 저와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혹시 내게 주어진 숨은 운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투성이가 아닐까? 풍부한 재능과 소질을 타고 났는데도 환경이 좋지 않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말처럼 신데렐라는 제게 없는 보물이나 생명수를 찾아 멀리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잿더미에 묻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운명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 없이 ‘용기’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용기를 내지 못해 솔직해질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아직도 제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때 용기를 냈다면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일까요.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작은 용기가 삶을 바꾸는 순간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또,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멋진 공상의 시간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도약의 기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저의 잠재된 창의성이 만개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읽고 작가님의 의미 발견과 해안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각 주제에 어울리는 책



을 소개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해석한 내용들을 곱씹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알 듯 말 듯한 수수께끼 같은 인간과 삶에 대한 해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드나들며 책들을 통해서 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얻기도 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법도 배우고, 자신을 아는 것이 결국 사람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란 걸 조금 알았습니다. “공부 할 권리”의 책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작가님을 부추겼듯이 저도 공부함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공부의 뜻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한자사전에는 ‘학문이나 기술을 닦는 일’이라 했고, 국어사전에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 뜻풀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들어 있는 참 뜻은 지성이나 교양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식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해야 함을 강조한 말인 듯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완성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란, 이렇게 우리의 삶과 떼어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가기 때문이죠. 이 책은 하루하루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무언가를 찾고, 또 무언가에 쫓기면서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작가님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책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

-숨결이 바람 될 때를 읽고-

양산시 동면 이진희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시 구절처럼 여운이 있고, 숨결과 바람이라는 단어가 만나 묘한 감동을 주었다. 책에 대한 첫 인상은 그랬다. 스치듯 보던 책을 다시 집어 들게 된 건 유명세 때문이었다.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책을 찾아볼 수 있었고, 방송이나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시 책을 펴고, 한 장씩 넘기던 책장이 마지막 장인 줄도 모른 채 읽었다.

암에 걸린 30대 의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설사 그것이 전부라 해도 그가 주는 메시지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만큼이나 광활하고 깊다. 폴 칼라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신경외과 7년차 레지던트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종종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곧 펼쳐질 탄탄대로 앞에 행복을 함께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폐암 말기에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의 삶은 조금씩 바뀌게 된다.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지금껏 쌓아온 공든 탑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늘 해오던 일상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되는 슬프지만 받아들이야 하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폴은 마지막 순간에 닿을 때까지 환자를 돌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아이를 갖고, 책을 쓰며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지켜낸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온 일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그것이 죽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나 또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 삶이 끝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언제나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있었고, 결국엔 일상의 어떤 부분과도 맞닿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늘 삶 속에 있고,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울하고, 무섭고, 막연하기 마련이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이었기에 이 책에 대한 짧은 글을 보고는 죽음을 떠올렸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폴이라는 인간이 건네는 담담한 이야기에 일기를 읽는 것처럼 편안하다가, 폴이라는 의사가 건네는 한 마디에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다가도, 폴이라는 환자의 진심어린 고백에 갑자기 슬픔이 밀려들어 숨을 골라야만 했다. 폴 또한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 놀라고, 화나고, 슬프고, 원망하고... 많은 감정들이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겹쳐히 받아들이는 태도로 암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통찰력으로 말을 건넨다. 우리는 죽으리라는 걸 이미 전부터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이라고, 계속 살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 책은 폴의 아내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극적으로라도 조금 더 머물러주길 바랐던 폴이 끝내 책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탓인지 책장을 닫는 손길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처럼 무거웠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고, 늘 곁에 있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다.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해야 할 일들에 지금 원하는 것쯤은 중요하지 않다고 넘겨버릴 때도 많다. 아마 여전히 삶 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삶이 끝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의 통로일지도 모르겠다. 삶이 이어지다가 죽음에 닿고, 죽음이 이어지다가 다시 삶에 닿기도 하는 그런 통로 말이다. 그게 아니라도 지금의 삶이 언젠가 죽음이라는 곳에 닿더라도 후회 없도록, 내 숨결이 누군가의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의미 있도록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다.



인문학에 대한 설렘을 기억하는 나의 세포들을 위한 시간

-공부할 권리를 읽고-

창원시 양덕동 김명숙

어느덧 내 삶은 자신보다 아이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 고백이라는 반성적 단어를 쓰는 것은 내 부모님에게 나 또한 당당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 ‘아이’였으나 스스로가 내 삶보다 아이들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돌보는 집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공부할 권리라는 책을 만난 것도 아이들의 선정도서를 대여하러 갔다가 허탕 치게 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일반부 선정도서라도 빌려야겠다는 오기 때문이었다.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선언이라는 부제를 단 공부할 권리는 썩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내일의 피곤함이 두려워 허겁지겁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만성피로를 안고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건조하고 팍팍한 생활인이 된 나에게 공부할 권리라니, 더구나 시집이나 자기계발서도 아닌 인문학이라니.

나에게 인문학은 신화, 철학, 문학, 정의, 가치로움, 인간다움, 아름다움 등 몹시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가득 머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다. 그러나 그 구름은 늘 사그라지지 않고 머리 위에 떠다니며 문득문득 올려다보게 한다. 아마도 이 책을 읽어 낸 것은 인문학에 대한 어린 시절의 동경과 설렘을 기억하는 세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음이 설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더불어 마음도 뻣뻣해져 이해의 폭이 좁아질 때 서글픔을 느낄 때가 있었다. 작가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해 우리의 의식을 스트레칭하여 무의식의 근육을 이완시키라고 한다. 수렴적 사고가 우리 생각의 물꼬를 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추기라고 조언한다.

책을 읽다보면 인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깊이 공부하고 고민한 이의 시선,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즘을 얻게 된다. 기억에 남는 것이 신데렐라를 보는 프리즘이다. 나는 늘 신데렐라의 여성성은 수동적이라고 보았다. 현실의 초라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랑을 얻었다기보다 마법의 힘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서야 왕자의 마음을 얻었다. 어디에도 불굴의 투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신데렐라를 재벌가와 결혼에 성공한 야심녀로 이해하면 곤란하지요. 신데렐라는 내게 없는 보물이나 생명수를 찾아 멀리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잿더미에 파묻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운명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역경을 딛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멋진 꿈을 되찾는 동화속의 주인공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만이 진짜 끝이라고, 그 끝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작가는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여성상을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한 여성비하고 여성과 남



성을 규정짓는 이분법적 사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데렐라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도록 안내해준다. 작가로부터 새로운 프리즘을 건네받은 순간이었다. 작가의 시선이 참 따뜻하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번에는 작가가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아는 훌륭한 스토리텔러라고 소개하고 싶다. 어린 시절 장황한 전쟁이야기에 끝까지 읽어내지 못한 ‘일리아드’ 이야기를 영화보다 더 감동적으로 들려준다.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창을 든 아킬레우스, 아들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홀로 적진으로 뛰어든 프리아모스, 사랑하는 조국과 트로이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헥토르, 각자의 나라와 저마다의 가족들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고대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듣던 옛이야기만 큼이나 흥미로웠다.

기원전 5C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통해 여러 가지 선택에 맞닥뜨린 인간의 선택 유형을 여러 권리와 연결 지어 나열해준다. 죽은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권리를 선택하고 행복할 권리, 살아남을 권리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안티고네, 아버지 크레온의 독단에 항거하듯 목숨을 끊은 하이몬,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선택한 에우리디케를 만날 수 있다. 가녀린 소녀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를 지킴으로써 독재자의 철통같은 권력을 뒤흔들었다는 해석은 고난의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에게 숙연함을 준다.

작가는 스스로 ‘어린 나뭇잎처럼 연약해지고’, ‘상처받아서’ 세심하고 예민해진 촉수로 현실에 안주할 권리, 체념할 권리 대신 공부할 권리를 가지라고 한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의 설움을 이해하려는 그 공감의지 속에서 인문학이 탄생한다고, 그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직조하고 싶다는 작가의 인문학 감수성에 동화되어 나도 그 직조에 동참하고 싶어졌다.

책을 덮고서도 쉬이 가시지 않는 여운을 느끼며 작가가 여행가이드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일전에 보고도 별 감흥 없이 지나쳤던 들꽃과 숨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가치를 일러주는 아직 주류화 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오지의 비경을 찾아다니는 가이드 말이다. 이제 조심해야 한다. 여행에서 돌아와 숨을 돌리는 사이 가이드의 멋진 해설과 가슴 뛰었던 감동도 열정도 금방 희미해질 터이다. 빠르게 메모하며 다시 읽어야지 했던 책 목록을 들고 지금 바로 도서관으로 가야겠다.



우리의 아이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를 읽고-

거제시 아주동 손 윤 정

미국의 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으로 기록되는 1999년 13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를 낸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사건의 가해자 두 명 중 한 명인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인 수 클리볼드! 이 책은 가해자의 엄마인 수의 자기 진술서이다. 수 클리볼드의 아들인 딜런은 총격 후 현장에서 바로 자살했다. 수는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지역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던 평범한 엄마였다. 두 아이에게 늘 약자에 대한 관심과 관용, 포용을 강조했고, 딜런은 학대와 방치를 당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수는 좋은 엄마라고 자처했지만 아이의 우울과 자살충동 징후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아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처절하게 자책한다. 우리에게 아이들의 얼굴 너머에 있는 것을 더욱 민감하게 알아보고, 도움을 주라고 수는 얘기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부모, 교사, 친구들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아이들도 딜런처럼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자의 말이 불편하게 들리지만 요즘 전국 각지의 중학생들의 연이은 살인에 가까운 폭행사건들과 인천초등학생 살해사건 등 청소년들의 날로 흉폭해져 가는 범죄들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 보고, 내 아이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로에 섰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모,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좋은 부모는 부모만의 역량으로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 문제가 불거지면 늘 나오는 얘기가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등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과 함께 밥상머리 교육하고, 놀아주고, 숙제를 봐주어야 하는 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강도 높은 노동, 독박 육아, 퇴근 후 다시 시작되는 여성들의 제2의 출근(가사 및 육아)은 아이와 함께 하기보단 스트레스와 힘듦을 나보다 나약한 아이들에게 풀기 일쑤인 상황을 빚어낸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의 등짝을 후려치고는 흘쩍이며 잠든 아이를 안고 미안함에 울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내안의 광기를 만나게 된다. 물론 눈치 보이는 정시간 퇴근, 승진 포기, 베이비시터 고용, 가사도우미 활용, 외식과 단골 반찬가게 만들기 등 아이의 눈을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시간 엄수, 양성평등, 남편과 아내의 공동가사 및 육아 등 우리 사회가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인천초등학교 살해 가해 청소년, 중학생 집단폭행 청소년 등 가해자 아이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의 아들은 2명이었다. 가해자인 딜런과 그의 형이 있다.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다르게 자란다.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부모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해야만이 가뜩이나 많이 낳지도 않는 아이들을 제 명대로 살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아이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자면 “도덕성, 공감, 윤리, 이런 건 한 번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깃들여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이제껏 피해자의 입장에서 책이 주로 나왔으나 가해자의 가족이 겪는 상처와 고난에 대해서 다룬 책은 없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악마가 되어버린 아들을 (현장에서 자살을 해서 충기난사 사건의 이유에 대해 한마디 들어볼 수 없었던) 이해하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16년 넘게 해온 그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17. 제13회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감상화 부문
독서신문 부문
독서만화 부문
북트레일러 부문

독서감상화 부문 / 초등



경상남도
교육감상
대상



커럼포의 왕 로보

선정도서 『커럼포의 왕 로보』

미리벌초등학교 3학년 박소현



과묵한 친구와 부끄러움 많은 친구

선정도서 『대단한 단추들』

반송초등학교 6학년 김가경

경상남도
교육감상
최우수



외롭지 않은 하루

선정도서 『혼자가 아닌 날』

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김소울



꽃감

선정도서 『바람의 맛』

용호초등학교 2학년 정해린



튼튼해진 아빠나무

선정도서 『아빠나무』

산청초등학교 2학년 조희찬



우리 땅, 우리 땀, 우리 쌀과 함께

선정도서 『바람의 맛』

대우초등학교 4학년 이시후



할아버지와 추억

선정도서 『하룻밤』

가고파초등학교 2학년 유채원



감 따는 아저씨들

선정도서 『바람의 맛』

밀양초등학교 4학년 김가연

독서감상화

부문 / 초등



경상남도
교육감상
최우수



돈의 의미

선정도서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가고파초등학교 4학년 박가연



햇볕, 시간, 정성이 만든 행복

선정도서 『바람의 맛』

제산초등학교 4학년 김보빈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

선정도서 『감기 걸린 물고기』

가야초등학교 1학년 하승범



할아버지의 몸에서 초록빛 추억이 빛이나요

선정도서 『하룻밤』

대우초등학교 2학년 김세현



비닐지갑을 만드는 여인들

선정도서 『비닐봉지 하나가』

김해신명초등학교 3학년 방시윤



산딸기 크림봉봉

선정도서 『산딸기 크림봉봉』

계창초등학교 3학년 권보민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늘 내 곁에 있는 아빠
선정도서 『아빠나무』
증산초등학교 1학년 곽민서



보고 싶은 아빠
선정도서 『아빠나무』
호암초등학교 1학년 백송윤



지구를 살리는 비닐봉지
선정도서 『비닐봉지 하나가』
삼정자초등학교 2학년 남찬희



아빠나무를 읽고
선정도서 『아빠나무』
삼계초등학교 3학년 최서아



행복한 늑대
선정도서 『행복한 늑대』
화개초등학교 1학년 이시원



거짓말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선정도서 『거짓말』
통영초등학교 3학년 박정연

독서감상화

부문 / 초등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감기 걸린 물고기

선정도서 『감기 걸린 물고기』

밀양초등학교 2학년 김준환



아모세

선정도서 『도둑왕 아모세』

반송초등학교 5학년 김가령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선정도서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거제중앙초등학교 6학년 윤서현



바늘과 실, 단추들의 앙상블

선정도서 『대단한 단추들』

대우초등학교 6학년 신유신



대화가 필요해

선정도서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대우초등학교 4학년 우시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문선초등학교 6학년 서지민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503호 열차

선정도서 『503호 열차』

용호초등학교 6학년 이준서



상상 속의 나무친구

선정도서 『아빠나무』

호암초등학교 4학년 하나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열차!! 하지만 희망은 멈추지 않는다

선정도서 『503호 열차』

양산초등학교 6학년 조현수



분홍 문의 기적이 일어났다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삼성초등학교 5학년 하승현



선물 같은 시간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밀양초등학교 4학년 엄규린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가고파초등학교 4학년 권서연

독서감상화 부문 / 청소년

경상남도
교육감상
대상



영원 중의 순간

선정도서 『한 스푼의 시간』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원해민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동네프리스타일 타운의 그들

선정도서 『싸이퍼』

울하중학교 2학년 김은총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화내는 엄마

선정도서 『이런 법이 어딴어?』

창원상남중학교 2학년 김석훈



안중근의 가족사진

선정도서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옥포중학교 3학년 조하늘



파울루스 박사의 추격

선정도서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마산제일여자중학교 2학년 한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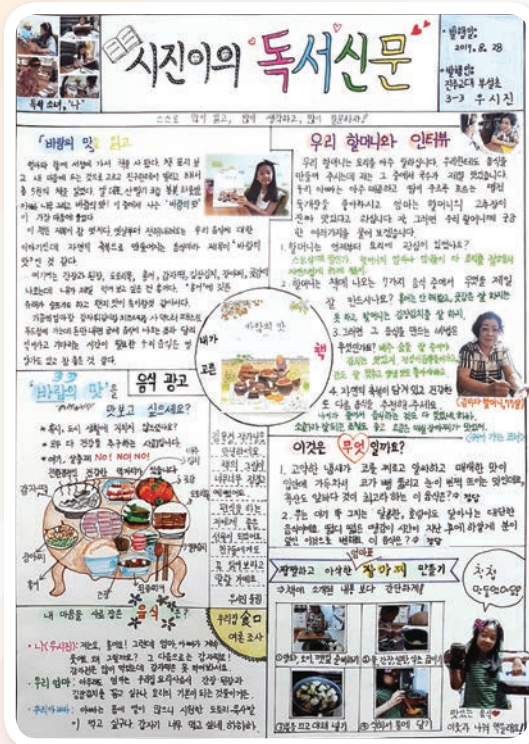
기억하고 잊지 말자

선정도서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진주남중학교 2학년 김성준

독서신문 부문 / 초등

경상남도
교육감상
대상



시진이의 독서신문
선정도서 「바람의 맛」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학년 우시진



내 생애 처음, 책으로 감동을 느꼈다
선정도서 「대단한 단추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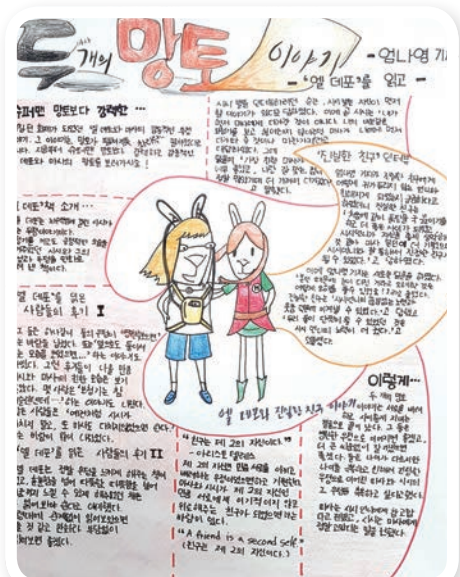
가고파초등학교 5학년 김동우

경상남도
교육감상
최우수



1회용 비닐봉지 이제 그만!
선정도서 「비닐봉지 하나가」

사천초등학교 2학년 장보민



두 개의 망토이야기
선정도서 「엘 데포」

대운초등학교 5학년 엄나영

독서신문

부문 /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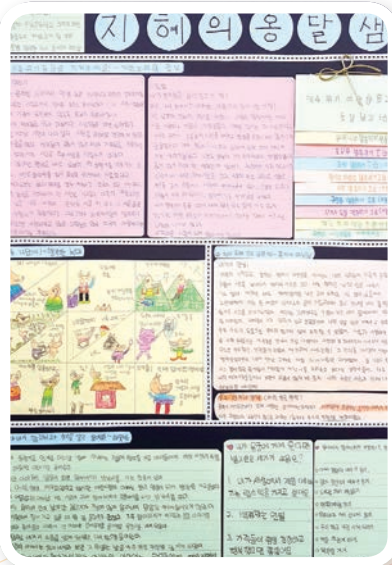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마음으로 보는 신문
선정도서 『눈을 감아 보렴!』
수남초등학교 3학년 문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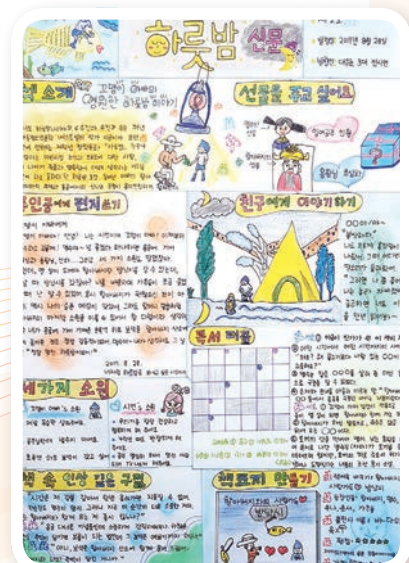
환경을 살리자!
선정도서 『비닐봉지 하나가』
안골포초등학교 3학년 이소영



지혜의 용달샘
선정도서 『커림포의 왕 로보』 외
수남초등학교 3학년 추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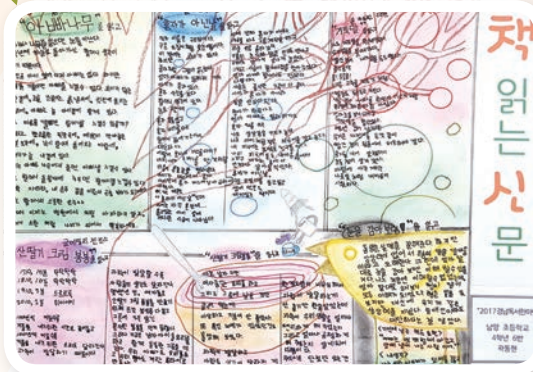


책 읽는 아이들
선정도서 『엘 데포』 외
벽방초등학교 3학년 유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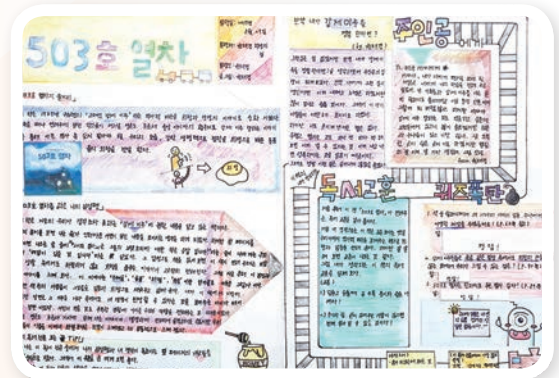


하룻밤 신문
선정도서 『하룻밤』
대우초등학교 3학년 전시연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책 읽는 신문
선정도서 「아빠나무」의
남양초등학교 4학년 곽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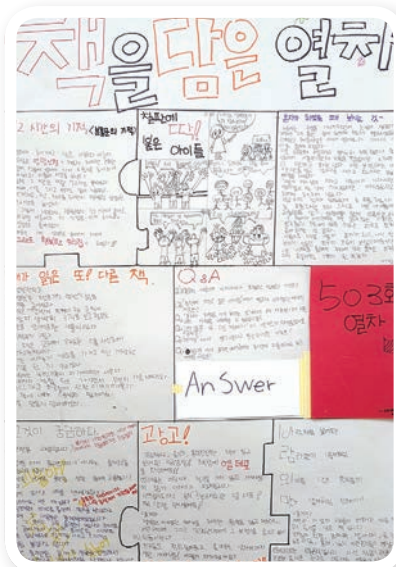
503호 열차로 Go Go
선정도서 「503호 열차」
호암초등학교 5학년 권태경



여럿이서 느끼는 '행복'
선정도서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석산초등학교 6학년 이수련



독서신문
선정도서 「바람의 맛」
정촌초등학교 5학년 김은희



책을 담은 열차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억」의
진영대창초등학교 6학년 손아연

경상남도
교육감상
대상

독서만화 부문 / 초등



거짓말 거미줄
선정도서 「거짓말」

호암초등학교 1학년 권동근



서로의 오해는 쌓일수록 커진다
선정도서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장복초등학교 6학년 김태희

경상남도
교육감상
최우수



눈을 감으면 느껴져!

선정도서 「눈을 감아 보렴」

반송초등학교 3학년 김에서



걱정마, 엄마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호암초등학교 5학년 진민경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감기 걸린 축구선수들

선정도서 「감기 걸린 물고기」

수남초등학교 3학년 김나원



아빠, 사랑해요

선정도서 「아빠나무」

신안초등학교 3학년 김소정



거짓말 빨간불

선정도서 「거짓말」

호암초등학교 3학년 김윤슬



나와 또 다른 생각

선정도서 「눈을 감아 보렴」

의령초등학교 3학년 황소연



감기 걸린 물고기

선정도서 「감기 걸린 물고기」

삼릉초등학교 2학년 한동권

독서만화 부문 / 초등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비닐봉지 재활용 방법

선정도서 『비닐봉지 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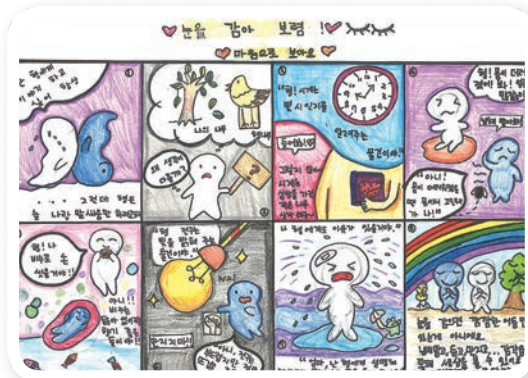
신양초등학교 2학년 신아윤



칠판에 붙은 친구들

선정도서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화정초등학교 3학년 이나연



마음으로 보아요

선정도서 『눈을 감아 보렴!』

월영초등학교 2학년 조민혜



행복을 주는 늑대

선정도서 『행복한 늑대』

삼정자초등학교 3학년 오지우



산딸기 크림붕붕 레시피

선정도서 『산딸기 크림붕붕』

호암초등학교 3학년 이건호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역경 속의 희망, 씨앗 주머니
선정도서 『503호 열차』
초전초등학교 5학년 김보민



힘들 땐 마음을 나뉘요
선정도서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양덕초등학교 6학년 박현진



그래도 행복한 우리 집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가야초등학교 6학년 송가온



명탐정 아모세 군단(아모세와 친구들)
선정도서 『도둑왕 아모세』
진목초등학교 4학년 박용성



내 자리는 여기야
선정도서 『대단한 단추들』
신양초등학교 5학년 박소민

독서만화

부문 / 초등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분홍 문의 기적

선정도서 「분홍 문의 기적」

용남초등학교 6학년 최문정



진실한 친구 찾기

선정도서 「엘 데포」

신안초등학교 4학년 이영서



바람의 선물, 우리 음식

선정도서 「바람의 맛」

대우초등학교 6학년 임채원



혼자가 아니야!

선정도서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월성초등학교 4학년 서정빈



할머니의 손맛이 편의점도시락으로 탄생!

선정도서 「바람의 맛」

김해삼성초등학교 6학년 박도연

독서만화 부문 / 청소년

경상남도
교육감상
대상



요하난의 만화일기

선정도서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함양여자중학교 3학년 김하늘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2·14 그날은

선정도서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호계중학교 1학년 서민기

북트레일러 부문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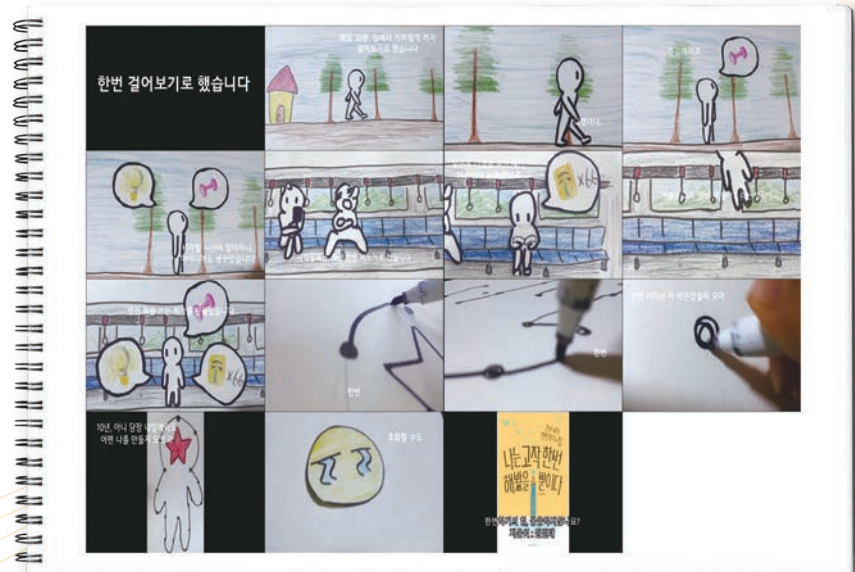
경상남도
교육감상
대상



사이퍼 선정도서 「사이퍼」

진주남중학교 2학년 신기원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협의회장상
우수



점 선정도서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칠성중학교 2학년 황수현



2017. 제13회 경남독서한마당 운영 결과

1. 목적: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및 도민독서운동 확립

2. 운영 기간: 2017. 1월 ~ 12월

3. 추진 개요

업무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남독서한마당 도서 추천 의뢰												
도서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알림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경남독서한마당 독서진흥행사 운영												
경남독서한마당 독서공모전 실시												
독서공모전 작품 집계 및 심사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 전시회 개최												
경남독서한마당 만족도 조사 실시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발간												

4. 운영 내용

가. 독서 공모전

- 1) 공모 부문: 독서감상문, 독서감상화, 독서신문, 독서만화, 북트레일러
- 2) 공모 기간: 2017. 8. 22.(화) ~ 9. 22.(금)
- 3) 접수 현황: 37,357편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독서감상문	3,994	5,655	9,649	2,101	96	11,846
독서감상화	11,871	7,938	19,809	419		20,228
독서신문	346	1,119	1,465			1,465
독서만화	1,385	2,276	3,661	95		3,756
북트레일러				62		62
계	17,596	16,988	34,584	2,677	96	37,357

4) 심사 결과

- 종합상: 148명(가고파초등학교 3학년 강서윤 등)
- 지역상: 418명(아주초등학교 1학년 이승우 등)
- 단체상: 10개 기관(호암초등학교 등 10개 기관)
- 지도교사상: 2명(가고파초등학교 등 2개교 - 학교장 추천)



나. 전년도 경남독서한마당 순회 전시

- 1) 운영 기간: 2017. 4. 18.(화) ~ 11. 17.(금)
- 2) 운영 기관: 칠원초등학교 등 30개교, 진동도서관 등 7개관
- 3) 참여 인원: 37회 16,686명



안골포초등학교



거제고현중학교



의령도서관

다. 작가와의 만남

- 1) 운영 기간: 2017. 5. 18.(목) ~ 5. 31.(금)
- 2) 운영 기관: 구남중학교 등 15개 학교, 김해도서관 등 5개 도서관
- 3) 파견 작가: 이금이 작가 외 15명(2017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작가)
- 4) 참여 인원: 20회 2,415명



대암초등학교
(박경섭 작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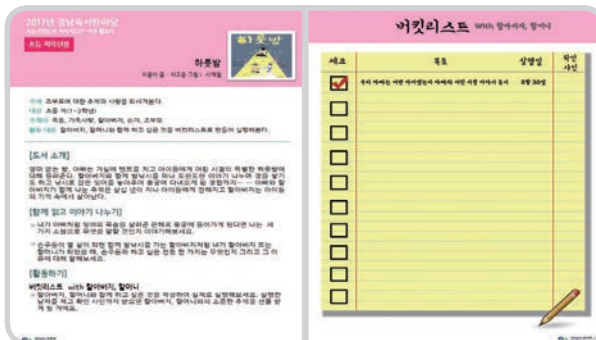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김홍식 작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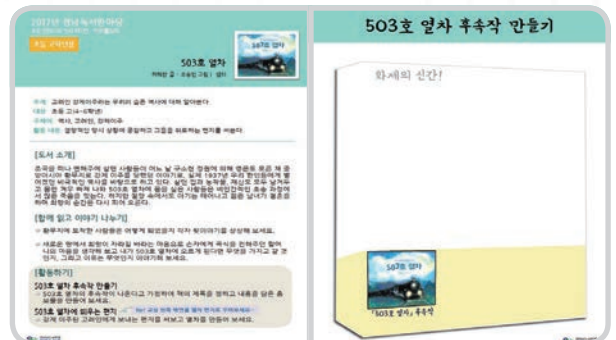
김해도서관
(김민태 작가와의 만남)

라. 책놀이 활동지 배포

- 2017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활용 책놀이 활동지 10종 개발(초등 부문)
- 창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마. 2017.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발간 2017. 12월



2017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제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사계절	그림책(소문, 따돌림)
2	거짓말	카트린 그리브	씨드북	그림책(걱정, 용기)
3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κρι바	한울림스페셜	그림책(장애)
4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길벗어린이	그림책(환경)
5	산딸기 크림붕붕	에밀리 젠킨스	씨드북	그림책(시대, 문화)
6	아빠나무	김미영	고래벳속	그림책(죽음, 가족)
7	커럼포의 왕 로보	윌리엄 그릴	찰리북	동화(동물보호)
8	하룻밤	이금이	사계절	동화(가족)
9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별	동화(차이, 개성)
10	혼자가 아닌 날	구오징	미디어창비	동화(외로움, 위로)
초등 고학년 (4~6학년)				
1	503호 열차	허혜란	샘터	동화(역사, 희망)
2	대단한 단추들	이정록	한겨레아이들	동화(성장)
3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창비	동화(모험, 용기)
4	바람의 맛	김유경	이야기꽃	그림책(문화, 전통)
5	분홍문의 기적	강정연	비룡소	동화(가족)
6	아름다운 아이 줄리안 이야기	R. 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동화(갈등, 관계)
7	엘 데포	시시 벨	밝은미래	동화(장애, 성장)
8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동화(경제)
9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최은옥	비룡소	동화(소통)
10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	남찬숙	미세기	동화(친구관계)
청소년 (중학생)				
1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안야 슈튀르처	푸른숲주니어	소설(환경)
2	싸이퍼	탁경은	사계절	소설(꿈, 성장)
3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최종욱	창비	비소설(공생, 생명존중)
4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김홍식	서해문집	비소설(역사)
5	이런 법이 어딤?	니콜라 린트너	탐	비소설(법, 사회)
청소년 (고등학생)				
1	그린잡	박경화	양철북	비소설(직업, 환경)
2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위즈덤하우스	비소설(자기계발)
3	열일곱 살의 욕망연습	안광복	사계절	비소설(꿈, 주체성)
4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시공사	비소설(과학)
5	한 스푼의 시간	구병모	예담	소설(삶, 인간다움)
일 반				
1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 유규오	후마니타스	비소설(사회, 민주주의)
2	거짓말이다	김탁환	북스피어	소설(재난)
3	공부할 권리	정여울	민음사	비소설(인문)
4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	알키	에세이(가족관계)
5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	반비	에세이(폭력성, 인간심리)
6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문학동네	그림책(삶, 이웃)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교양인문(인류, 역사)
8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권정생	양철북	에세이(우정)
9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에세이(죽음, 인생)
10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서해문집	비소설(예술)



2005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평	이오덕	효리원
2	엄마는 거짓말쟁이	김리리	다림
3	심청가	이현순	초방책방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문제아	박기범	창비
2	작은 씨앗이 꾸는 꿈, 숲	이성아	푸른나무
3	(초등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알쏭달쏭 직업이야기 51	김한준	을파소
청소년 (중학생)			
1	지붕 낮은 집	임정진	푸른숲
2	나비에 사로잡히다	샤먼 앳 러셀	북폴리오
3	마사이전사 레마솔라이	조지프 레마솔라이 레쿠톤	황소자리
청소년 (고등학생)			
1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조항범	예담
3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일 반			
1	사람풍경	김형경	아침바다
2	미쳐야 미친다	정민	푸른역사
3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문예출판사

2006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수상한 선물가게	류가미	국민서관
2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파랑새어린이
3	누리아 누리아	양귀자	문공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의 바이올린	수지 모건스턴	주니어김영사
2	내일을 빼앗지 말아요	도미니크 디메이	크레용하우스
3	어린이를 위한 선물	스펜서 존슨	랜덤하우스중앙
청소년 (중학생)			
1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민음사
2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아이들
3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1	천국에서의 하루	권대응	홍익출판
2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21세기북스
일 반			
1	야생초 편지	황대권	도솔
2	행복에 이르는 길	폴턴 J. 신	해누리
3	천국의 열쇠	A. J. 크로닌	청목
4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김영사



2007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똥장군	김정희	한림
2	도깨비 아버지	이상배	국민서관
3	일기도서관	박효미	사계절
4	전학 간 윤주 전학 온 윤주	장주식	문학동네
5	무너미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이오덕	한길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나 좀 내버려둬	박현진	천둥거인
2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	북뱅크
3	빌리 엘리엇	벨민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4	샬롯의 거미줄	엘원 브룩스	시공주니어
5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작과비평사
청소년 (중학생)			
1	기자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낭기열라
2	곰보빵	이철환	꽃삼
3	주머니속의 고래	이금이	푸른책들
청소년 (고등학생)			
4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푸른숲
5	부의 미래	엘빈 토플러	청림
일 반			
1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	손혜주 외	사이언스북스
2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3	별처럼 태어났으니 눈부시게 사랑하라	정연	고니
4	천개의 공감	김형경	한겨레출판
5	청소부 밥	토드 홉킨스	위즈덤하우스
6	행복한 사람 타샤튜더	타샤 튜더	월북
7	호미	박완서	열림원



2008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황소와 도깨비	이상	다림
2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셸 누드슨	웅진씽크빅
3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이태수	우리교육
4	바나나 필통속의 공쥐	이미애	행복한아이들
5	꿀찌가 받은 상	김용인	영림카디널
6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창비
7	우리 독도에서 온 편지	윤문영	계수나무
8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아이세움
9	금순아, 노을자	이상권	창비
10	아름다운 꿀찌	이철환	주니어랜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폴코스 질문화여행	인병선	현암사
2	엄마의 마지막 선물	문선이	파랑새
3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김려령	문학동네
4	천년의 사랑 직지	조경희	대교출판
5	우리 다시 만날 때	송재찬	계수나무
6	나는 무슨 씨앗일까	박효남	샘터사
7	하늘을 나는 교실	에리히 케스트너	시공사
8	명혜	김소연	창비
9	가짜 한의사 외삼촌	최미선	문원
10	다산의 아버지께	안소영	보림
청소년 (중학생)			
1	나무의 죽음	차윤정	웅진지식하우스
2	하늘이 낸 성인을 꿈꾸던 공자 vs 저절로 참 스승이 된 노자	권순이	숨비소리
3	펼떡이는 길거리 경제학	이영직	스마트비즈니스
4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하페 케르켈링	은행나무
5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청소년 (고등학생)			
1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한길사
2	우리들의 스캔들	이현	창비
3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4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정유정	비룡소
5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일 반			
1	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2	비형랑의 낮과 밤	김인배	문학세계
3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푸른숲
4	철학! 영화를 casting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5	한국의 고집쟁이들	박종인	나무생각
6	바리데기	황석영	창비
7	어린이를 살리는 문학	이오덕	청년사
8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9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	이혜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0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얼 고틀립	문학동네



2009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친구 도서관	김하늬	한겨레아이들
2	도둑님 발자국	황선미	배틀북
3	멀쩡한 이유정	유은실	푸른숲주니어
4	선생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강무홍	사계절
5	책 읽는 허수아비	마크 킴볼 몰튼	예꿈
6	은비네 시골일기	고정옥	진선북스
7	너 나 우리	선안나	샘터사
8	멋진 여우씨	로알드 달	논장
9	나는 떠돌이 개야	이상교	시공주니어
10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어린이
2	랑랑별 때때롱	권정생	보리
3	책읽는 도깨비	이상배	처음주니어
4	나는 진짜 나일까	최유정	푸른책들
5	귀신 고래	김일광	내인생의책
6	우리집 우렁이 각시	이금이	보물창고
7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현길언	계수나무
8	마르코 폴로의 모험	러셀 프리드먼	두레아이들
9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앨 고어	주니어중앙
10	준비됐지?	김옥	창비
청소년 (중학생)			
1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문학동네
2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오바마 이야기	헤더 레어 와그너	명진출판사
3	스프링백	배유안	창비
4	나의 권리를 말한다	전대원	뜨인돌
5	꽃피는 고래	김형경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이 일기는 읽지 마세요, 선생님	마가렛 피터슨 해딕스	우리교육
2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문예출판사
3	젊음의 탄생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4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궁리
5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박종인 외	시공사
일 반			
1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	마지막 강의	랜디 포시	살림
3	듀이: 세상을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비키 마이런	갤리온
4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해냄
5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6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7	내려가는 연습	유영만	위즈덤하우스
8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구중서	책만드는집
9	습지와 인간	김현주	산지니
10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이충렬	김영사



2010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대머리 사막	박경진	미세기
2	이르기 대장 1학년 나최고	조성자	아이앤북
3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김현태	아이앤북
4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고래이야기
5	큰 고추 작은 고추	하이타니	양철북
6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엘렌사빈	문학동네
7	알몸으로 학교 간 날	타이마크 르탄	아름다운 사람들
8	베컴머리 힙합 선생님	노혜영	교학사
9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송윤섭	주니어김영사
10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이금이	보물창고
초등 고학년 (4~6학년)			
1	숨쉬는 책 무익조	김성범	문학동네
2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최은영	우리교육
3	어진이의 농장 일기	신혜원	창작과비평사
4	지구를 지키는 가족	김바다	한림출판사
5	멋지다 우리역사	강명관	주니어김영사
6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디자인 하우스
7	맑은 날엔 도서관에 가자	미도리카와 세이지	책과콩나무
8	책 읽어주는 바둑이	이상배	처음주니어
9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창비
10	똥 치우는 아이	김문주	예림당
청소년 (중학생)			
1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브라이언 밀러	서해문집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3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	러셀 프리드먼	비룡소
4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미래M&B
5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창비
2	살아 있음이 행복해지는 희망 편지	김선규 외	랜덤하우스코리아
3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푸른숲
4	시골 똥 서울 똥	안철환	들녘
5	오늘 아침,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클레지오	파랑새
일 반			
1	재미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2	공무도하	김훈	문학동네
3	햇살 한 줌 향기 한 줌	정목일	문학수첩
4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연	웅진지식하우스
5	풀밭 위의 식사	전경린	문학동네
6	아버지의 눈물	김정현	문이당
7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수이치	21세기북스
8	덕혜옹주	권비영	다산책방
9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신의진	걷는나무
10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김정운	쌤앤파커스



2011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내 친구 조이	표지율	대교출판
2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번	뜨인돌
3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보림
4	책임어주는 로봇	이영득	보림
5	스티커 토끼	가브리엘라 케셀만	책속물고기
6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배유안	파란자전거
7	강치야 독도강치야	주강현	한겨레아이들
8	쫓드기쌈 쫓드기쌈	최종득	문학동네
9	헨젤과 그레텔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	고자현	동아사이언스
10	내 친구는 얼굴색이 달라요	콜레트 엘링스	시공주니어
초등 고학년 (4~6학년)			
1	당산할매와 나	윤구병	휴먼어린이
2	어느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레베카 스테드	찰리북
3	사계	마르코 심사	우리교육
4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
5	봉주르 두르	한윤섭	문학동네
6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정원각 외	상수리
7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파란자전거
8	나의 어설픈 영웅 안톤	제임스 말로니	책그릇
9	피타고라스 구출작전	김성수	주니어김영사
10	엄마의 슬픈날	시린 호마이어	문학동네
청소년 (중학생)			
1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문학동네
2	통계계사	김상훈	다산북스
3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살림
4	판타스틱 걸	김혜정	비룡소
5	길은 학교다	이보라	한겨레출판
청소년 (고등학생)			
1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뿌리와이파리
2	가족 표류기	M.H. 혈룡	양철북
3	맹자	장현근	한길사
4	가족입니다	김해원	바람의아이들
5	소피의 세계	요스타인 가아더	현암사
일 반			
1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문학동네
2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현대문학
3	서재 결혼 시키기	앤 패디먼	지호
4	크로스	정재승 & 진중권	웅진지식하우스
5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연암서가
6	아름다운은 힘이 세다	페이로 페루치	웅진지식하우스
7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랜덤하우스
8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 열전	이윤기	민음사
9	3분 고전	박재희	작은씨앗
10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심리학	이소라	그리고책



2012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무릎팍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한울림어린이
2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3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4	책 씻는 날	이영서	학교재
5	(이이화역사할아버지가들려주는)발효이야기	이이화	파랑새
6	바다로 가는 은빛 그물	황선미	시공주니어
7	빨강연필	신수현	비룡소
8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산하
9	마틸드는 쓰레기 박사	소피세레	크레용하우스
10	내가 원래 뭐였는지알아?	정유소영	창비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기묘한 DNA 도서관	하바 아라시	복스마니아
2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바람의아이들
3	붕구붕구 붕규야	김문주	예림당
4	소나기 밥 공주	이은정	창비
5	열세 번째 아이	이은용	문학동네
6	완벽한 가족	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	다림
7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윤섭	푸른숲주니어
8	우리 그림이 들려주는 사람이야기	박영대	현암사
9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이해숙	책과함께어린이
10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주니어김영사
청소년 (중학생)			
1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명진출판사
2	가시고백	김려령	비룡소
3	검은 개들의 왕	마윤제	문학동네
4	핸드폰이 사라졌다	웬디 하머	개암나무
5	방주로 오세요	구병모	문학과지성사
청소년 (고등학생)			
6	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	에릭 솔로서	모멘토
7	괜찮아, 열일곱 살	이나미	이랑
8	조선왕을 말하다	이덕일	역사의아침
9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10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학교재
일 반			
1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정희일	다산라이프
2	안철수의 서재	이채윤	푸른영토
3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21세기북스
4	다 그림이다	손철주,이주은	이봄
5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다	강풀 외	한겨레출판사
6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7	흑산	김훈	학교재
8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스님	쌤앤파커스
10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예담



2013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경회루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햇살과 나무꾼	비룡소
2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비룡소
3	맛있는 짜장면의 역사	박남정	산하
4	까만 아기양	엘리자베스 쇼	푸른그림책
5	엄마 사용법	김성진	창비
6	옆집 아이는 로봇	한주형	책과콩나무
7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 이야기	한영식	아이세움
8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책읽는곰
9	착한아이 사탕이	강밀아	글로연
10	천개의 바람 천개의 첼로	이세 히데코	천개의바람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군계 다짐합니다	조경숙	국민서관
2	귓속말 금지구역	김선희	살림어린이
3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정창권	사계절
4	날씨 전쟁	토니 브래드먼	사파리
5	섬마을 스캔들	김연진	살림어린이
6	속담 속에 숨은 수학(단위와 측정)	송은영	봄나무
7	시간 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8	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책과콩나무
9	왜 우리는 친구일까?	박성철	서교
10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울렸을까	석혜원	풀빛
청소년 (중학생)			
1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 외	꿈결
2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창비
3	열혈 수탉 분투기	창신강	푸른숲
4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자음과모음
5	식탁위의 세계사	이영숙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까칠한 재색이가 돌아왔다	고정욱	애플북스
2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웅진지식하우스
3	박철범의 공부특강	박철범	북스토리
4	수상한 화가들	박석근	사계절
5	살아있는 귀신	설 혼	창비
일 반			
1	꾸뻬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오래된 미래
2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3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정호승	비채
4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하타사와 세이고	다룬
5	문명의 배꼽, 그리스	박경철	리더스북
6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7	삶을 바꾼 만남	정민	문학동네
8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9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
10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웅진지식하우스



2014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꼬마 사서 두보	양연주	키다리
2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패트리샤 맥키삭	고래이야기
3	내 뽀스	박종채	키다리
4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	정란희	키다리
5	맑은 하늘 이제 그만	이옥재	노란돼지
6	멋대로 맘대로 월로	데니즈 브레넌 넬슨 외	찰리북
7	미술관의 초대	수전 베르데	문학동네
8	발레 하는 할아버지	신원미	머스트비
9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림	실천문화사
10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린다 그리바	아름다운사람들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가족을 주문해 드립니다	한영미	살림어린이
2	게임 파티	최은영	시공주니어
3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살림어린이
4	나는 바람이다 1~2	김남중	비룡소
5	나는 투명 인간이다	박성철	아이앤북
6	말이 통하는 아이	노여심	주니어김영사
7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햇핑크돌핀스	두레아이들
8	백번 읽어야 아는 바보	김홍식	파란자전거
9	우리 집 쓰레기통 좀 말려줘	태미라	스콜라
10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오진희	웃는돌고래
청소년 (중학생)			
1	남쪽 섬 티오	이케자와 나쓰키	미래인
2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박지혜	뜨인돌
3	십대를 위한 직업 백과	이랑	꿈결
4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뜨인돌
5	휴대폰 전쟁	로이스 페터슨	푸른숲주니어
청소년 (고등학생)			
1	벙커	추정경	놀
2	여덟 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3	열여덟 소울	김선희	살림
4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돌베개
5	지구가 뽐났다	남종영	꿈결
일 반			
1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3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최은희	낮은산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5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홍익출판사
6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	한겨레출판사
7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난다
8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박영신	정신세계사
9	인생수업	법륜	휴
10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2015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5대 가족	고은시, 이억배그림	바우솔
2	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	이하은	파란자전거
3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강정연	라임
4	목기린씨 타세요	이은정	창비
5	슈퍼거북	유설화	책읽는곰
6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마크 핏, 게리 루빈스타인	두레아이들
7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8	텔레비전을 끌 거야!	제임스 프로이모스	두레아이들
9	플라스틱 섬	이명애	SANG
10	햄스터 마스크	우쓰기 미호	책읽는곰
초등 고학년 (4~6학년)			
1	갈색아침	프랑크 파블로프	휴먼어린이
2	빵 터지는 빵집	원유순	크레용하우스
3	세계를 바꾸는 착한 기술 이야기	유영선	북멘토
4	악당의 무게	이 현	휴먼어린이
5	앵그리 맨	그로 달레	내인생의책
6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임지윤	창비
7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비룡소
8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사계절
9	제인 에어와 여우, 그리고 나	패니 브리트	책과콩나무
10	초등생을 위한 환경 특강	윤해윤	나무처럼
청소년 (중학생)			
1	김치도 콩치도 아닌 정치	임정은	다른
2	내 이름은 옴비	옴비 토나, 박진숙	이후
3	모두 잠언	김중미	창비
4	생명의 릴레이	가마타 미노루	양철북
5	우리 친구 맞아?	이남석	창비
청소년 (고등학생)			
1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따비
2	델 문도	최상희	사계절
3	수상한 북클럽	박현희	문학동네
4	식탁 위의 한국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5	어쩐지 근사한 나를 발견하는 51가지 방법	공혜진	동양북스
일 반			
1	1그램의 용기	한비아	푸른숲
2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문학동네
3	단속사회	엄기호	창비
4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윤신영	MID
5	소년이 온다	한 강	창비
6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	시공아트
7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소나무
8	자스민 어디로 가니	김병중	열림원
9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	메디치
10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2016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번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초등 저학년 (1~3학년)			
1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거북이북스
2	나부랭이!	제니 오필	봄나무
3	땅속 괴물 몬테크리스토	허가람	웅진주니어
4	마음을 배달해 드립니다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	멧돼지가 쿵쿵 호박이 둥둥	김애란	창비
6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고래이야기
7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사계절
8	소원을 말해 봐	김소연	비룡소
9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10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주니어김영사
초등 고학년 (4~6학년)			
1	2등을 위하여	실비아 태케마	아름다운사람들
2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어린이작가정신
3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문학동네어린이
4	빨간 자전거	주드 이사벨라	머스트비
5	아빠, 소 되다	헬리 혜성	한림출판사
6	애들아, 왜 지구가 아픈지 아니?	안드레아스 슐룸베르거	토토북
7	엄마는 학교 매니저	안미란	주니어김영사
8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어린이
9	취포 스타일	김지영	비룡소
10	화학이 정말 우리 세상을 바꿨다고?	실바나 푸시토	찰리북
청소년 (중학생)			
1	꼰대 아빠와 등골브레이커의 브랜드 썰전	김경선	자음과모음
2	소년이여, 요리하라	금정연 외	우리학교
3	수상한 진흙	루이스 새커	창비
4	쓸모없어도 괜찮아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5	테오도루 24번지	손서은	문학동네
청소년 (고등학생)			
1	꽃 달고 살아남기	최영희	창비
2	세상을 바꾼 이슬람	이희수	다른
3	창밖의 아이들	이선주	문학동네
4	하리하라의 음식과학	이은희	살림Friend
5	홀딩 파이프 도와줘	김성빈	마리북스
일 반			
1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김정은	21세기북스
2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열린책들
3	근시 사회	폴 로버츠	민음사
4	내 서재 속 고전	서경식	나무연필
5	담론	신영복	돌베개
6	사랑하는 안드레아	룽잉타이, 안드레아	양철북
7	서민적 글쓰기	서민	생각정원
8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갤리온
9	철학의 힘	김형철	위즈덤하우스
10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서해문집

2017
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작품집

CHANGWON PUBLIC LIBRARY

